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24호 HYUNBULNEWS.COM 2025년 3월 26일(음력 2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가 교구본사가 추진하는 1호 선명상센터 건립의 첫 삽을 떴다. 이날 기공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스님,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 정관계 인사들이 기공식에 대거 동참해 시삽하며 선명상 세계화를 주도하는 전법도량으로서의 첫 발을 축하했다.

봉선사, 교구본사 선명상센터 1호 '첫 삽'

3월 18일, 명상체험센터 기공식
진우 스님 "열린공간 국민쉼터를"
政관계자 "적극 지원할 것" 약속
문화센터 형태, 2026년 완공 예정

남양주 봉선사=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가 대규모 명상체험센터 건립의 첫 삽을 뜨며 선명상 세계화를 주도하는 전법도량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다. 봉선사 명상체험센터는 교구본사가 추진하는 1호 선명상센터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K-선명상을 주도할 센터는 현대인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명상 세계화를 통해 지역활성화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봉선사는 3월 18일 경내에서 '명상체험센터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스님들과 전국교구본사주지스님, 종회의원 등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을 비롯해 남양주시청 관계자와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 남양주 진접읍 부평리 249번지에 건립될 봉선사 명상체험센터는 총면적 3만905㎡에 건축면적 2744㎡, 연면적 4215㎡로 지하 1층, 지상 2층, 최고높이 9.26m 규모다. 불교명상관, 웰컴센터, 명상마당, 참선동, 명상 미디어영상관, 관리동 등으로 구성된다.

봉선사는 2023년 9월, 센터 건립 계획안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협의를 시작했다. 2024년 1월 경기도로부터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으로 센터 건립 사업비를 확정받았고 이후 건립부지 지반조사 등을 거쳐 2025년 3월 14일 건축허가처리가 완료되면서 이날 기공식을 봉행할 수 있었다. 이날 첫 삽을 뜬 센터는 190여억 예산을 들여 전통적이면서 품격 높은 문화센터의 모습으로 2026년 완공될 예정이다.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봉선사 명상체험 센터가 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삼학과 팔정도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수행처이자 열린 공간으로서 국민들 마음의 쉼터가 되길 기대했다. 아울러 봉선사가 지역사회와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선명상 가르침을 전파하며 선명상 대중화를 선도하는 중심 도량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길 염원하기도 했다. 스님은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포교 전진 도량 건립을 계기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접하고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리길 기원한다"면서 "봉선사 선명상체험센터가 불교 수행의 중심이자 선명상의 대중화를 이끄는 소중한 공간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명상체험센터 건립을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 등 큰 도움을 준 각계각층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센터를 활용해 모든 이들이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명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전법의 길에 봉선사 사부대중은 온 마음을 합쳐 정진해 나갈 것"이라며 "어른스님들 잘 모시고 최선을 다해 불사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선명상센터 건립은 한국불교의 전환점이 될 핵심 사업"이라며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의 원력으로 활발한 전법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봉선사가 선명상센터 건립으로 현대인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전하는 등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각계각층에서도 센터를 향한 기대를 표했다. 원로의원 일면 대종사는 "대표적인 교종 본찰인 봉선사에 센터가 건립되면 선과 교가 어우러지는 기도정진 도량이 될 것"이라 기대했고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센터 건립으로 선명상이 원활히 보급돼 총무원장 스님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보급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 한국불교와 종단이 중흥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등운 스님도 "모두의 원력으로 세상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나라가 평안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조계종이 추진하는 선명상 대중화는 화합과 치유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 사회에 마음평안을 지향하고, 화쟁정신으로 원융무애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정신적 가치의 필요성을 전하는 매개가 될 것"이라며 "국민 마음을 위로하는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경기도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봉선사가 마음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곳이자 K-명상 세계화를 위한 베이스캠프가 되길 기대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센터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남양주시장과 도시사, 국회의원들이 한마음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국대 숙원 '로터스관' 건립불사 추진 본격화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사업 승인
박물관, 선센터, 연구시설 들어서
올해 9월 착공…2028년 8월 준공



새로 조성될 동국대 로터스관 모형.

동국대의 숙원 사업인 '로터스관' 신축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는 3월 19일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제360회 이사회를 열고 로터스관 신축사업 변경 승인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승인에 따라 지난 2018년 사업 추진을 시작한 동국대의 '로터스관'은 6년 만에 신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총 연면적 2만6502㎡, 건축면적 2843.46㎡에 본관 지하3층~지상3층(2411평), 별관 지하 6층~지상 2층(5619평)으로 지어지는 '로터스관'에는 박물관·선센터·사무공간·교육연구시설·강의실 등이 들어선다.

동국대는 '로터스관' 변경설계와 시공업체, 감리업체 선정 등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하고 9월에 착공식을 열 예정이다. 준공은 오는 2028년 8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로터스관' 신축은 지난 2012년에 남산공원 구역이 해제 된 후 동국대가 추진 해온 불사다. 역대 동국대 이사장과 총장이 해당 건물을 짓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지난 2018년에는 중문 일대 국유지를 매입하며, 기공식도 개최하기도 했다.

동국대 중문(혜화문)에 로터스관이 신축되면 동호로와 바로 연결돼 사람과 차량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언덕이었던 학생들의 통학로도 평지화 된다. 또한, 주변 유명 호텔과 체육관들과 연계되는 동국대 '로터스관'은 학교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사들도 신축되는 '로터스관'이 동국대 브랜드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진식 이사는 "이번 로터스관 신축불사는 서울캠퍼스 종합발전 계획 일환으로 계획된 것으로 학교 균형발전을 위해 가급적이면 빠르고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로터스관은 학교 교육환경의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로터스관 신축은 동국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불사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며 최적화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부처님의 밝은 빛이 교정에 가득 채워져, 동국발전이 불교중흥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면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올해 봉축표어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봉축위, 3월 20일 발표

불기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로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Peaceful World, Compassionate Mind)'이 선정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진우스님)가 3월 20일 발표한 봉축표어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은 세상이 조화롭게 유지되기 위해 평화와 안정을 찾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며 이를 사회와 세상에 확산함으로써 세상에 평안을 가져오자는 뜻을 담고 있다.

봉축포스터는 연꽃 위에 좌정한 부처님 모습과 부드러운 빛의 퍼짐을 통해 '자비의 마음이 평안한 세상을 만드는 길'임을 표현하고 있다. 봉축위원회는 "따뜻한 색감을 활용해 부처님오신날의 환희로운 분위기와 함께 밝은 빛이 세상을 비추는 의미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이에 봉축위원회는 연등회를 종교·성별·국내외·계층을 초월해 누구나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축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범어사 금강계단 산림

제125회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
불기 2569년 4월 11일~12일(음 3. 14~15) 오전 10시
금정총림 범어사 금강계단
접수처_재적사찰 및 범어사 원주실
문 의_051)508-3636
大韓佛教曹溪宗 第14教區 本寺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국제선명상축제, 대국민 축제로 발돋음한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선명상위원회, 3월 17일 제3차 회의서
4월 1~6일 '2026 국제선명상축제' 진행 공유
진우 스님 "국민들 불교 쉽게 접하도록" 당부

조계종이 국제선명상대회를 대국민 명상 축제로 발돋음 시킨다. 일상 속 수행의 연결로 '하루 5분 선명상'을 활성화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선명상 브랜딩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선명상위원회(위원장 금강 스님)는 3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년 국제선명상대회'와 '선명상 템플스테이' '선명상 개론' 등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선명상위원이 참석한 가운 이날 회의는 4월 1~6일 서울 봉은사 일대에서 열리는 '2025 국제선명상축제'의 구체적인 계획이 공유됐다. 국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과 대중화를 위해 마련된 국제선명상축제는 깨달음, 몸, 삶, 치유, 집중, 소통, 휴식 등 총 7개 분야를 위한 선명상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명상과 요가 등을 통해 심신의 조화를 찾고 감정 조절, 상처치유, 수면 개선, 긴장 완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조계종은 대회를 계기로 '하루 5분 선명상 국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선명상 캠페인을 통해 브랜딩을 강화, 일상 속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축제 기간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과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의 간화선 특별초청법문과 함께 젊은 층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준한 스님과 가수 하림이 함께하는 헤어진 연인을 위한 위로 콘서트가 열린다. 뉴진스님의 디제잉 무대는 덤이다. 또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과 이상봉 패션 디자이너, 예능인 홍석천 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무모한 도전에 대한 토크쇼도 준비됐다.

조계종 측은 이번 2025 국제선명상대회 참여인원을 약 1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계종은 친환경 바른 행사 구축을 위해 최소한의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5~9월에는 전국 지역에서도 다양한 축제를 즐길 수 있다. 10월 국제 컨퍼런스를 마지막으로 2025 국제선명상축제'는 마무리된다.

이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은 우리 불교 고유의 선 수행과 서구에서 유행하는 명상 등이 융합된 것"이라며 "국민과 젊은이들이 불교 문화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매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선명상이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잘 전파되고 전법이 돼 우리 국민들에게 불교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밀했다.

선명상위원회 위원장 금강 스님은 지난 2월 28일, 세계 인구가 82억명이 된 사실을 언급하며 "세상의 행복을 위해 선명상이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국제선명상대회, 선명상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사회에 잘 알려져 선명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진우 스님, 정치인들에 "국민에게 진심 참회하라"

한동훈 전 대표에 "정의로운 정치"
안철수 의원에겐 화쟁 사상 강조





진우 스님은 3월 17일 예방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국민에게 참회하라"고 쓴소리했다.〈사진 왼쪽〉 3월 19일 예방한 안철수 의원에게는 화쟁 사상을 품고 정치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사진 오른쪽〉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정치인들의 연이은 예방에 "오직 국민 행복만을 생각하라"고 충고했다.

진우 스님은 3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예방을 받고 "난국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준 점 진심으로 참회하길 바란다"고 쓴소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 책임이 크다면서 "종교계 어른의 가르침을 배워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최근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한 전 대표에게 모든 사물은 극에 도달하면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온다는 '물급필반(物極必反)'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바깥 환경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인연 조건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스스로 중심을 잡고 헤쳐나가야 한다"면서 "세상이 평안해도 내가 흔들리면 불편하고 세상이 복잡해도 내가 중심을 잡으면 스스로 평안해 진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민감한 시기, 한 당의 대표를 맡았던 만큼 현 국가의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일부 책임이 분명히 있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진심으로 참회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진우 스님은 또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치적인 부분에서 내가 중심을 갖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진영 논리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나가길 바란다"면서 "올바르고 정의롭게 바라보려는 마음만 있다면 좋은 결과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 책임이 크다"면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진심"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월 19일 진우 스님을 예방해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평안하게 하지 못한 점을 반성했다. 그러면서 "부처님 지혜가 세상을 밝게 비추듯,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준 점에 대해 참회해야한다"면서 화쟁 사상을 품고 정치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예방에서는 현재 난국의 상황에 대한 대화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기술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진우 스님은 의사이자 과학자 출신인 안 의원에게 불교와 양자역학의 접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첨단 과학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이어 "최근 젊은 층들이 삶에 어려움이 많은 이유에는 기성세대의 잘못도 있다"면서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선명상 보급에 진력하고 있다. 정치인들도 마음을 잘 다스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화합의 의미가 담긴 화쟁사상으로 불교는 역사적으로 자비와 호국, 평안을 위해 힘써왔다"면서 "국민 한 사람 한사람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진우 스님 "삼원 통합으로 전법포교"

3월 18일, 봉선사서 제1차 교구본사주지회의

멸빈자 사면 특별법 제정안 보고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공유



조계종이 4월 1일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을 앞둔 가운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에게 202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요 종책사업을 보고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18일 남양주 봉선사 청풍루에서 불기2569(2025)년 제1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종헌 일부 개정안 보고의 건 △'멸빈자 사면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보고의 건 △불기2568(2024)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 △불기2569(2025)년도 중앙종무기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 △조직개편에 따른 종법 제개정의 건이 보고됐다.

진우 스님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혼란의 시기, 지금이야말로 종단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할 때"라며 "집행부는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 평화를 위해 선명상 대중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신행생활 중심에서 선명상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월 1일부터 실시될 삼원통합에 대해서도 "의미를 적극 살펴 전법 포교와 승가교육 체계화를 적극 살필 것"이라면서 "치유, 평안, 화합을 기치로 삼아 사부대중과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진심 어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종단 미래를 열어가도록 끊임없이 정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이날 회의에서는 멸빈자 사면과 관련한 종헌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조직개편에 따른 종법 제개정의 건 등이 보고됐다. 3월 26일 임시중앙종회에서 사면복권특별법을 상정하고 원로회의 종헌 개정안 인준을 거쳐 종헌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이다. 이후 사면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사면대상자 확정과 임시 중앙종회 안건 상정, 종정 사면대상자 품신 후 사면 복권이 시행된다.

조직개편에 따른 중앙종무기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추가경정 예산안은 382억 5410만원이다.

한편 이날 진우 스님은 호국대전당 건립불사를 원만회향한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의 공로를 치하하며 표창패를 수여했다.

남양주=임은호 기자

동국대 이사에 성화·덕운 스님 추천

종관위, 3월 18일 회의서 결정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삼조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동국대 이사 후보에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 스님과 총무원 기획실 감사국장 덕운 스님이 복수 추천됐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오심 스님, 종관위)는 3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31차 회의를 열어 학교법인 동국대 임원(이사) 후보 복수 추천의 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성화 스님은 정우 스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4년 수계했다. 제16~17대 중앙종회의원,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관악구장애인복지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장안사 주지와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을 맡고 있다.

덕운 스님은 선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2005년 수계했다.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 봉정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총무원 기획실 감사국장과 충정사 주지를 맡고 있다.

종관위가 복수 추천한 동국대 이사 후보는 3월 26일 개원하는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승인 절차를 걸쳐, 동국대 법인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된다.

이날 위원장 오심 스님은 "종립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종관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총무원장 선거제도 「직선제」로 한국불교 혁신하자!

대한불교조계종 종헌 기구의 대덕과 교구본사 주지스님! 중앙종회의원스님! 그리고 종도 여러분!

승가는 대중공사라는 수승한 토론 문화를 통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대중공사는 공의와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불가의 전통적 논의 제도입니다. 승가는 중요한 일을 이러한 대중공사를 통해 토의하고 결정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았으며 소속감과 자긍심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의 갈마제도(羯磨制度)와 산중공의(山中公議) 제도는 의사결정과 화합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현대의 직접민주주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탁월하고 모범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계종은 총무원장 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정작 대중이 소외되었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 제 35대 선거에서는 한 스님에게 금권선거로 징계처분이 가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총무원장 선거제도는 1994년 종단 개혁불사를 통해 안착된 것입니다. 이후 열한 분의 총무원장과 다섯 분의 권한대행이 종단을 이끌었습니다. 조계종의 총무원장 선거는 늘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거대 종단의 수장을 뽑는 선거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런저런 잡음과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조계종단과 한국불교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대중의 참여가 확대된 방식의 총무원장 선거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단이 사회 변화에 대한 예민함을 잃어버리고 능력 있는 스님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면 불교는 발전 동력을 잃고 침체될 수밖에 없으며 기대할 것이 없어진 대중은 실망하여 무기력에 빠지거나 떠나게 됩니다.

지난 20여 년간 총무원장 직선제에 대한 종도 대중의 제안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토론도 제법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많은 논의는 무위로 끝나버렸습니다. 더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대중의 공의를 왜곡 없이 수렴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직선제입니다.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직선제 논의가 다시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삼스럽게 무슨 직선제를 재론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으나 종단이 혁신을 외면하고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한다면 우리 불교와 승가는 절체 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출가자와 불자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로부터의 도전에도 대응해야 하고 끊임없이 존재의 의미를 묻는 사회의 물음에도 당당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이제라도 종정 예하를 비롯하여 원로회의, 교구본사, 중앙종회 등 종헌기구가 나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수십여 년 종도 대중의 염원이 관철되도록, 일체의 잡음이 없는 투명하고 청정한 직접선거로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총무원장 선거제도를 혁신해 나갑시다. 총무원장 직선제로 새로운 불교사를 장엄하고 불교 중흥의 당간지주를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불기2569(2025)년 3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法 應

진우 스님, 열암곡서 국가 평안·화합 발원

조계종, 3월 15일 국민화합 기원 108배 기도법회 봉행

진우 스님 취임 900일 기념
원력 모아 국난 극복 발원

경주 열암곡=임은호 기자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이 바로 세워지고 혼란 속에 있는 국가의 평안과 국민 화합의 염원이 담긴 108배 기도법회가 경주 남산에서 열렸다.

조계종은 3월 15일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 앞에서 '국민화합기원 열암곡 마애부처님 108배 기도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이날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900일째를 맞아 진행된 것이라 의미를 더했다. 이날 법회에 모인 400여 사부대중은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울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마음의 평안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도록 큰 원력을 갖고 간절히 기도할 것을 다짐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108배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무기관 소임자 스님들, 불교계 단체장 등 20여 명이 동참했다. 협소한 공간으로 108배에 동참하지 못한 대중들은 '다라니'를 독송하며 빗줄기 속에서 기도를 올렸다.

108배 후에는 선명상 실참이 이어졌다. 싱잉볼 소리에 맞춰 대중들은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흘러보내는 '쉘패스 선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평정심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무원장 취임 이후 핵심 추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 불사의 의미를 설명한 진우 스님은 "1000년을 누워계신 부처님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우리 국가 문화유산 복원을 넘어서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며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한 호국과 자비 정신을 되살리고 새로운 천년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원력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진우 스님은 열암곡 마애부처님께서 바로 일어선다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번영과 국운 융창이 다시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님은 "국민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는 1700년 불교 역사와 그 가르침이 다시금 활화산처럼 타오를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된 국민의 힘으로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평안과 국민 화합 염원이 담긴 108배 기도법회에서 진우 스님은 "열암곡 마애부처님이 바로 일어선다면, 나라의 번영과 국운 융창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가 마음의 평안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큰 원력을 세우고 간절히 기도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법회에는 불자 가수이자 배우 이승기씨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이승기 씨는 이날 명경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과 함께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 1억원을 진우 스님에게 전달하고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국가유산을 제대로 한다는 취지와 원장 스님의 의지에 감동을 받아 동참하게 됐다"면서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위안을 받고 우리나라 문화의 힘도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 출·재가자 두 번째 수행결사 시작

전국비구니회, 3월 17일 만불전서 '올 상반기 청정승가공동체' 입재식



여성 출·재가자가 한자리에 모여 '여성 수행자'로 함께하는 두 번째 수행결사가 시작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차를 맞이한 이번 결사는 비구니 스님과 재가자가 수행으로 하나 돼 승가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데 의미가 크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3월 17일 경내 만불전에서 '2025년 상반기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 스님들과 여성 재가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동시에 온라인 줌으로도 90여 명이 동참하며 수행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는 지난해 3월, 4년간의 수행을 목표로 출범한 여성불자 수행 공동체다. 사찰과 대중 소임 또는 직장과 가정 등 각자의 처소에서 책임을 다하며 살면서도, 수행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수 수행결사다.

이번 상반기 수행결사는 6월까지 한 달에 2번(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 진행한다. 서광 스님의 지도 아래 위빠사나 명상의 이론과 실참을 익히고, 화두선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행법을 실습한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수행결사에 참여하는 이들은 보건복지부 인증 '명상심리상담사 2급 과정'을 병행할 수 있다.

이날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수행결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성 수행자들이 마음을 모으는 것 자체가 수행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광용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은 수행에 있다. 수행자가 수행하고자 마음먹는 것은 엄지손가락 위에 흙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만큼 마음내기 어렵고 귀하다는 뜻"이라며 "우리는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수행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명약이다. 함께 수행하는 공덕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원로회 수석부회장 일법 스님은 "지난해 1년간 수행을 해보니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올해도 기대가 크다"며 "수행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승가공동체의 순수성을 보호하고 확대해 나가는 기간으로 삼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동참자들의 기강을 바로세우는 입승 정묵 스님(비구니회 부회장)은 △승가공동체의 일원임을 항상 명심할 것 △소욕지족의 단순 소박한 생활을 할 것 △서로 경어를 쓰며, 말과 행동을 부드럽고 자애롭게 할 것 △잠깐이라도 매일 꾸준히 정진할 것 △봉사와 배려로 붓다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며 모범을 보일 것 △환경친화적인 삶을 생활화하며, 절약과 재활용을 실천할 것 등 12가지 수행 청규를 발표하며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화엄사 신임 주지에 우석 스님 선출

3월 20일 산중총회서 만장일치
우석 스님 "문도 화합에 최선"



지리산 화엄사는 3월 20일 경내 화엄원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제23대 주지 후보로 우석 스님(현 화엄사 부주지·사진)을 선출했다. 전체 구성원 180명 중 100명이 참석한 이날 산중총회에서 우석 스님은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2025년 5월 9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는 3월 17일 제416차 회의를 열고 우석 스님의 자격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결정했으며 총 180명의 산중총회 구성원을 확정했다.

당선 소감에서 우석 스님은 "1,500년 화엄종찰의 역사를 잇는 선대 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주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화엄사의 위상을 지키고, 원력과 공심을 바탕으로 화엄문도의 화합과 전법 포교 도량으로서 미래 포교의 중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석(愚石) 스님은 종삼 스님을 은사로 1992년 수계했으며, 1997년 동국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전남대에서 박사과정(특수교육학 전공)과 중앙승가대에서 박사과정(문화재학 전공)을 수료했다. 제14·17대 중앙종회의원, 동여수노인복지관 관장, 화엄사 부주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여수 향일암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및 사성암 주지를 맡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종, 무형문화유산 활성화 위한 간담회

무형유산 보유단체 의견 청취
보조금 등 행정 지원 약속도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종단이 보유한 무형문화유산의 활성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태고종은 3월 18일 광주 법륜사에서 '한국불교태고종 무형유산 보유단체 간담회'를 열고, 무형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를 통한 한국불교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간담회에서 "대부분 단체들이 지자체의 지원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며 "총무원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9개 단체를 대표하는 협의체 구성, 정기적 회의 개최 방안이 제안됐다. 총무원은 콘텐츠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수립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9개 단체 대표들은 지자체의 부족한 지원과 전승교육의 어려움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광주를 대표해 참석한 월인 스님은 "5·18 영산재 행사를 40여 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데, 태고종의 이름으로 전국 행사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재 전수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이수자 지정과 관련한 학술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종단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태고종이 보유한 무형유산은 총 9개 지역으로, 국가무형유산인 영산재(서울)와 아랫녘 수륙재(경남 창원)를 비롯해 △영산작법(전북 전주) △범패와 작법무(인천) △제주불교의식(제주) △광주영산재(광주) △불모산영산재(경남 창원) △밀양작양산예수재(경남 밀양) △생전예수재(경기 양주) 등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통도사 자장매가 알려온 봄소식

모진 추위를 작은 꽃잎으로 밀어내며 봄을 불러오는 매화는 봄소식의 전령이다. 양산 통도사의 홍매화도 그 전령 중 하나다. 그 이름은 '자장매'. 통도사 영각(影閣) 앞 자장매가 어김없이 봄을 피워내고 있다.

양산 통도사=하성미 기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3월 3일 국립공원의 날

"아름다운 공존, 함께 그려가는 국립공원"

제5회 국립공원의 날 주간행사 운영

※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 누리집(knps.or.kr) 참조

10년 전보다 사찰 4590곳 감소…“대책 마련 필요” 공감

종단협, 회원종단 29개 현황 조사
10년 전보다 사찰 31.4% 감소
승려 · 정사는 39.11% 감소 파악
행정 구축 · 종도 관리 강화 시급
무창포 모세상 설치 저지 연대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회원종단 29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사찰과 승려(정사) 수가 10년 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에 비해 사찰수는 4590곳이 감소(-31.4%)했으며, 승려(정사)수는 1만 3734명 감소(-39.11%)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이하 종단협)는 3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이사회 및 제6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단협은 2024년 1차 회의에서 결의해 추진한 회원종단 현황조사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14년 이후 10년만에 실시된 것이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자료조사와 심의 및 실사방문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조사결과 2014년 이후 2024년 기준 29개 회원종단은 사찰수, 등기사찰, 승려수에 있어 큰 감소를 보였다. 사찰 수는 2014년 1만 4742개에서 2024년 1만 152개로 4590곳 감소했고, 등기사찰은 2014년 3496개에서 2024년 3451개로 45곳 감소했다. 승려(정사)수는 2014년 3만 5117명에서 2024년 2만 1383명으로 1만 3734명 감소했다.

위원회는 감소의 주요 사유로 고령으로 인한 입적, 분담금 장기미납, 활동부재로 인한 종단별 재 정비와 공찰 감소, 입적에 따른 유족과의 문제 등을 꼽았다.

위원회는 종단 총무원 행정조직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의견도 내놨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3월 20일 ‘제1차 이사회 및 제6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현황조사 결과 회원 종단의 약 1/2정도가 총무원 기능과 실무 인력 운영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디어 시대에 기본조건인 종단 홈페이지 운영 또한 약 20개 미만 종단 만이 운영 중”이라면서 “총무원은 보다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행정기능 구축으로 종단 발전과 종도 관리를 강화해야하며, 이를 위해 회원종단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실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찰 관련 정과규정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고려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관규정 중 ‘시행세칙 제2조 회원의 자격’에는 회원종단 사찰수 30곳 이상 승려(정사) 50명 이상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소속명의 등기사찰 3곳 이상 조건은 11개 종단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2013년도까지는 협회 정관에 구체적인 가입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기준 논란이 있으니 현 회원종단은 소급 적용하고 신규가입 종단에 대해 현행조건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건의했다. 또 미충족 종단은 협회 정관규정을 준수토록 유예기간을 둬 충족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법화종은 이사종단에서 상임이사 종단으로 승격됐다. 세칙 제3조 임원선출에 다르면 상임이사는 25명 이내로 하며, 회장종단 2인, 부회장종단의 이사 각 1인과 이사종단에서 이사 20인 이내로 한다. 이사종단 중 상임이사를 희망하는 종단은 특별분담금을 납부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해임한다.

한국불교지도자 해외성지순례는 9월 15일부터 4박 5일간 몽골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보령시 모세상 조형물 설치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도 있었다.

무창포 해수욕장 신비의 바닷길 조형물 설치 사업은 2023년 충청남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조형물은 긴 머리에 덥수룩한 수염을 가진 서양인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형상으로 성경의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장면과 매우 유사하다. 조계종 사회부는 보령시에서 특정종교의 상징적 인물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조형물 제작 설치 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종단협은 이날 회의에서 조계종 교구본사 및 종회 종교차별종교왜곡특위, 종교평화위원회와 협력해 조형물 설치 반대 활동에 연대하겠다고 했다. 조형물 설치 사업 취소나 변경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충청지역 사찰 및 신도단체 등과 연계해 충청남도 및 보령시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전국비구니회 원로의장에 일법 스님

‘제11차 원로회의’서 만장일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가 신임 원로의장에 원로회 수석부의장 일법 스님〈사진〉을 추대했다.

전국비구니회 원로회의는 3월 20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2층 회의실에서 제11차 원로회의를 열고 신임 원로의장에 일법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원로의장 수현 스님이 원적하면서 비구니회 회칙 제5장 27조 4항 ‘원로회의장, 원로회부의장 궐위 시 최초 회의에서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에 따른 조치다. 일법 스님의 임기는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2026년 5월 2일까지다.

원로의장 일법 스님은 “비구니회 발전과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전국비구니회가 ‘제19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을 확정했다.

비구니회, 청년 포교 나선다

3월 20일, 제19차 정기총회서
올해 예산 및 주요 사업 확정
선명상 · 음악회 등 역점 추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청년들에게 친숙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포교 활동에 나선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3월 20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3층 만불전에서 열린 ‘제19차 정기총회’에서 올해 주요 사업과 예산을 확정했다.

비구니회는 청년 불자 및 대학생 포교를 위해 오는 7월~8월 선명상 프로그램 ‘한여름, 명상으로의 초대’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마음의 쉼을 얻고, 단단한 내면을 길러갈 수 있도록 돕는게 목표다.

또 비구니회 국제·사회부는 청년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연중 6회 ‘힐링 음악 법회’를 개최한다. 음악 법회는 악기를 연주하는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비구니 군법사 스님들이 활동하는 부대를 찾아 음악회를 열어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직접 구운 와플도 장병들의 간식으로 지원한다.

총회에서는 전국비구니회 발전기금 전달식도 이어졌다.

김내영 기자

제42차 한일불교대회, 6월 범어사서 열린다

3월 20일, 제45차 정기총회 개최
6월 17~19일, 새로운 50년 주제

한국과 일본 양국 불교계의 친선우호를 다지는 ‘제42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6월 17일 범어사에서 열린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진우 스님)는 3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기2569년도 제45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42차 한일대회 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 회의는 출석 31명 이임 9명 불참 1명으로 과반수 이상 참석해 성원됐다. 지난해 일본 정토종 대본산 증상사에서 41차 대회를 개최한 양국 불교계는 올해는 6월 17~19일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에서 ‘제42차 한일불교문화교류 한국 범어사대회’를 개최한다. ‘한일불교교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며-지속가능한 교류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범어사대회에는 한국 80명, 일본 50명 등 양국 대표단 130명이 참석한다. 대회는 세계평화기원법회, 유골봉환 위령제 봉행, 학술경연회 및 공동선언문 채택 등으로 진행된다.

회의에 앞서 한일문화교류협의회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양국 불교계 교류가 단순한 친선 교류를 문제를 해결하는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임은호 기자

풍경소리 ‘포교게시판 교체·확대 성료 고불법회’

총 900곳에 3000개 운영 ‘성과’
목종 스님 “포교의 지평 열 때”

지하철과 철도 역사에 포교게시판을 설치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온 풍경소리가 노후된 게시판을 전면 교체하고 전국 3000개 게시판을 확대 운영하는 불사 원만 회향을 기념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축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사진〉



사단법인 풍경소리(대표이사 목종 스님)는 3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포교게시판 교체 및 신규부착불사 성료 고불법회’를 봉행했다.

풍경소리 대표이사 목종 스님은 “1999년 서울지하철공사를 시작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철도공사 등과 협력해 20여 년간 2300여 개의 게시판을 운영해 왔다”며 “2022년부터는 오래돼 낡고 더러워진 게시판을 교체하고, 코레일과 협약을 통해 새롭게 개통한 철도 역사까지 600여 개의 게시판이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풍경소리 포교게시판이 3000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내영 기자

圓 比丘尼 道原堂 萬悟 禪師 寂

불기2569년 을사년 3월 18일(음 2월 19일) 만오스님의 원적을 함께 애도해주신 사부대중께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일생동안 자비 보살의 행을 다하고 가신 만오스님을 추모하고 기리는 49재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함께 자리하시어 원만 회향 되도록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좌 도원 합장

만오 선사 추모 49재 안내

- 초재 3월 23일 (음 2.24) 일요일 오전 10시
- 2재 30일 (음 3. 2) 일요일 오전 10시
- 3재 4월 6일 (음 3. 9) 일요일 오전 10시
- 4재 13일 (음 3.16) 일요일 오전 10시
- 5재 20일 (음 3.23) 일요일 오전 10시
- 6재 27일 (음 3.30) 일요일 오전 10시
- 막재 5월 3일 (음 4. 6) 토요일 오전 10시

– 회향 법문 성암 종범스님 –

※ 문의 : 055)381-9666 / 장소 : 통도사 서축암

대한불교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서축암

제563회 사명대사 춘계향사

일시 : 2025년 3월 29일(토) 10시 장소 : 표충사 사당

대한불교조계종
밀양 표충사
주지 진각
사부대중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338 전화 055)352-1150

“대행선 대중화, 용어보단 구조적 접근을”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주장

대행 선사, 불교를 ‘진리’로써 이해
‘비유의 언어’ 사용해 대중에 법문
“용어 매달리기보다 구조 파악해야”
대행선 대중화 방편에 교육기관 제안
공적제도 통해 일반학문과 연계 가능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3월 15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열린 대행선연구원 제22회 계절발표회에서 ‘구조로 보는 대행선: 대행선의 대중화를 위한 시론’을 발표하고 있다.

안양=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가 전했던 대행선(大行禪)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불교 용어 중심의 이해를 벗어나 ‘구조’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시도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3월 15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열린 대행선연구원 제22회 계절발표회에서 발표한 ‘구조로 보는 대행선: 대행선의 대중화를 위한 시론’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용어보다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로, 불교 용어만으로 불교를 이해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꼽았다. 실제 불교 용어는 포괄하는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다른 용어로도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일상 언어로 법을 설했던 대행 선사의 경우 이 같은 부분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게 최 연구원의 설명이다.

“아프면 의사가 필요하고, 죽을 때는 지장이 필요하고, 죽는 걸 살릴 때는 칠성이 필요하고, 산에는 산신이 필요하고, 물에는 해신이 필요하듯이, 각각 소임을 맡아서 하는 종류가 여기 쫙 붙어 있단 말이에요.” **(〈허공을 걷는 길〉 ‘참나의 줄을 잡고’ 중)**

위의 법문을 인용한 최 연구원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중생교화를 응병여약(應病與藥)이라고 하듯 교화의 방식은 부처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중생이 필요한 모습으로 나투는 것뿐”이라며 “결국 본래 부처님 ‘내 속에 약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관음도 있고, 지장도 있고, 보현도 있고, 법신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뭐든지 여기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행 선사의 법문에서 표현되는 용어에 걸리면 안 된다”면서 “세상에 필요한 모습으로 나투고 있는 것에 이런저런 이름을 붙일 뿐, 근본은 세상이 있는 모든 것이 부처라는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법문을 이해할 때 용어가 아닌 구조에 집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선사가 사용한 ‘비유의 언어’를 꼽았다.

최 연구원은 ‘불성’이라는 일반 불교 용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대행 선사 고유의 비유인 ‘주인공(主人空)’을 예로 들었다. 그는 “비유어를 사용하면 그 비유어의 원래 의미에 맞춰 설명이 확장돼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대행 선사는) 불성의 다른 표현인 ‘주인공’이라는 개념어를 대중미디어의 주인공과 동치시킴으로써 불성이 우리 삶의 핵심임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원섭 연구원

이어 “대행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가 아닌 구조를 살펴야 한다”면서 “대행 선사는 불교 용어도 재해석해 자유롭게 구사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용어 역시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용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맥락을 참고한 구조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행 선사의 설법은 용어나 개념보다는 구조 위주여서 탈종교 시대에 적합한 전법 방식의 표준을 이미 제시”하고 있음을 밝힌 최 연구원은 일반 대중에게 대행선을 전하는 방편으로 교육시스템과 선법가를 꼽았다.

최 연구원은 대행선연구원이 지난해 6월 영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마음학교’ 설립 계획을 소개했다. 대행선연구원은 ‘대행선연구원의 발걸음과 미래: 불은 생명이요, 교는 생활이다’라는 영상을 통해 △한마음 법을 이론·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한마음생활과’ △대행 선사 선법가 이론과 실수를 위한 ‘실용음악학과’ △시대에 맞춰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전달·연구하기 위한 ‘응용 IT콘텐츠학과’를 포함한 ‘마음학교’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최 연구원은 “대행선을 대중화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해도 대행선만을 전면에 내세울 수는 없다”면서 “일반 학문과 연계해 나아가 일반학문의 언어와 사유구조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대행선의 구조를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시스템이 갖춰지면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대행선 관련 교육을 통해 학위논문을 배출될 수 있다. 이는 대행선 연구가 깊어지는 동시에 연계 연구를 통한 연구 분야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학교 부설연구소와 산학협력단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하는 각종 연구지원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돼 많은 연구자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연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선법가’를 통한 대행선 대중화에 대해 최 연구원은 “대중미디어를 통해 종교색이 짙지 않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행 선사의 구조 설법 방식이 온전히 담겨 있는 선법가를 좀 더 대중적으로 수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대행선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용어 중심이 아닌 구조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해야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일반 대중이 대행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미 대행 선사는 용어에 얽매이지 않는 법문을 통해 그러한 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계절발표회에서 앞서 봉행된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대행 선사는 ‘일상 생활이 다 진리고, 과학’이라고 하시며 선사의 법문에는 과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면서 “대행 선사의 법문이 대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행선연구원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연구원의 표어가 대행 선사가 설하신 ‘불은 생명, 교는 생활’인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만으로는 제한적이다. 일반인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연구원의 학술지 〈한마음연구〉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가 됐다”면서 “등재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계절발표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양질의 논문들 발굴·게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강] 현대물리학으로 보는 불교

공이며 공이 아닌 자리가 ‘중도’

현대물리학이 옳다면, 세상은 거의 완벽하게 비어있는 공간이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주변의 물체나 우리 몸도 비어있는 공간이다. 새가 날아가는 허공만 허공이 아니라 모두가 다 허공이다. 세상이 온통 비어있다는 이런 설명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감각 경험과 상당히 다르다. 우리 몸이 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벽이 무언가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한다. 감각 경험을 통한 이런 판단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유용하다.

우리에게 바닷물은 짜고 설탕물은 달다. 그러면 바닷물은 짠가? 아니다. 설탕물은 단가? 그것도 아니다. 어느 것도 짜거나 단 것이 아니고, 짜지 않거나 달지 않은 것도 아니다. 다만, 물에 소금과 설탕이 들어있을 뿐이다. 우리에겐 소금이 짠맛을 주고, 설탕이 단맛을 주지만, 고등어가 짜다고 하지 않는 소금에 짜다는 실체가 있을 수 없고 고양이가 달다고 하지 않는 설탕에 달다는 실체가 있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짜거나 단 결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자신의 본질(essence) 즉 자성(自性)을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자성이 없어서 무자성(無自性)이고, 실체가 없어서 무아(無我)다.

연기(緣起)는 무아와 무자성의 연기다. 일체의 모든 것이 무아고 무자성이어서 어떤 인연이 맺어지느냐에 따라 끝없는 무진(無盡) 세계가 나타난다. 끝없는 세계가 나타나더라도 연기는 무아이고 무자성이어서 공(空)이다. 연기이므로 공이다.

우리는 우리 감각이 느끼는 그대로의 외부 세계가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꽉 차 있어서 딱딱하다고 느끼는 책상은 텅 빈 공간이고, 나에게 들리는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고, 사과의 빨간 빛은 전자기파일 뿐이다. 그 모두는 우리의 마음이 그려낸 것이다.

우리가 보는 세계 곧 세간世間은 내 몸 밖에 있는 실제의 세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대승기신론〉에서는 “세간의 모든 경계가 중생의 무명으로 인한 허망한 마음에 의해 머물므로 일체의 존재는 거울 속의 영상과 같아서 실체를 찾을 수 없다. 마음에 의해 생긴 허망한 것일 뿐이어서, 마음이 생기면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心生則種種法生) 마음이 없어지면 가지가지 법도 없어진다(心滅則種種法滅)”고 하였다.

우리 마음은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그건 능숙한 화가가 그려내는 가상현실이다. 일체의 객관세계가 모두 무자성이고 무아다. 객관세계를 나에게 드러내는 연기가 있을 뿐이다. 내가 보는 세계, 내가 사는 세계는 세계 자체가 아니라 무아의 연기에 의해 나에게 나타나는 세계다.

의상 스님은 ‘법성게(法性揭)’에서 “참된 성품은 아주 깊고 지극히 미묘하니(眞性甚深極微妙), 자성을 지키지 않고 연(緣)을 따라 이룬다(不守自性隨緣成)”고 했다.

연기하므로 공(空)이어서 색즉시공(色卽是空)이지만, 색즉시공의 바로 그 자리에서 우주 전체가 드러나니 이게 공즉시색(空卽是色)이다. 공즉시색이란 진공묘유(眞空妙有)가 연기의 기적이다. 공이지만 공의 바로 그 자리에서 구름이 흘러가고 파도가 친다. 공이 아니면, 구름이 흘러가지 못하고 파도가 치지 못한다. 참으로 공이어서 구름이 흘러가고 파도가 친다.

색즉시공인 바로 그 자리가 공즉시색이어서 중도(中道)가 된다.

그러면 일체가 다 중도가 된다. 연기가 중도고, 색즉시공이 중도고, 공즉시색이 중도고, 진공묘유가 중도다.

컵을 밀어야 컵이 움직이므로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듯이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관성의 법칙이 성립한다. 연기에 의해 온갖 법이 나타나서 도저히 공이라고 보이지 않는 현상의 그 자리가 바로 공이다. 공의 그 자리에서 갖가지의 법이 나타나는 진성수연(眞性隨緣)의 공즉시색이다.



양형진
고려대 명예교수

중국 운강석굴,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5월16일 출발~5월20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일정 : 5월16일~5월25일
▶ 동참금 : 349만원

백두산, 고구려유적, 삼사 순례
(화엄사-수월정사-천년고찰 광우사)
출발일정 : 7월01일~7월05일(5일간)
인천-연길(화엄사,수월정사)-백두산 천지-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등)-요양(천년고찰 광우사)-인천
▶ 동참금 : 160만원

부탄, 네팔 성지순례 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네팔 카트만두 순례
출발일 : 5월17일~24일(6박8일)
▶ 동참금 : 439만원

중앙아시아 4개국 완전일주 13일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일정 : 6월03일~6월15일(11박13일)
▶ 동참금 : 문의

티베트 순례 7일
라싸-간체-시가체-삼예 등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출발일정 : 6월28일~7월04일(7일간)
▶ 동참금 : 299만원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카일라스(수미산)는 성스러운 영감의 근원을 찾아서 순례하는 성산입니다.
출발일정 : 6월07일~6월22일(16일간)
▶ 동참금 : 560만원


카일라스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통도사 '불기 2569년 보살계 산림' 봉행한다

4월 2일~4일, 경내 금강계단
자장율사 '계율 근본도량' 법맥
전계사 덕문 스님과 3사 7증사
영축장학금 전달로 인재불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가 불기 2569년 보살계산림을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경내 설법전에서 봉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통도사에서 열린 보살계산림 자료사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불기 2569년 보살계산림을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경내 설법전에서 봉행한다.

통도사의 보살계산림은 단순한 수계 의식이 아니라, 불자들이 신행의 방향을 다지고 수행을 심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자리 잡고 있다. 창건주인 자장율사가 646년 중국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와 금강계단을 조성하고 계율을 설한 전통을 계승하며, 통도사는 '계율 근본도량'이라는 법맥을 이어오고 있다. 계율을 통해 개인 수행뿐만 아니라 불교 공동체 전체가 청정한 수행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보살계산림의 본래 취지다.

이번 보살계산림에서는 전계사 덕문 스님을 비롯한 3사, 7증사 스님이 법석에 올라 '범망경'의 10중계와 48경계를 설하며, 대승보살계를 수지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범망경(梵網經)은 대승불교에서 보살계를 설하는 대표적인 경전으로,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한다.

보살계산림 첫날인 4월 2일 오전 9시 30분에는 입재 불공이 봉행되며, 이어 10시 30분 입재식과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설계가 시작된다. 4월 3일에는 오전 9시 30분 불공을 올리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설계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4월 4일에는 오전 7시부터 계첩 배부가 이뤄지며, 오전 8시 불공을 봉행한 뒤 9시 10분부터 수계식이 진행된다. 수계식에서는 불자들이 직접 보살계를 수지하며, 신심을 다지고 계율 실천을 서원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한편, 통도사는 매년 보살계산림에 10회 이상 동참한 불자들에게 기념패와 메달을 수여하며, 10회, 15회, 20회 보살계를 받은 불자들에게는 기념 메달을, 25회, 30회, 35회, 40회를 성만한 불자들에게는 성만패를 증정한다. 이는 보살계를 실천해 온 불자들의 신심을 격려하고, 계율 실천을 더욱 고취하기 위한 취지다. 장기간 보살계를 수지하며 신행을 이어온 불자들의 공덕을 찬탄하고, 신심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또한, 통도사는 보살계산림 회향일에 영축총림 소속 스님들을 대상으로 장학승을 선발해 영축장학금을 전달하며 계율을 기반으로 한 수행과 교육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보살계 산림 동참금은 5만원이며, 참가를 원하는 신도들은 화엄전(055-381-1288)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행사 기간 중 통도사는 부산 노포동 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차량을 운행해 신도들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비와 나눔의 화신' 도원당 만오 스님 원적

3월 18일, 세납 88세 · 법랍 59년
19일, 동국대 WISE캠서 열반재



자비와 나눔의 수행자 도원당 만오 스님〈사진〉이 3월 18일 오후 4시 원적에 들었다. 세납 88세, 법랍 59년.

1938년 서울에서 태어난 만오 스님은 19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모친의 인연으로 1957년 가지산 석남사로 입산해 명훈 스님을 은사로 1966년 득도했다. 이후 비구니 선지식 인홍 스님을 모시고 석남사 선원에서 수행하며 정진했다.

1981년 부산 엄궁동에 도원사를 창건한 스님은 기도와 전법에 힘쓰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한 자비보살의 삶을 실천했다. 불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나눔을 실천했고 동국대와 종립 중·고등학교, 아프리카 케냐 학교 건립, 지구촌공생회, 생명나눔실천본부, 엄홍길재단, 굿네이버스, BTN, 108자비손 룸비니고아원 등 다양한 기관을 지원하며 보시행을 펼쳤다.

특히 동국대와 인연은 각별했다.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을 희사하며 교육 불사를 실천해 왔으며, 2023년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동국대 서울·WISE캠퍼스 등에 사후 기부하는 공증을 마쳤다.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철저히 지키며 형식보다는 본질을 중시했던 만오 스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행자의 자세를 견지하고자 자신의 영결식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에 동국대 WISE캠퍼스는 3월 19일 정각원에서 스님의 뜻을 존중하며 열반재를 봉행하고, 그동안 스님이 베풀어 온 자비와 보시행을 기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각원장 법천 스님은 열반재 법문에서 "만오 스님께서는 수행자의 길뿐만 아니라 나눔과 교육, 전법을 통해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며 "특히 스님께서는 평생 일궈오신 전 재산을 동국대 서울과 WISE캠퍼스에 남기시면서 무주상 보시를 몸소 실천하셨다. 스님께서 실천하신 보살행과 인재불사의 정신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스님의 법구는 3월 20일 동국대 WISE캠퍼스를 경유했고, 오전 11시 통도사 연화대에서 다비식이 엄수됐다. 스님의 뜻에 따라 영결식은 생략됐으며, 49재는 통도사 서축암에서 진행된다. 49재 회향 법문은 5월 3일 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이 설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백현식 신도회장, "삼광사는 신도들의 마음 안식처"

3월 13일, 간담회서 포부 밝혀
불교계 축구대회 개최 계획도



"삼광사가 신도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사찰은 마음을 다스리는 곳이며, 신도들에게 안식과 위로를 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실천적 신행 활동을 통해 불교의 본질에 다가가는 도량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삼광사 23대 신도회장으로 백현식 부산시축구협회장〈사진〉이 임명됐다. 3월 13일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백 회장은 신도들이 진정으로 교화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삼광사의 전통적인 신행 활동과 현대적 운영 방안을 조화롭게 접목해, 삼광사가 신도들에게 더욱 친숙한 도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부산 불교계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 불교계 축구대회 개최 계획도 밝혔다. 그는 "불교계 내에서 체육 활동을 통해 신도들과 스님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부산불교연합회와 협력해 축구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불교계 내부의 친목을 도모하고, 젊은 세대와도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미소원 청년회, 후원의 날 '일일맛집'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에 사용
문화 · 환경 활동 기금 마련도



사단법인 미소원 청년회(회장 이다겸)가 창립 9주년을 맞아 후원의 날 행사로 '일일맛집'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3월 14일 사단법인 미소원 법당에서 열렸으며, 이다겸 청년회장을 비롯해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 연종학림 청명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마련된 후원금은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을 비롯해 '미소원 청년회와 함께하는 문화활동', '친환경 활동 줍깅' 등의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미소원 회원 불자들의 재능 기부와 식재료 후원으로 다양한 음식이 제공되었으며, 청년 불자들과 후원회원, 승·재가 관계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다겸 청년회장은 "미소원 청년회는 나눔과 실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대 불교바라밀, 첫 점안법회

3월 15일, 부산대 동아리방서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증명



6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대 불교동아리 '불교바라밀'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3월 15일 부산대 학생회관 불교바라밀 동아리방에서 열린 점안법회에는 불교바라밀 지도 사찰인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총무국장 대방 스님, 교무국장 석산 스님, 호법국장 정수 스님, 연수국장 담산 스님, 홍보국장 벽해 스님, 사회국장 법진 스님, 해피법당 선원장 해피 스님과 정주철 공과대학장 교수, 진교진 건축학과 교수, 서칠교 작가, 유주연 대불련 중앙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증명법사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마음을 여는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며들고 자비와 지혜의 길이 열린다"며 "명상의 공간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큰 마음으로 살아가며 행복해지시기를 바란다"고 개안법문을 설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불교聯, '부산연등회' 제1차 회의

3월 19일, 연합회 전법관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가 부산지역 사찰 및 불교 단체 실무자들과 함께 '불기 2569년 부산연등회' 주요일정을 공유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부산불교연합회는 3월 19일 연합회 전법관에서 '불기 2569년 부산연등회' 제1차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회의에는 주재형 부산불교연합회 사무국장을 비롯해 부산지역 각 종단 및 사찰, 불교단체, 신행단체 등 대표 실무진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부산연등회의 주요 일정을 공유하고, 행사 준비를 위한 실무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재형 사무국장은 "이번 부산연등회는 오랜 숙원이었던 부산시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불교전통문화 계승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스님들과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569부산연등회는 4월 18일 개막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6일까지 송상현광장에서 '부산연등문화제'를 펼친다. 4월 26일에는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연등행렬도 진행한다.

앞서 부산불교연합회는 3월 15일과 16일, 부산 서구 닥밭골한지체험관에서 '2569부산연등회 전통등강습회'를 봉행했다. 이날 제작된 전통등은 오는 4월 22일 개막하는 '2569부산연등회 특별전'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성보博, 부산문화재단 등 MOU

3월 17일, 업무 협약식 개최
조선통신사 역사 가치 조명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이 3월 17일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오재환), 국립해양유산연구소(소장 이은석)와 조선통신사를 통한 한일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조선통신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 행사 운영, 연구 및 콘텐츠 활용 등에 협력하고, 조선통신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부산문화재단이 조선통신사 축제 및 문화교류 행사와 네트워크 연계를 담당하고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조선통신사를 매개로 국내외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조선통신사선 한일 뱃길 재현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조선통신사선과 학술연구 성과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집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약에 따라 오는 4월 27일 조선통신사 축제 기간 중 범어사에서 '조선통신사선 무사항해 기원제'가 열린다. 260여 년 만에 조선통신사선이 일본 오사카에 입항하는 것을 앞두고 한일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의미 깊은 행사가 될 전망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국대 사찰경영 총동문회, 배식봉사

3월 19일 원각사 탑공공원서
진호 스님 "어려운 시기, 나눔을"



동국대 경영대학원 사찰경영 총동문회(회장 진호 스님, 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는 3월 1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위치한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점심공양 배식 봉사활동을 하며 자비나눔행을 펼쳤다.〈사진〉

이날 봉사활동에는 총동문회장 진호 스님을 비롯하여 태고종 수불사 주지 법경 스님 등 동문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동문회원들의 십시일반 보시로 마련된 이날 점심공양 배식에서 스님들은 직접 200여 어르신에게 음식을 담아 전하며 건강을 기원했다. 스님들은 배식뿐 아니라 설거지와 주방 청소 등 마무리까지 말끔하게 끝내며 배식봉사를 마쳤다.

총동문회장 진호 스님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봉사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광명 금강정사, 창건 34주년 기념법회

3월 16일 대웅전서 봉행



광명 금강정사(주지 가섭 스님)가 3월 16일 창건 3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사부대중과 내외빈 300명이 참석해 그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원력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법회에서 회주 지홍 스님은 "금강정사는 이제 34살 청년이 됐다. 창립 초기의 원력을 다시금 되새기고, 불자들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신행공동체로서 더욱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할 때"라며 "금강정사는 창립 초기부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찰,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사찰을 목표로 삼아왔다.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정사는 지난 25년간 광명시의 건축규제로 중창불사를 진행하지 못했으나, 최근 광명 구름산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경부터 중창불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스님, 시장 상인에게 사찰음식 전하다

광주 '수자타', 각화시장에 사찰음식 나눔

대표 혜법 스님과 15년 인연
"식사 못 챙기는 상인들 많아
사찰음식 대접코자 나눔 시행"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3월 19일 사찰음식 전문점 수자타는 각화종합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사찰음식을 보시했다.

광주 무등산에 위치한 사찰음식 전문점 수자타(대표 혜법 스님, 미륵사 주지)가 지역 상인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3월 19일, 각화종합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사찰음식을 선물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나눔을 넘어, 지역 사회와의 깊은 유대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사찰음식은 건강한 식재료로 만들어져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의미가 있으며, 정성이 깃든 한 끼를 통해 시장 상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자 했다. 특히, 힘든 노동 속에서 끼니를 거르기 쉬운 상인들에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혜법 스님은 이날 나눔의 의미에 대해 "이곳 상인들은 추운 겨울 새벽 3시면 나와 입찰과 경매를 보며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꼭 한 번 수자타의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각화종합농수산물시장은 광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매와 소매를 함께 하는 시장으로, 수자타에서도 사찰음식의 주요 식재료를 구입하는 곳이다. 혜법 스님은 "내가 이 시장을 15년 동안 다녔다. 이곳 상인들과 정이 많이 들었기에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다"며 오랜 인연을 강조했다.

이날 혜법 스님과 봉사자들은 연밥, 쑥개떡, 보리밥 등 15가지 음식과 8가지 나물을 준비해 500명분의 음식을 제공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사찰음식은 시장 곳곳에 차려져 상인들에게 전달됐다.

이번 행사에는 30여 명의 봉사자도 함께해 따뜻한 손길을 더했다. 박해영 봉사팀장은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에도 시장에서 고생하는 상인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자 미륵사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봉사에 나섰다"며, "어제부터 식재료를 준비하고 오늘 새벽부터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다. 상인들이 건강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각화시장에는 워낙 많은 상인이 있어 총 3곳에 음식을 마련해 나눔을 진행했다. 이날 시장에서 버섯을 판매하는 정혜은 씨는 "음식이 골고루 너무 맛있고 종류도 많아 고생이 많으셨겠다. 장사를 하다 보면 제때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데, 이렇게 든든한 한 끼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수자타는 앞으로도 매년 분기별로 음식 나눔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찰음식을 통해 지역 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눌 계획이다.

한편 '수자타'는 광주 무등산에 위치한 사찰음식 전문점으로, 사찰음식의 전통을 계승하며, 건강하고 자연친화적인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사찰음식 문화를 알리고 실천하는 공간으로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음식 나눔 활동을 통해 각화종합농수산물시장 상인들과 인연을 맺고, 정성을 담은 식사를 제공하며 사회적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수자타는 "향후 분기별로 정기적인 음식 나눔 행사를 계획하며, 건강한 사찰음식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떡볶이 나눔으로 아이들에게 희망 전해요

광주 소원정사 · 자비신행회
동신여중서 나눔 행사 개최


광주 소원정사와 자비신행회는 3월 13일 동신여중에서 새 학년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떡볶이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광주 나눔도량 소원정사(주지 도계 스님)와 자비신행회(상임이사 김삼옥)는 3월 13일 광주동신여자중학교를 방문해, 새 학년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마음을 담아 떡볶이를 나누는 따뜻한 행사를 진행했다. 소원정사는 지난해 8월에도 팥빙수 간식을 전달하며 학생들에게 작은 행복을 선물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도계 스님을 비롯해 서대석 전 서구청장과 장성 무량선원 주지 지선 스님도 함께 참여해 봉사의 손길을 더했다.

'찾아가는 간식 떡볶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나눔 행사는 광주 지역 곳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어린이, 청소년, 시민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간식을 전하며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개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광주동신여자중학교에서도 이 같은 사랑의 나눔이 이어졌다.

봉사자들은 전교생과 교직원 450명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떡볶이를 조리해 따뜻한 간식을 건넸다. 학생들은 밝은 표정으로 떡볶이를 받아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올해 첫 떡볶이 나눔 봉사를 시작한 도계 스님은 "청소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떡볶이를 맛있게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스님도 덩달아 행복하고 즐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를 기획한 김영섭 자비신행회 사무처장은 "요즘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 집을 오가며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번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어른들이 아이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떡볶이 선물을 받은 김민주(동신여자중 2학년) 학생은 "우리 가족은 모두 불교 신자라 절에 자주 간다. 학원 가기 전 출출할 때 간식을 받아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올해 첫 나눔행사를 개최한 소원정사는 '찾아가는 간식 떡볶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눌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영산작법 통해 선대 조사 기리다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선대조사 다례재



전북무형문화재 제18호 전북영산작법보존회(회장 영산 스님)가 선대조사 다례재 및 결산총회를 봉행했다.〈사진〉

3월 14일 태고종 전북종무원 보문사 큰법당에서 봉행된 선대조사 다례재는 영산 스님을 비롯해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지방종회의장 법전 스님 등 50여 명의 스님과 관계자들이 동참했다.

경건한 분위기에서 봉행된 이날 선대조사 스님 다례재에서 전북영산작법 보존회 스님들은 전북지역의 영산재를 계승 발전시키며 전통을 이어온 역대 조사스님들의 공덕을 찬탄하고 불교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다례재에서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은 공양게 작법, 다게작법, 천수바라작법 등 불교전통의식으로 영산재를 봉행했다.

전북영산작법보존회장 영산 스님은 "오늘 선대조사 다례재를 통해 영산재를 계승 발전시켜온 스님들의 원력을 기리고, 수행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영산작법보존회 결산총회는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감사 송월 스님의 감사보고, 지오 스님의 재무보고로 진행됐다. 총회에 참석한 스님들은 2024년 결산안과 2025년 사업계획에 대해 심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전통 불교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영산재를 비롯한 불교의식 문화를 충실히 전승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종문화체험관, 세종충남대병원 MOU

3월 11일 협약식…불교의료 프로그램 개발



세종전통문화체험관(관장 현우 스님, 세종 광제사 주지)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원장 권계철)이 3월 11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와 전통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사진〉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전시·홍보 분야에서 협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더 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전시·홍보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기관의 정보 및 연구 결과물 공유 △기타 협력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의료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우 스님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와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계철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원장은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문화와 접목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전통문화체험관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통문화와 의료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창원 불곡사, 제5회 취봉장학회 수여식

취봉 스님 23주기 추모법회도



창원 불곡사(주지 도홍 스님)는 3월 14일 경내 관음전에서 취봉 스님 열반 23주기 추모 다례법회 및 제5회 취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해원사 능산 스님, 장안사 묵암 스님, 팔봉암 법산 스님을 비롯한 문중 스님들과 금강원 장학회 회장, 보리수합창단 및 사부대중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법회에서 취봉 장학회는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7명의 모범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다.

불곡사 주지 도홍 스님은 "이번 법회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취봉 장학회가 이타적 보살정신을 실천하며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주 수현불교대학 제8기 입학식

3월 19일 큰법당서 개최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전주 혁신도시 포교당인 수현사 수현불교대학은 3월 19일 큰법당에서 제8기 입학식을 봉행하고 새 학기 학사일정을 시작했다.〈사진〉

이날 수현불교대학 제8기 입학생 38명과 담마학당 1기 신입생 25명은 신입생대표 김태평, 양희용 불자가 낭독한 입학선서를 통해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법우들과 화합하며 참된 불자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종 대종사 원적 13주기 추모다례재

백양사, 3월 14일 봉행



조계종 18교구본사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3월 14일 대웅전과 조사전에서 전 방장 수산당 지종 대종사 원적 13주기를 맞아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주지 무공 스님은 "큰스님께서는 평소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소탈하게 지내시며 평상행(平常行)을 하셨다"며 "후학의 모범이 되는 큰스님의 모습이 아직도 아련하다"고 회고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공주시불자연합회, 중하 대종사 초청법회

3월 15일 마곡사 불교회관서



공주시불자연합회는 3월 15일 공주 마곡사 불교회관에서 '회주 마휴 중하 대종사 초청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문에서 중하 대종사는 백장 선사의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를 인용하며, "현대인도 게으름을 경계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설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양산 미타암, 제5회 용왕제 봉행

덕조 스님 초청 법회



양산 미타암(주지 동진 스님)이 3월 16일 경내에서 '제5회 용왕제'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법회에는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이 초청법사로 나서 법문을 설했으며, 불자 신도 등 지역 주민 200여 명이 동참했다.

덕조 스님은 법문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불자의 자세"라며 "용왕제는 이를 실천하는 행사"라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 수산자비선원, 자비나눔 보름법회

3월 14일 자비선원 대법당서



창원 수산자비선원(주지 법상 스님)은 3월 14일 3층 대법당에서 보름법회를 봉행했다.

법상 스님은 예불 후 "자비와 나눔의 실천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 자리가 그 가르침을 실현하는 순간이다. 앞으로도 불자님들과 함께 나눔과 복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다음 달라이라마는 중국 이외서 나온다”

새로운 회고록서 “자유세계” 언급
입적 후 자유 투쟁 대한 염원 밝혀
9월, 90세 생일에 계획 발표 키로
中 “달라이라마, 정치 망명자” 비판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최근 다음 후계자에 대해 중국 밖에서 태어난다는 견해를 밝혔다.

티베트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다음 후계자에 대해 중국 밖에서 태어난다는 견해를 밝혀 화제다. 지금까지 달라이라마는 후계자에 대해 티베트 이외, 자신의 망명처인 인도에서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고만 말해왔으나 중국 이외의 자유세계에서 탄생한다고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3월 11일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현지 언론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달라이라마는 11일 출간된 회고록 ‘목소리 없는 자를 위한 목소리(Voice for the Voiceless)’에서 “(달라이라마 제도에서) 환생의 목적은 전임자의 일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자유세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래야만 달라이라마의 전통적인 사명인 ‘보편적인 자비심의 대변자,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 티베트인의 소망을 구현하는 티베트의 상징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달라이라마는 이전에도 후계자가 티베트가 아닌 인도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중국이 아닌 지역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단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달라이라마는 환생제도로 이어지는 달라이라마 제도에 대해 지금까지 자신이 아닌 티베트인들의 선택에 맡긴다고 이야기했으며, 폐지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왔다.

이번 회고록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으나 “전세계 티베트인들은 나(달라이라마)의 사후에도 환생 제도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며 “중국정부가 달라이라마의 후계자를 자신들이 직접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이 임명한 후계자는 티베트인들이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달라이라마는 또 책에서 “나의 입적 이후에도 억압적인 중국 공산당의 치하에서 티베트인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억압으로는 자유를 향한 염원을 결코 억누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달라이라마는 자신의 후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오는 7월 자신의 90세 생일 무렵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달라이라마의 신저에 대한 질문에 “(달라이라마는) 종교로 자신을 숨기고선 반중 분리주의 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적 망명자”라고 일축했다. 또한 “티베트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달라이라마의 언동은 실질적인 티베트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바꿀 수 없다”고 비판했다.

티베트 불교 전통에 따르면 달라이라마가 사망하면 그의 영혼이 어린아이의 몸으로 환생한다고 믿는다. 현 달라이라마 역시 두 살 때 전임 달라이 라마의 환생자로 지명됐다.

대만 불교계, ‘독단적’ 국회의원 해직 요구

국민당 소속 의원 해직 움직임
1500명 서명 중 출가자 200명



불자들에게 서명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졍딩스님(좌)과 차오칭청 전 회장(우).
사진출처=대만 중앙통신사

대만 입법원(국회)에서 다수당인 야당·국민당에 의한 독단적인 법안과 예산안의 강행채결이 잇따르면서 국민당 소속의 입법위원(국회의원)의 해직을 요구하는 대만 시민들의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이에 대만 불교계도 서명운동에 동참, 불자들의 참가를 호소해 화제다. 지난 3월 14일 대만의 ‘대만 중앙통신사’는 불교계의 시민운동 동참에 대해 보도했다.

중대만교수협회에서 시작한 이번 불교계 서명운동은 ‘불제자 호국선언-대만수호 강권저항’이라는 구호로 진행되고 있다. 3월 14일 타이베이 시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졍딩(正定) 스님은 “오늘날 대만 불교계는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와 행복한 생활이 철저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불자들이 앞서 불교를 구하고 중생들을 도와야한다” 호소했다. 스님은 “불교도는 정치를 멀리하고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중생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무외시’를 베풀기 위해선 불교도들이 어떻게 더 이상 수수방관 하겠느냐”며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만 법률상 입법위원의 해직청구에는 선출선거구 내의 유권자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발의인의 서명을 모은 후, 유권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연명인의 서명을 모으면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찬성표가 선출선거구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에 달하면 성립한다. 현재는 연명인들의 서명을 모으는 단계가 진행 중에 있다.

서명운동의 참가자이자 전 연화전자(UMC)회장을 역임한 차오칭청은 “중국 공산당은 오랫동안 대만에 대한 통일전선 공작을 진행해 국민당과 제2야당인 민중당을 통해 입법원을 장악하려했다”면서 “대만 시민들은 입법위원의 해직을 완수하고 중국에 의한 대만통일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대만인의 주장과 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 사실을 전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운림과기대학의 지안탄량 조교수는 “현재까지 1500명의 불자들이 온라인 서명에 참가했음 이중 200명은 스님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행자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비우고 해탈의 길을 추구하지만 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사람들이 필요할 때 앞장서 중생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불교도의 책임”이라고 결의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100년 전 발굴 불두 몸통과 한 몸 된다

앙코르 사원 ‘미스터리’ 해결
재구성 후 대중에 공개하기로

캄보디아 앙코르 사원 복합단지의 100년 된 미스터리가 풀렸다. 100년 전 발굴된 불상 머리 부분과 2년 전 발굴된 불상 몸통 부분이 서로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로써 부처상을 거의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 고고학자들은 현재 부처상을 재구성해 대중에 공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국의 인문학 및 역사 전문 매체 더 콜렉터닷컴의 3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2023년 발견된 5피트 높이의 불상의 몸통은 12~13세기 사이 크메르 제국 당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크메르 제국(802년~1431년)은 한때 동남아시아 본토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 중세 힌두-불교 문명의 대제국이다.

이 몸통은 바이욘 사원(Bayon) 제작 양식과 유사한 방식이 적용됐다. 바이욘 사원은 앙코르 톰 내에 위치한 유명한 불교 사원으로, 수백 개의 얼굴 조각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당시 크메르 제국의 예술적 스타일과 종교적 상징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몸통은 29개의 추가적인 파편과 함께 발견됐으며, 전문가들은 이들 모두 동일한 부처상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몸통은 100년 전 발견된 불상의 머리와 본래 하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상의 머리는 1927년 캄보디아의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발견돼 현재 프놈펜의 국립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부처상의 몸통은 머리가 발견된 장소에서 약 150피트 떨어진 곳에서 발굴됐다.

이번 발굴에 참여한 네스 시몬(Neth Simon)은 “광학 전자 스캔을 통해 머리와 몸통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부처상을 거의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오른쪽 손만은 여전히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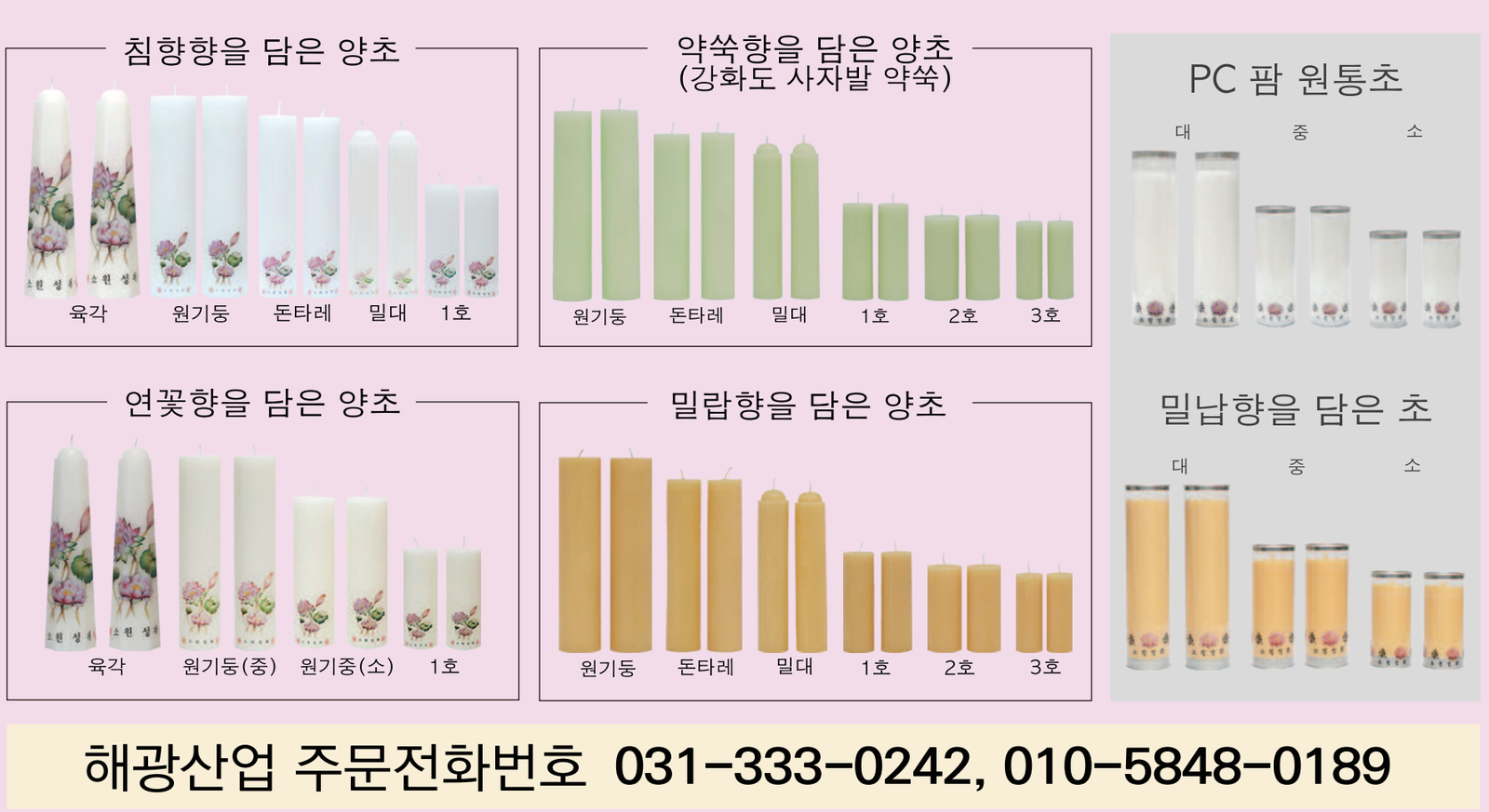
발굴단은 현재 불상 공개를 위한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장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 시엠립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건축물로, 크메르 제국 당시인 12세기 초에 건설됐다. 이 사원은 원래 힌두교 신인 비슈누에게 바쳐졌으나, 후에 불교 사원으로 변모했다. 앙코르와트는 크메르 제국의 찬란한 문화와 기술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9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유물·유적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그 규모와 역사성을 인정받아 199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박정현 객원기자


사진제공=더 콜렉터닷컴

해광산업
해광양초는 특별한 양초로 양초에 정성과 향을 담습니다
“자연친화적향의 향기가 법당에 스며들다”



해광산업 주문전화번호 031-333-0242, 010-5848-0189

(구)삼환양초가
중국 대련에서 40년 기술 노하우를
현지 공장에 전수하여 관리 생산한
최고급 중국산 대련양초를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WWW.SHCAND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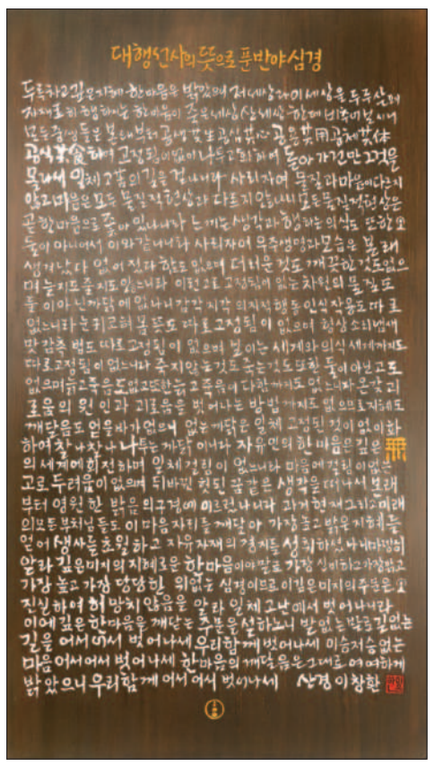
*유통 마진 없이 소비자 여러분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삼환양초 주문전화번호
031-337-0243, 010-2308-0189

대행선사 가르침, '刻字'로 만나다

산경 이창환 각자전…3월 29일까지 서울서예박물관서

'뜻으로 푼 반야심경' 등
선사 가르침 담은 21점
사자성어, 경구도 담아내



이창환 작가의 각자 작품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금강경'.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나무판에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것을 '각자(刻字)'라고 하며, 각자를 하는 장인을 각자장(刻字匠) 또는 각수(刻手)라고 한다. 고려시대 팔만대장경을 새긴 장인들도 모두 이들이었다. 그리 보면 '각자'라는 무형유산은 불교와도 밀접한 인연이 있다.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가르침을 담은 말씀들이 '각자'로 화현했다.

20여 년을 각자 작품에 매진해 온 산경 이창환 작가는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제3전시실에서 '각자(刻字)전'을 개최한다.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산경의 산책'라는 부제를 있는 만큼 전시회에는 작가 자신의 마음공부와 예술작업이 오롯이 투영돼 있다.

전시에서는 '숨, 쉼, 섬, 샘, 삶' 다섯 가지로 구성됐다. 숨과 쉼에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담은 21점의 작품이 담겼다. 이창환 작가는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던 중 부산KBS홀에서 열린 대행 선사 초청법회에 참석한 뒤 곧바로 불자가 됐다. 부산에서 서울로 발령난 뒤에는 안양본원에 다니며 신행생활을 이어갔다.

각자 작품으로 새겨 넣은 대행 선사의 가르침은 평소 작가가 공부하며 마음에 새겨놓은 금구(金句)들이다. '대행선사의 뜻으로 풀어낸 반야심경' 작품은 10년의 세월을 들여 완성한 작품으로, 작가의 깊은 신념과 예술혼을 엿볼 수 있다.

'섬, 샘, 삶'에는 부모님에 대한 추억과 작가가 평소 좋아하는 사자성어 등을 담아냈다. 이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회고이기도 하다. 실제, '역지사지' 작품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생생하게 되살려냈으며, '시전지' 작품에서는 직장 후배에게 보내는 유쾌한 편지를 담아냈다. '초장골 밤나무'와 '봄'에서는 부모님의 일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냈으며, '봄밤' '나를 살리는 길'에서는 전통 각자를 현대적으로 융합하여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보여준다.

작품 전반에는 전통 각자를 기본으로 해 음각, 양각, 음평각, 음양각, 복합각 등 다채로운 기법을 시도했으며, 나무판으로 연출이 가능한 현판, 목판, 능화판, 시전판 등 여러 형태의 작품을 통해 전통 각자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형태를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창환 작가는 "각자를 배우며 잠시 행복한 적도 있지만, 부족한 창의력으로 작업 과정은 매번 고행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내 작품 앞에서 잠시나마 발길을 멈추는 관람객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 외국인에겐 망상의 방?

특별기고 반가사유상 전시실 영문 안내문 개선을

반가사유상 英안내문 오류 다수
'wandering thought' 망상 의미
사유 아닌 망상 중인 불상 표현
'Time to meditate in silence'
'침묵 속 사유하는 시간' 정확해
英안내문 작품 정확하게 전해야

얼마 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반가사유상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은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만을 전시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2021년 11월 12일 개관 이후 약 1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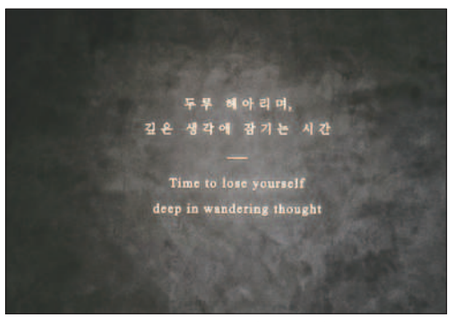
반가사유상을 모신 2층 전시실 입구에 도착하니, 외국인들이 영문 안내 문구를 읽고 전시실로 들어가고 있었다. 호기심에 그 영문 안내문을 살펴보았는데,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에서 이렇게 부정확한 영문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다.

한글 안내 문구에는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 문구는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영문 해석은 터무니없었다.

'Time to lose yourself deep in wandering thought'(자신을 깊이 방황하는 생각에 잃어버리는 시간)라는 표현은 반가사유상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었다. 'wandering thought'는 보통 정신이 산만하게 이리저리 배회하는 '번뇌 망상'을 의미한다.

반가사유상은 이런 방황하는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 침묵의 선정(禪定)에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방황하는 망상에 깊이 빠져 있는 모습'은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지, 반가사유상과는 거리가 멀다. 반가사유상은 명상 속에서 깊은 사유를 하는 모습으로, 'Time to meditate in silence'(침묵 속에서 사유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이다.

반가사유상의 모티프는 어린 시절 싯다르타 태자의 일화에 근거한다. 어린 시절, 그는 부왕을 따라 농경제를 방문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힘들게 쟁기질을 하는 농부들, 채찍을 맞으며 일하는 소들의 고통, 쟁기질로 땅에서 튀어나온 벌레들, 그 벌레를 잡아먹는



사유의 방 현재 안내 문구. 안양규 교수는 해당 영문 안내문구로 인해 사유가 아닌 망상하는 불상으로 반가사유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들의 모습이었다. 이를 통해 싯다르타는 생명들의 고통과 삶의 실상을 깊이 관찰하고 그 해결책을 사유하게 되었다. 반가사유상은 바로 이러한 태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후에 보살은 고행의 무익함을 깨닫고, 어릴 적 경험했던 선정을 떠올렸다.

"나의 아버지 석가족의 왕이 농경제 행사를 하는 중에, 나는 장미사과 나무의 서늘한 그늘에 앉아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나서, 사유(vitakka, 尋)를 갖추고 숙고(vicāra, 伺)를 갖추고, 멀리 떠남에서 생겨난 희열(piti)과 기쁨(sukha)을 갖춘 첫 번째 선정(禪定, jhana)을 성취했는데, 이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일까?"

이러한 성찰을 통해 보살은 고행을 포기하고 선정 수행을 통해 성불하게 된다. 탐욕과 불선법을 멀리하여 제1선정에 입정하여 사유와 숙고를 진행하지만 제2선정으로 진입하면 더 이상 사유와 숙고는 사라지게 된다.

선정은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제1선정은 아직 사유와 숙고가 남아 있는 초기 단계다. 그러나 이 사유는 일반인의 사유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반가사유상은 바로 제1선정에 입정한 모습을 나타낸다. 제2선정에서는 사유가 사라지고 미세한 즐거운 느낌만 남으며, 제3선정과 제4선정에서는 느낌마저 사라져 완전한 평정에 이르게 된다. 제4정에서 지혜를 성취하여 비로소 붓다가 되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석굴암의 본존불이 바로 이 성불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반가사유상의 본질은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상징한다. 이런 점에서 박물관의 영문 안내 문구는 작품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불교학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영문 표현의 정확성을 외국인에게도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안양규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

'양주 회암사지 유적' 우선등재목록에 선정

14세기 동아시아 선종 가람의 전형이라 평가받는 '양주 회암사지 사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지난 3월 13일 개최된 2025년 제2차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양주 회암사지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했다"고 3월 19일 밝혔다.

'양주 회암사지 유적'은 14세기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불교 선종의 가람 구성과 배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고고학 유적지와 국제 교류를 통해 14세기 회암사의 중흥을 이룬 고승들(지공, 나옹혜근, 무학자초)의 승탑과 비석이 있는 기념물군으로 이뤄져있다. 지난 202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된 바 있다.

우선등재목록은 잠정목록 중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및 보호관리 계획 등을 보완한 유산이 선정되며, 향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진행하는 예비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신중일 기자

사찰음식점 '발우공양' 봄맞이 신메뉴 출시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이 운영하는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이 3월부터 향긋한 봄나물을 주제로 신메뉴를 출시한다.

발우공양은 사계절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계절마다 새로운 구성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번 봄에도 겨울 동안 움츠러든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건강 메뉴를 제공한다.

봄 신메뉴는 선식(禪食), 원식(願食), 마음식(念食), 희식(喜食) 총 4가지 코스로, 코스별로 다양한 조리법의 메뉴를 경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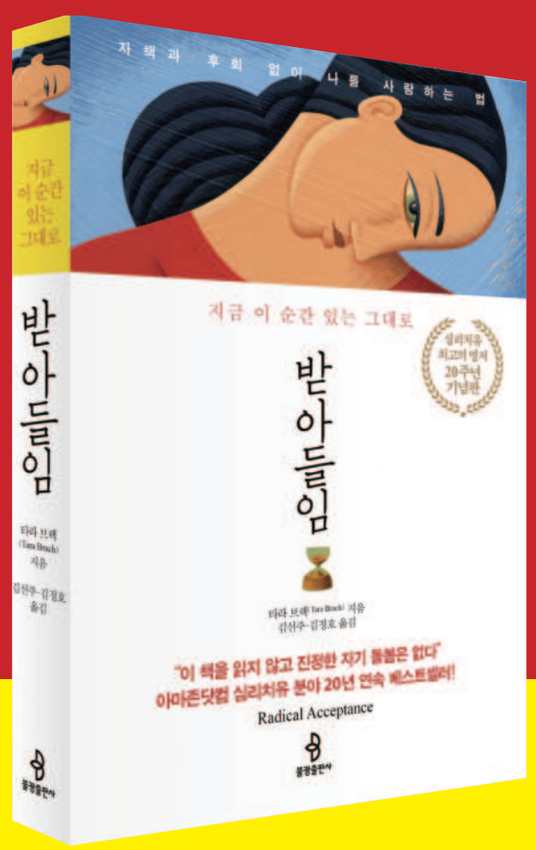
선식과 원식은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땅의 영양분을 가득 담은 봄나물을 이용한 죽, 김치, 겉절이, 찜, 무침으로 구성했다. 마음식은 봄꽃전, 봄나물들깨탕을 추가해 싱그러운 맛과 영양을 더했다. 사전예약메뉴인 희식은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도록 봄순튀김, 봄나물만두, 봄꽃화채를 준비했다. 코스마무리에는 오감으로 봄의 정취를 전하는 '바삭강정'과 '목련차'를 디저트로 제공한다.

발우공양은 한국 사찰음식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찰음식전문점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며, 예약문의는 발우공양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김내영 기자

자책과 후회 없이 나를 사랑하는 법

★★★★★
아마존닷컴 심리치유 분야 20년 연속 베스트셀러
★★★★★

"그 어떤 영성 지도자의 고귀한 말보다 울림이 컸다!"



받아들임

심리치유 최고의 명저 20주년 기념판

밀리언셀러 『타이탄의 도구들』 팀 페리스가
욕조에서 나와 단숨에 읽은 바로 그 책!

상담가·명상가들이 인생책으로 손꼽는 심리학의 고전
치유의 결정판 'RAIN 수행' 추가한 20주년판 출간!

타라 브랙 지음
김선주·김정호 옮김
510쪽 | 25,000원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타라 브랙의 저서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출간 20년을 맞이한 이 책, 『받아들임』도 그중 한 권이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과 진실에 접근했다는 해방감이 뒤섞여 먹먹한 표정으로
몇 번이고 밑줄을 그었던 낮과 밤들이었다."
- 곽정은(메디테이션 랩 대표, 『마음해방』 저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9~3/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육조단경	청화 역주	광륜출판사	6	행복한화엄경:시공을너머핀꽃	정엄 지음	리즈앤북
2	불교입문(조계종신도교재1/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7	담마빠다(법구경)	일아 옮김	불광출판사
3	요가수행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5)완전함내면의평화해탈의길	아헹가,존니에반스,더글라스 에이브람스	선요가	8	화:마음의불꽃을식히는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운주사	
4	천강에비친달(성운대사게송해설1)	성운 대사/조은자운주사		9	초역부처의말(2500년동안사랑받은)	코이케 류노스케	포레스트북스
5	365일눈부신하루를시작하는한마디	법상/용정운 그림	조계종출판사	10	선의황금시대	존C.H.우/김연수	한문화

책세상

모든 시대 생각한 역경 불사…〈화엄경소론찬요〉 완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화엄경〉은 비로자나 세존께서 보리도량에서 처음 정각을 성취하신 후, 일곱 도량 아홉 차례의 법문에서 일진(一眞)의 법계와 제불의 과원(果願)을 보여주시어 미묘한 현지(玄旨)와 그지없는 종취(宗趣)를 밝혀주신 최상의 경전이다. 이처럼 〈화엄경〉은 법계와 우주가 둘이 아닌 하나로 그 광대함을 말하면 포괄하지 않음이 없고, 그 심오함을 말하면 갖춰져 있지 않음이 없어 공간으로는 법계에 다하고 시간으로는 삼세에 통하고 있다."

지난해 원적에 든 혜거 스님의 〈화엄경소론찬요〉 역경불사가 마지막 24·25·26권 출간으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지난 2016년에 시작된 불사는 10년 만에 26권 완간으로 회향을 보게 됐다. 이번에 간행된 마지막 세 권(24~26)은 〈화엄경〉 80권 본 39품 중 마지막 39품(입법계품)에 해당한다.

혜거 스님의 〈화엄경소론찬요〉 전26권 출간 불사는 스님의 스승인 탄허 스님(1913~1983)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불교 경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방광불화엄경〉(약칭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는 최상의 경전이다. 하지만 〈화엄경〉은 내용이 워낙 깊고 오묘하고, 그 분량 또한 방대해서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전이다.

대중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던 당대의 대강백 탄허 스님은 대중을 위해 〈화엄경〉 번역을 비롯해 화엄학 관련서를 모두 집대성하고, '현토역해'해 〈신화엄경합론〉(전 47권)을 간행하는, 그야말로 한국 근대불교사에 획기적인 불사를 남겼다.(1975년) 번역과 출판에 무려 17년이 걸렸으며, 원고 매수가 6만2000장에 이르는 대작불사였다. 탄허 스님의 역경불사를 계기로 스님들을 비롯해 재가불자까지도 〈화엄경〉을 비롯한 불교 경전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공부'하는 신행 풍토가 늘어나게 됐다고 할 수 있다.

탄허 스님의 〈신화엄경합론〉 출간으로 오랜 시간 많은 대중이 공부에 대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급변하는 시대에서 새로운 세대마다 대중은 여전히 선지식의 도움이 필요했다. 탄허 스님의 불사가 있은 후 반세기가 흐르고, 그 시대의 대중은 또 다시 좀 더 시대에 맞는 문장이 필요했다. 대중의 안목으로는 여전히 방대하게 집대성한 〈화엄경〉의 요체를 쉽게 따라가기 어려웠던 것이다.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춰 〈화엄경〉의 개요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좀 더 간결하고 명확한 〈화엄경〉 강설이 필요했다.

혜거스님 〈화엄경소론찬요〉 26권 완간
2016년 시작 10년 걸쳐 대작불사 완성
〈화엄경소론찬요〉 120권 현토해 편저
탄허 스님 번역 참고, 사족 없는 직역
대중을 위한 화엄경 불사, 마지막 사명
〈화엄경〉의 묘체 밝힌 최고의 '주석서'
"스승이 처음 권한 경전이 〈화엄경〉"

탄허 스님의 제자인 혜거 스님이 스승의 원력을 이었다. 스님은 불교TV를 통해 〈화엄경〉 강좌를 열고, 이를 토대로 〈화엄경〉 역경의 또 다른 원력을 세우게 된다. 〈화엄경소론찬요〉 120권을 현토해 완역하는 불사가 시작된 것이다. 혜거 스님의 〈화엄경소론찬요〉 완간에 대한 원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사였다. 스님은 평생을 경전 연구에 바친 학승으로서, 오늘의 대중을 위해 〈화엄경〉의 요체를 제대로 밝혀주는 것을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혜거 스님은 번역을 모두 마친 후 지병의 악화로 완간을 보지 못하고 세연을 접었다. 이번 완간본은 스님의 100재에 맞춰 스님 영전에 올려졌다.

〈화엄경소론찬요〉는 명말청초 때의 도패(1615~1702) 대사가 약술 편저한 것으로, 청량 국사의 〈화엄경소초〉와 이통현의 〈화엄경론〉의 정요만을 뽑아 편집했다. 청량의 소초는 철저한 장구(章句)의 분석으로 본말을 지극히 밝혀주었고, 통현론은 부처님의 논지를 널리 논변해 자심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청량의 소초와 통현론은 〈화엄경〉을 상세하게 해석한 양대 명저이다. 〈화엄경소론찬요〉는 이 방대한 해석을 보다 쉽고 간명하게 축약하여 동시에 풀어주고 있어, 〈화엄경〉의 묘체를 밝혀주는 오늘날 최고의 〈화엄경〉 주석서라고 할 수 있다.


〈화엄경소론찬요〉의 편저자 혜거 스님.


〈화엄경소론찬요〉 전 26권.

혜거 스님은 이 〈화엄경소론찬요〉를 대본으로 하고, 다시 탄허 스님의 번역을 참고하면서 현대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서로 편저했다. 혜거 스님의 번역은 군더더기가 없는 직역이 특징인데, 그 이유는 번역 당시에 맞는 문체로만 번역하게 되면 변하는 시대마다 또 다시 새로운 번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시대적 변화와 무관한 문장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번 불사의 또 하나의 의미이다.

〈화엄경〉은 부처님의 세계에 대한 참모습을 밝히며,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다. 진리의 세계는 중중무진 연기의 세계이며 동체대비 사상이 실현되는 곳이다. 우리는 누구이며, 이 세계는 어떤 곳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바로 〈화엄경〉이다.

혜거 스님이 입산해 처음으로 손에 들게 된 경전이 〈화엄경〉이었다고 한다. 스승인 탄허 스님이 행자였던 혜거 스님에게 "화엄경을 청강하라"며 "설령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들어두면 글눈이 생겨 안 들은 것보다 낫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편저자 혜거 스님은 1959년 삼척 영은사에서 탄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 김제 흥복사 등에서 수선안거했다. 1988년 금강선원을 개원했고,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 상담과 경전강의, 불교TV 경전강의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금강선원 선원장을 비롯해 〈한암대종사문집〉 및 〈탄허대화상문집〉 편찬위원장, 동국역경원 원장, 대원정사 회주,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한국전통불교연구원 원장,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이사장, 일본인도학불교학회 유지회원, 탄허기념박물관 관장,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청소년심성개발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생전 저술과 번역, 강론을 통해 불법을 홍포하는 자비보시행을 실천해온 스님은 2024년 11월 4일 금강선원에서 입적했다.

우리는 왜 스님이 되었을까

통도사 학장 인해 스님과 동학사 학장 명오 스님의 출가 이야기



승려의 삶을 사는 내내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입은
옷이 불편하다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부디 자신의 인연에 꼭 맞는 옷을 찾아
입으며 참된 나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행히 여기에 내 옷이 있었다.

인해

스물 네 살의 청춘,
그 좋은 나이에 출가했다.
출가를 방해하는 여러 핑계를
나의 발심發心이 이겼다. 출가 생활은
감동의 도가니였다. 절은 상상 이상의
매력이 철철 넘치는 곳이었고, 스님들은
멋스러웠다. 자유와 행복, 출가의 백미이다.

명오

글 인해, 명오 | 17,500원 | 296쪽

인해 통도사 승가대학 학장. 해인사 강원과 조계종립승가대학원을 졸업,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과정을 수료했다. 이어 동국대학교 선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 초대 이사장, 동국대학교, 해인사, 수덕사, 동화사 승가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는 통도사 김해포교당 바라밀선원 주지를 맡고 있다. 저서는 《달마대사의 소실육문》,《우리말 법화경》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남종의 선사상 연구〉,〈혜능의 좌선관〉외 다수가 있다. 제31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하였다.

명오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동학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선학과·영문학과(학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종교학과 석사, 은해사 조계종립승가대학원 수료,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역서《대승기신론열망소》로 제1회 반야학술상 저역상, 저서《붓다의 입멸 에피소드 연구》로 제19회 불교출판문화상에서 올해의 불서 10 선정 및 붓다북 학술상을 수상했다. 논문은〈초기불교 병인론과 대승불교 사경 공덕 및 심신치유에 관한 연구〉,〈초기불교와 대승불교《열반경》에 나타난 재가불자의 계율 사상 연구〉등 다수가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불안의 시대에 절실한 '평온'의 미학



현존의 아름다움
최광천 지음 / 현암사 / 2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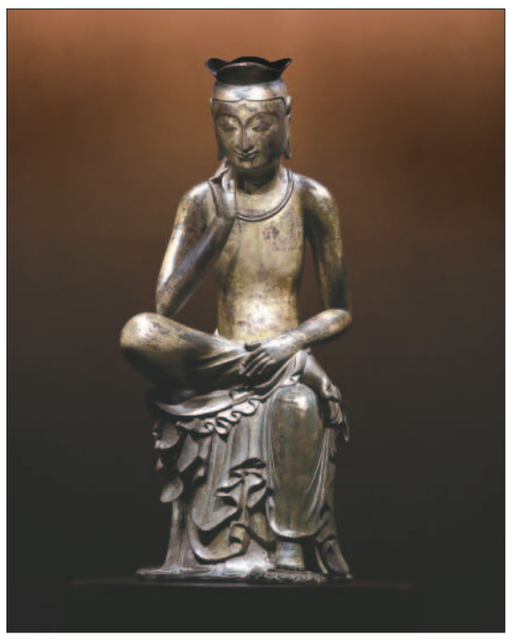
韓人의 미술로 구현한 평온의 미의식 조명
불교회화에서 평온미 어떻게 구현되었나
"한국의 4대 미의식, 현대사회 해결 백신"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교에서 사유상은 단지 인간적인 생각이나 고뇌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주적 진리를 깨닫는 순간의 정신적 희열을 표현해야 한다. 이처럼 깨달은 자의 깊은 사유와 정신적 희열을 과연 어떻게 조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책 〈현존의 아름다움〉은 고대 불교조각에서부터 고려불화, 조선 문인화, 그리고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이 미술작품으로 구현한 평온의 미의식을 조명한다. 특히 동서고금을 넘나들며 다른 나라의 작품들과 비교를 통해 한국의 평온미가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저자는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 국가에서도 종교예술이 성행했지만, 불교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평온의 경지를 조형적으로 한국만큼 잘 표현한 나라는 없다고 주장한다. '평온'이란 감정의 동요가 없는, 청정하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바라지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한국은 대륙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긴장감과, 이념과 종교, 물질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 등 여러 가지 사회 요인들에서 비롯되는 문제들로 늘 변화무쌍하다. 저자에 의하면 이런 사회일수록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평온의 미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책에서 제안하는 미의식으로서의 평온은 안락한 환경에서 오는 편안함이 아니라 분주한 현실 속에서 느끼는 고요함이다. 하지만 이것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모두 제거하고 마음의 본성에 도달해야 비로소 가능하기에 종교와 명상에서 도달하고자 했던 경지이기도 하다. 저자는 직관과 영성이 발달한 한국인들은 불교나 유교 같은 종교적 이념을 형식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했기에 평온하고 정감 있는 예술품들을 남길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불교에서의 열반의 경지와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반가사유상.

△1장 '고대 불교 조각의 평온미'에서는 고대 불교 조각을 통해 한국인들이 평온의 미의식을 어떻게 조형화했는지를 살펴봤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를 든 반가사유상이나 석굴암 본존불, 마애석불, 오백나한상 등을 불교문화를 공유한 다른 나라의 조각품과 비교하여 그 미학적 차이를 규명했다.

△2장 '고려 불화의 평온미'에서는 불교를 국가 이념으로 채택한 고려시대의 불교회화에서 평온미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폈다.

△3장 '조선 문인화의 평온미'에서는 유교가 지배 이념이 된 조선시대의 문인화를 다루었다. 문인화는 외부 세계를 다루면서도 사실적인 묘사 대신 대상과 공명하여 얻은 기운을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정신적 평온함을 성취할 수 있었다. 여기서 소개한 관수도나 관월도, 탁족도, 조어도, 여가도, 오수도 등은 모두 평범한 일상에서 정신적 평온함을 구현한 작품들이다.

△4장 '현대미술로 구현된 평온미'에서는 오늘날 현대미술에서 평온의 미의식이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장르별로 살펴보았다. 회화에서는 서민들의 선한 본성을 캔버스에 마애불처럼 새겨놓은 박수근을 다루었다. 조각에서는 고대에 제작된 불교의 반가사유상을 모범삼아 평온한 성모상을 제작한 최종태의 작품을 소개했다.

책은 저자가 15년 동안 집필한 '한국의 미학과 미의식' 시리즈의 마지막 책이다. 저자는 한국의 미학 1권 미의식 시리즈 4권을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지닌 우울한 불행감의 본질적 원인이 경제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의 상실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미의식의 부재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신명' '해학' '소박' '평온'이라는 한국의 4대 미의식을 회복한다면 오늘날의 문화식민지에서 벗어나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얼마 전부터 케이팝에서 시작한 한류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미학적 바탕이 없는 한류는 모래성 같은 것이며, 그 한류의 완성은 다름 아닌 한국의 미학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고 창조하려면 한국의 미학이 필요하고, 오늘날 혼탁하고 격동적인 삶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미의식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앞으로의 시대는 물건을 파는 시대가 아니라 문화로 경쟁하고 행복을 파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문화의 시대에 한국의 4대 미의식이 세계인들을 행복하게 할 유용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백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도 잘 알지 못했던 한국미술의 가치를 되짚고, 사라져가는 우리의 미의식을 되살려 진정한 행복을 위한 '문화 독립운동'이 일어나기를 제안한다.

佛法 성찰과 주석의 역사



불교철학 길라잡이
이규완 지음
운주사 / 2만원

책 〈불교철학 길라잡이〉(대원불교 학술총서 27)는 불교와 불교철학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초심자를 위한 안내서다. 불교사상의 변천과 전래과정을 추적하여 불교철학의 주요 얼개와 불교사상의 면모를 밝히고 있다.

불교에서 철학한다는 것은 '나의 등불로 밝히고,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철학은 바르게 보는 것이며,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알고자 하는 지적 사유의 체험이다. 하지만 '있는 것'과 '보이는 것'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참된 앎이란 바르게 보는 것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붓다의 설법에 의하면, 이 세계에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물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만물 간의 관계 속에서만 세계가 현상한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이다. 즉 세계에 속하는 것은 어느 것도 실재하지 않으며, 만물은 모두 연기적 현상이다. 이것이 붓다가 본 '있는 그대로'의 세계이다. 붓다에게 '있는 것'은 '변화하는 현상'이고, '없는 것'은 '아트만', 즉 '불변하는 궁극의 실재'이다. 붓다에게 이런 '아트만'은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것은 참된 진실이 아니다. 불교철학은 이 같은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성찰이며, 2500여 년 이상 이어져 온 주석의 역사이다.

책에서는 붓다의 가르침과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주석의 지성사를 볼 수 있다.

한편, 불교라는 사유전통은 서로 다른 풍토에 뿌리내린 다양한 삶의 역사가 상호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됐다. 불교사상과 문화는 다채롭고 심오한 사유의 싹들이 자라 줄기와 가지를 뻗으며 이루어 낸 풍성한 나무이자 숲과 같다. 불교를 하나의 개념이나 사상체계로 축소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숲을 보지 않고 나무에 집착하는 태도로 불교를 판단하는 편협한 관점이다.

불교는 어떤 '본질주의'적 정의도 거부한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한한 조건들에 의존하여 발현한다는 불교의 진리에 대해 '불교'도 예외는 아니다. 사람과 정보와 지식이 교류하고 융합하고, 혹은 투쟁하면서 불교의 사상도 초기불교, 아비다르마의 다양한 학파들, 다르마의 실재성을 주장하는 설일체유부, 존재와 인식 사이의 간극을 발견한 경량부, 만물은 연기적 현상이며 본질에서 텅 빈 공(空)이라고 논증한 중관, 세계는 단지 의식의 발현일 뿐이라는 유식, 동아시아의 천태와 화엄사상,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철학(사상)을 나은 것이다.

책을 통해 250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쌓여온 주요 불교철학과 학파들의 핵심 주장들을 오늘의 언어로 만나볼 수 있다. 박재완 기자

명상으로 고통·질병 치료



병원 명상
김종우 · 곽희용 지음
담앤북스 / 1만7천200원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는 사람이 치료를 쉬는 기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만성통증이 있는 사람이 진통제를 먹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어떻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 '명상'이 답이라는 책이 있다.

책 〈병원 명상〉은 국내외 유수의 병원에서 명상으로 환자의 고통과 질병을 치료하는 사례와 그 효과를 보여주고, 환자가 증상별·단계별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수행법을 소개한다. 강동경희대병원 한의학정신건강센터장이자 한국명상학회 이사장인 김종우 교수와 한의원에서 환자 치유에 명상을 활용하고 있는 곽희용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의료 현장에서 마주한 임상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상 치료'의 세계로 안내한다.

책에서는 병원에서 명상을 치료법으로 받아들이게 된 근거와 역사, 국내외 활용 현황을 살펴본다. 이어 뇌과학과 심리학에서 명상 연구 성과를 짚고, 뇌과학과 심리학을 이해하면서 수행할 수

암 · 정신 장애 · 만성 통증 환자 위한
증상별 · 단계별 추천 명상법 소개

있는 명상법을 추천한다. 특히 암, 정신 장애, 만성통증의 치료에 명상이 활용되는 구체적 사례와 환자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 그리고 한의학 임상 현장에서 명상과 기공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1부 '명상치료'에서는 병원에서는 병원에서 명상을 치료법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게 된 근거와 역사, 국내외 현황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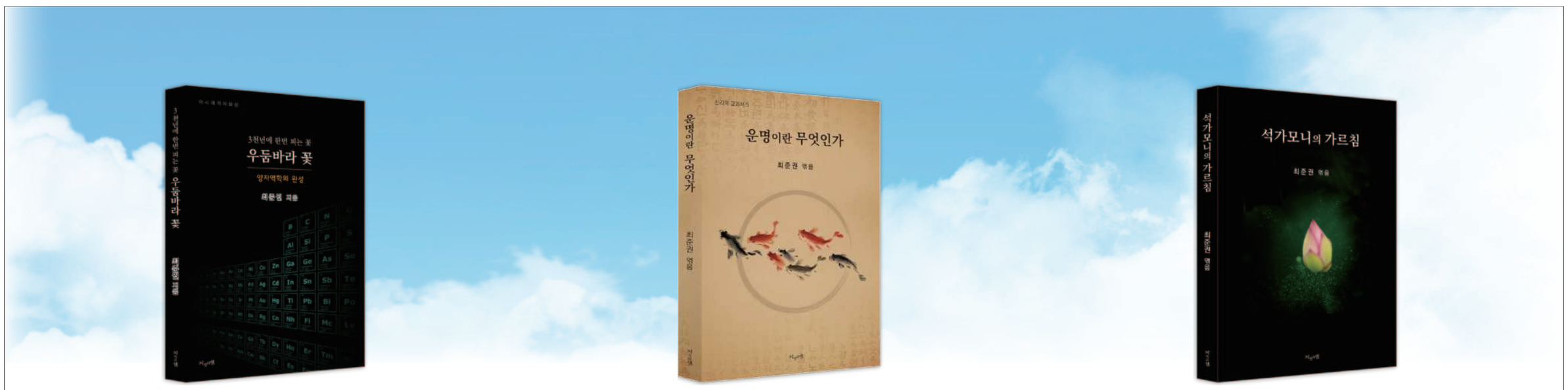
△2부 '과학으로 명상하기'에서는 뇌과학과 심리학에서의 명상 연구 성과를 짚어보고 뇌과학과 심리학을 이해하면서 수행하는 명상법을 소개한다.

△3부 '병원에서 명상하기'에서는 암, 정신 장애, 만성 통증의 치료에 명상이 활용되는 사례와 환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상법을 소개한다.

△4부 '한의학으로 명상하기'에서는 한의학 임상 현장에서 명상과 기공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5부 '한국 명상을 환자에게'에서는 명상의 과학화·대중화 과정에서 종교적 특성이 배제되어 온 현실을 짚고, 간화선 등 한국 불교의 치유적 특성을 담은 명상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저자는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자생력을 키우면 고통이 줄고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며 "이 책이 명상을 통해 의사와 환자 모두 질병 치료의 중심이 되고 적극적인 주도자가 되는 안내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3천년에 한번 피는 꽃
우둠바라꽃/양자역학의 완성
이 세상은 그물망처럼 심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
과학자들이 과거 100년 이상을 풀지 못한 양자의 중첩과
얽힘 현상을 어떻게 간단명료하게 풀 수 있었을까
최준권 지음/신국판/무선/272쪽/값16,000원

자아를 되찾고 자신을 구하는 삶의 길
운명이란 무엇인가
세상은 물레방아처럼 반복해서 돌며 변화를 통해
윤회하고 있다. 넓은 눈으로 창조와 진화를 관찰하면
이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준권 엮음/신국판/무선/264쪽/값16,000원

부처님의 말씀으로 엮은 깨달음의 세계
석가의 가르침
3천년 전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인 극락에서
머무시던 부처님의 영혼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받아 왕자로 태어나셨다.
최준권 엮음/ 신국판/무선/256쪽 / 값16,000원

지성의샘 / 서울 중구 을지로14길 16-11 / TEL. 02-2285-0711 / FAX. 02-338-2722 / 이메일 gonggamsa@hanmail.net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⑫ 業緣의 길을 따를뿐



▶한줄 요약
무시로 명상은 항상 깨어 있어 현재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고,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결국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業이 클수록 걱정·근심 역시 커진다

[오늘의 명상]
이 길은 저 길이 맞다 하고
저 길은 이 길이 맞다 하네.
어느 길이든 업연(業緣)의 길을 따를 뿐,
목적지가 없으면 길을 잃지 않는다.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어느 길을 선택하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어차피 누구나 생로병사(生老病死)와 성주괴공(成住壞空)과 생주이멸(生住異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겨난 것은 늙고 병들고 죽기 마련이고, 이룬 것은 머물렀다 파괴되어 사라지기 마련이며, 생겨난 것은 살다가 변하여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생각이나 감정도 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명예와 부, 권력 등 살아가는 그 어떤 모습도 이 범주를 벗어날 길은 없으니, 이는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은 서로를 의지하며 상대적으로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빈부귀천(貧富貴賤)이나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누구나 겪어야 하는 숙명(宿命)인 것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든 저 길을 선택하든 얻는 것이 많으면 잃는 것이 많아지고, 가진 것이 작으면 잃는 것도 작아질 뿐이며, 자신의 업(業)이 클수록 걱정 근심 역시 커지게 되고, 업이 작으면 욕심도 작아지므로 걱정 근심 역시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욕심을 부린 만큼 희로애락(喜怒哀樂)의 기복이 심해져서 자신을 더욱 피곤케 할 뿐이니, 어차피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할 바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 어떤 상황의 업연(業緣)에 직면하더라도 자업자득(自業自得)의 과보(果報)로 생각하여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분별(分別)된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하는 바, 바라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에 따른 과보(果報) 역시 클 수밖에 없으므로, 마음은 더욱 복잡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바, 모든 현상에 일일이 시시비비(是是非非)하는 마음을 더 이상 내지 말고, 물 흘러가듯 인연의 소치에 순응하며 마음을 비워서 주어진 일에만 집중한다면, 반드시 평화로운 마음 되어 목적이 굳이 필요치 않는 근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입니다. 감정을 조복(調伏)하는 가장 좋은 무기는 기도와 보시(布施)입니다.

이때 '무시로 명상'을 함께 실천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무시로 명상은 항상 깨어 있어 현재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고,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이 연습은, 마음에 생긴 분별을 줄이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결국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명상]
이러쿵저러쿵 내일을 그린 지 어느새
내일은 이미 지나 간지 어제.
어제 오늘 내일은 정작 보이질 않는데
시끄러운 마음만 지금(只今) 있을 뿐이네.

하늘은 그대로인데 구름이 흘러가듯이, 시간은 본래 그 자리에 있는데 내 마음이 흘러가는 것은 아닐까? 아니 마음은 본래 그 자리인데 시간이 흘러가는 걸까?

폭포는 그대로 보이는데 물은 이미 흘러가듯이 지금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음과 몸은 이미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흘러간 것은 보이질 않고, 다가오지 않은 것은 오지 않아 보이질 않고, 그럼 지금은? 이미 흘러갔으니, 어디에 내 마음이 있고, 어디에 시간이 남아 있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시간이란, 욕심의 산물(産物)이 만들어 낸 하나의 관념(觀念)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이 돌아가는 모습의 때가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라도 멈춰지거나 남아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무명에 의한 욕심이 만들어 낸 허상(虛像)에 불과한 것이니, 시간 또한 욕심의 폭포수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재하지 않는 허상이 만들어 낸 관념(觀念)이고 윤회(輪廻)입니다.

> **얻는 것 많아지면 잃는 것 역시 많아**
> **욕심 가진 만큼 희노애락 기복 심해져**
> **어떤 업연에도 분별심 휩쓸리지 말아야**
> **'무시로 명상' 통해 감정 조절 훈련을**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 과거가 되어 기억할 수밖에 없고, 욕심을 더 채우려 하니 미래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남는 것은 욕심으로 가득 찬 생각과 감정만 있으니,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시간은 더 빨리 앞당겨져서 백 년이 이미 어제가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끔 만족할 만큼 정신없이 일을 했을 때의 시간은 천천히 지나가고, 반대로 욕심이 지나쳐 아쉬움이 많이 남을 때의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간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화엄법계도(華嚴法界圖)를 지은 의상 대사의 법성게(法性偈) 중에 '일념즉시무량겁(一念即時無量劫) 무량원겁즉일念(無量遠劫即一念)'이라는 게송(偈頌)이 있습니다.

"한 찰나 속에 끝없는 시간이 들어있고, 끝없는 시간은 한 찰라에 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욕심 없는 마음은 시간조차 낳지 않고, 욕심이 많으면 무량한 시간도 한 찰나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욕심은 생로병사(生老病死)와 희로애락(喜怒哀樂)의 반복된 시간을 만들어 내니, 시간의 빠름을 느끼는 것은 12가지 과정(12연기)의 욕심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마음 다스림에는 쉘패스 명상이 큰 도움이 됩니다. 쉘패스 명상은 욕심으로 인해 생겨나는 생각의 흐름을 가볍게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쉘패스 명상을 실천하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욕심의 업(業)을 멸하면 생사(生死)의 시간이 멈추게 됨은 물론, 고락사(苦樂捨, 감정)의 삼수작용(三受作用)도 멈추게 되어 결국 영원히 죽지 않고 적멸의 궁전에서 자유자재(自由自在)하게 노닐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을 멈추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기도로서 업을 멸하는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만나고 싶었습니다

김연호 '우리는 선우' 제천지회장

나를 세운 부처님 말씀…"준 것 남고, 가진 것 없어진다"

제천=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김연호 회장은… 1952년 경남 하동에서 출생했다. 국립경상대학교 수의대를 졸업해 진주동물병원을 설립하고 운영중이다. '제천 우리는 선우' 를 창립했으며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제천지부장, 제천문화재단 초대 이사장, 제천 옥소종합예술제 창립 · 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수필집 <뭐하고 살았니> 달라이 라마 대담집 <기다림의 지혜가 있는 땅> 사진집 <합장 인생> 등 다수가 있다. 국민훈장 석류장, 제천시문화상, 불이상, 대원상, 충북도민대상, 대불련동문대상, 자산문화예술인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제천 진주동물병원장, 우리는선우 제천 지회장이다.



지난 3월 4일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실에서 열린 성보문화유산 기증식에서 주지 현덕 스님이 김연호 회장에게 기증 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1977년 5월 8일 제천불교학생회 창립기념법회. 사그라들던 제천 지역 청년불교에 다시 불길을 당겼다. 이를 이끈 것이 김연호 회장이다.



2003년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열린 '김연호 기증문화재' 전시회 현수막 앞에서 김연호 회장이 부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불살생(不殺生),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불교의 첫 번째 계율이다. 죽음은 사라짐이다. 몸은 지수화풍으로 흩어져 먼지가 되고, 고인에 대한 추억과 기억은 세월 속에 희미해지며 결국은 잊혀진다. 기억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흔적. 김연호 제천 우리는 선우 회장은 과거 스님들의 수행과 깨달음의 흔적을 되살려 오늘 새롭게 가르침을 소환하고 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불교 성보 유산의 현시(顯示)'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김연호 회장은 스님들의 흔적이 담긴 문화유산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불살생'이라 했다.

"성보(聖寶) 문화유산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님들의 수행과 가르침이 담긴 살아 있는 기록입니다. 스님들의 유묵과 서화는 단순한 글씨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자들이 남긴 '마지막 설법'입니다. 선지식들의 사상과 신념이 글씨 한 획마다 녹아 있죠. 저는 이것을 단순히 소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 있는 가르침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난 3월 4일 통도사 주지실에서 김연호 회장은 유물 196종 331점을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기증했다.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담긴 불교문화유산이었다.

평생 모은 향토문화재와 불교 성보유산을 회향하는 김연호 회장을 만나기 위해 3월 10일 제천으로 향했다.

김연호 회장은 제천에 자리한 동물병원으로 안내했다. 진료실, 수술실, 처치실 등 일반적인 병원의 모습을 떠올렸지만,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자리한 이곳은 첫인상부터 남달랐다.

입구에 들어서자 전각과 현판, 문화재와 그림 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벽을 채운 예술 작품과 소중한 인연들과 주고받은 편지, 향토문화유산까지 마치 지역의 작은 박물관을 연상케 했다. 어린 시절부터 문화재의 가치를 깨달은 그는 70세가 넘은 지금까지도 평생에 걸쳐 모은 보물들을 간직해왔다. 비록 많은 유물을 기증해 이제는 그 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그 흔적과 숨결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인터뷰를 시작하며 기증의 계기를 묻자, 김연호 회장은 짧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한마디를 건넸다.

"준 것은 남고, 가진 것은 없어지더라."

기증한 유물들은 이제 개인의 소유를 넘어, 불법의 깨달음을 전하는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유년 시절 불교와 첫 만남

김연호 회장과 불교의 첫 인연은 그의 유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경남 하동군 진교면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다랑논과 밭을 일구며 생계를 꾸려갔지만, 집안은 불교와 특별한 연이 없는 평범한 농가였다. 그러던 가운데 청소년 시기에 큰 병을 앓으며 그의 삶에 전환점이 찾아왔다.

10대 후반, 심한 위장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그는 요양이 필요했다. 그때 다솔사에서 머물 기회를 얻게 되었다. 깊은 산속에 자리한 사찰에서 맞이한 새벽은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었다. 도량석 목탁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범종 소리는 고된 치료로 지친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주었고, 다솔사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요양의 의미를 넘어선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 사찰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모습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매일 새벽 예불에 참석하며 신행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 시절은, 이후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다솔사에서 생활은 단순한 요양을 넘어 불교적 삶의 기초를 닦는 시간이었다. 그곳에서 김연호 선생은 이후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세 명의 스승을 만났다.

첫 번째 스승은 효당 최범술 스님이었다. 독립운동가이자 학자로서 불교뿐만 아니라 차(茶) 문화의 선구자로도 잘 알려진 효당 스님은 김연호 회장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두 번째 스승은 효당 스님의 은사였던 환경 노스님이었다. 환경 스님은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붓과 먹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한국 선서화의 전통을 이어온 분이다. 김연호 선생은 스님의 모습을 통해 예술과 수행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고, 서예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세 번째 스승은 불교사학자로 명성을 떨친 김상현 동국대 교수다. 김상현 교수는 효당 스님의 속가 제자로서 불교를 학문적으로 탐구한 인물이었다. 김연호 회장은 그에게서 불교를 단순히 신앙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연구하고 탐구해야 하는 학문의 한 분야로 이해하는 태도를 배웠다.

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 육촌 형과의 경험이었다. 마을에는 오래된 불경과 불상, 그리고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물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6·25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시기, 문화유산이 유출될 위기에 처하자 그의 육촌 형은 마을에 있던 소중한 문화재를 몰래 숨겼다.

"육촌 형은 아무도 모르게 산속 깊숙한 곳에 불경과 작은 불상을 묻어두었어요. 그걸 몰래 꺼내보며 문화유산이 왜 중요한지,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어린 나이지만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죠. 그 기억이 평생 남아 있었습니다."

불심으로 빛나는 청춘의 길

경상대 수의학과에 입학한 김연호 회장에게 불교와의 인연이 다시 찾아왔다. 새내기의 설렘 속에서 학창 시절 인연을 맺었던 김상현 교수를 다시 만났다. 당시 김상현 교수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 경남지부장을 맡아 조직을 이끌고 있었고, 그의 열정은 젊은 불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의 권유로 대불련에 가입한 김연호 선생은 주말마다 진주 연화사 법회에 참석하며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다. 매주 열리는 법회와 교양강좌, 간이수련회 등을 통해 젊은 시절 인생의 기틀을 다져나갔다.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김연호 회장은 제천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학 졸업 후 잠시 머물 계획으로 향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불교와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됐다.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대불련 회원의 말이 계기가 됐다.

10대 시절 수술 후 찾은 다솔사서
인생 스승 3인 만나며 불교와 인연
대불련 활동 후 제천에서 불교운동
'우리는 선우' 제천지회 창립 견인

사라질 문화유산 지키려 수집 활동
"스스로 문화재 되라" 충고에 회향
국립청주博 등에 문화유산 기증해
최근 통도사 성보博에 '통큰 기부'도

"제천에도 불교청년회가 생겼는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1976년 8월 30일, 그는 한산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해산 위기에 놓인 불교청년회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남아 있던 회원 다섯 명이 마지막 법회를 마치고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들과 즉시 청년회 재건을 논의했다. 작은 인연이 또 다른 인연을 낳으며, 그 순간부터 제천에서의 불교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진주에서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 제천의 불교청년회를 살리겠다고 나서자,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다. 불과 몇 주 만에 청년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새로운 회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김연호 회장은 법회의 틀을 다지고, 신행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주 염불 기도와 다도 강좌를 열었다. 제천에서 생소했던 다도 강좌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법당은 열정적인 젊은 불자들로 가득 찼다.

이후 그는 불교학생회를 창립하고 불교 기초강좌를 개설했다. 단순한 법회 운영을 넘어 청년 불자들이 불교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 부처님오신날에는 2000여 명의 불자들이 연등행렬을 이루며 시내를 가득 메웠고, 그 모습을 본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지역 청년불교운동 활동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김연호 회장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도 고민하게 되었다. 그런 와중, 1991년 중반 전국의 재가불자들이 '우리는 선우'를 창립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남지심, 박광서, 성태용 등 진보적 불교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불교의 현실을 개혁하고, 자비 실천을 강조하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는 즉시 뜻을 함께하며 6개월 뒤 제천에서도 '우리는 선우' 지회를 창립했다. 불교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이 모임은 사찰의 재정 투명화, 탈북민 장학금 지원, 인도와 네팔 불교학교 후원, 군법당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우리는 선우' 제천지회는 이후 30년 넘게 이어지며 제천불교계의 중심축이 됐다. 매년 4대 보살 백일기도를 봉행하며 신행활동을 이어갔고, 수백 회의 열린 강좌를 통해 제천 시민들의 의식 향상에도 기여했다.

불심으로 피워낸 문화예술의 향훈

청년 시절이던 1970년대, 그는 다솔사에서의 수행 생활을 통해 불교와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관심을 키워나갔다. 이후 수의사로서 동물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한편, 불법 홍포와 문화유산 수집에 몰두했다. 하루 수입의 10%를 불법 홍포에 사용하고, 나머지 여유 자금은 거의 문화유산과 서화를 수집하는 데 쓰였다.

그는 점점 지역에서 손꼽히는 수집가로 자리 잡았으나, 어느 순간 수집의 의미를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김상현 교수로부터 "문화유산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화유산이 되라"는 충고를 들으며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문화재는 개인이 소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공유해야 그 가치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신념이 그에게 자리 잡았다. 결국, 그는 25년간 정성껏 모아온 문화유산들을 사회에 회향하기로 결심했다.

1990년, 국립청주박물관에 소장품을 맡기며 문화유산 기부를 시작했다. 이후 2001년에는 청주박물관과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2차 기증을 진행했다. 특히 2001년 청주박물관에서 열린 2차 기증식에서 그는 기자들 앞에서 "준 것은 남고 가진 것은 없어진다"라고 말했다. 기자가 그 출처를 묻자,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답했다. 이 말은 이후 여러 신문에 크게 실리며, 불교의 나눔 정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2015년에는 제천역사박물관에도 문화유산을 기증했다. 통도사 기증유물 외에 1250점이 넘는 유물을 기증한 그는 단순한 기부자로 머무르지 않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다. 불교에서 시작된 그의 문화유산 사랑은 향토문화의 발굴과 보존으로 이어졌다. 그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예총 제천지부장을 맡아 활동하며, 2015년 '옥소종합예술제'를 창설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불자로서, 그리고 문화예술인으로서 그는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수행의 한 과정임을 몸소 실천했다.

그는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2019년 제천문화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불교적 신념과 문화예술의 가치를 융합하며, 그는 회향의 길을 걸었다.

김연호 회장은 문화유산 기증이 단순한 소장품의 이동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가치를 전하는 불자의 실천덕목이라고 강조한다. 그의 회향은 문화유산을 넘어, 불교의 또 다른 전법(傳法)이자, 법보(法寶)를 되살리는 여정이다.

김연호 회장은 인터뷰 내내 성보유산 속에 담긴 불법(佛法)이 단절되지 않고 오늘날에도 이어지려면, 그것이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가르침으로 '현현(顯現)'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야말로 성보가 오늘날에도 다시 깨어나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최선일의 佛母列傳 시즌2 ❷ 인일(仁日 · 因日) 스님



▶한줄 요약
조각승 인일 스님은 조선 전기에 제작된 불상의 양식적인 특징을 계승하고, 17세기 초반에 경기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중요한 작가이다.

임란 후 경기 일대서 활동한 승려 장인







17세기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조각승 인일 스님이 조성한 불상들. 사진 왼쪽부터 광주 수도 목조관음보살좌상, 여주 신륵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서울 보문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기간에 의승군(義僧軍)의 활동으로 사찰은 왜구들에게 종교적인 성소(聖所)가 아닌 저항 세력의 거점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남해의 해상권을 빼앗긴 왜구들이 철저히 육지에 고립되면서 의승군의 주요 활동지인 전남 구례 화엄사(華嚴寺)와 전북 김제 금산사(金山寺) 등이 파괴되었고, 종전 후 전각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사찰이 많았다는 기록이 전해질 정도이다. 1600년부터 162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사찰을 대표하는 삼보사찰(통도사, 해인사, 송광사)과 왕실의 원찰(願刹) 및 고승대덕(高僧大德)이 거주하는 암자가 먼저 복구되면서 전각, 불상, 불화 순으로 정비되었다.

조선후기 만들어진 중대형 불상은 여러 공정에 필요한 몇 명의 조각승들이 공동으로 제작하였다. 그러나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이나 사적기에는 장인들의 이름만 나열되어 개별 장인들이 담당한 작업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문헌에 가장 먼저 언급된 수화승(首畵僧)의 조형 감각이 불상에 반영되었다는 가정하에 개별 조각승의 조형성을 접근하고 있다. 또한 불상 제작은 손재주가 있는 스님만이 참여하면서 기술 습득과 실습이 도제(徒弟) 방식으로 전승되면서 사승(師承) 관계를 중심으로 계보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후기 조각승 연구를 통해 임진왜란 이후 경제력이 있던 호남이나 영서 지역에서 불상을 제작한 조각승의 활동과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밝혔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조각승은 광원(廣圓) 스님, 인일(仁日·因日) 스님 밖에 밝혀지지 않았다.

조각승 인일의 기년명 불상은 2014년 경기도 지정문화유산 지정 조사를 계기로 광주 수도사에서 단서를 찾았다. 목조관음보살좌상 조사 당시 사찰에서 사진 2장을 보여줬는데, 2002년에 보살상을 개금하면서 보살상과 복장물을 촬영한 것이었다. 발견된 복장물은 백지묵서 발원문, 불교전적, 후령통 등으로 세부 사진이 없어 발원문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없지만, 두루마리로 말린 조성발원문의 일부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글자는 "…畵員因日比丘」處○比丘…化主…萬曆三十…二十五日"이었다.

이를 통해 광주 수도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이 만력30년대(1602~1611년)에 조각승 인일이 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각승 인일은 1610년(만력38, 광해군 2) 10월에 여주 신륵사(神勒寺)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을 수천(守天) 스님과 제작하였다. 당시 인일의 이름 앞에 대화원(大畵員) 산인(山人)이라고 적혀 있어 신륵사가 위치한 봉미산(鳳尾山)에 거주한 스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불사의 증명은 화엄종(華嚴宗) 중덕(中德)인 설암 경옥(雪庵敬玉)이 맡았다.

이후 인일은 1637년 6월에 서울 관현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조성하였다. 당시 인일은 증명(證明)과 화원(畫員)을 겸하였는데, 증명은 증사(證師)라고 부르며, 법회를 하거나 불상과 불화 등을 조성할 때 교리에 합당하고 법식대로 제작하였는지 감독하는 소임을 맡은 스님을 일컫는다. 따라서 1630년대 증명을 맡은 인일 스님은 연륜이나 지위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관현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조성발원문 중 시주질 가장 앞에 "연풍현감(延豊縣監) 이윤(李尹)"이 언급된 것을 보면 원래 불상 조성 사찰이 괴산 지역 사찰일 가능성이 높다.

수화승으로 수도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제작을 주도한 인일 스님의 생애와 승려 장인이 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불상 조성에 참여한 3건의 문헌을 통하여 활동 시기와 지역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파악된 인일 스님은 1600년대 중반에 광주 수도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조성한 후, 1610년 10월 여주 신륵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과 1637년 6월 서울 관현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조성하였다.

이런 문헌을 바탕으로 인일 스님은 최소한

경기 지역 대형불상 조성 맡아
광원 스님과 함께 경기서 활동
신륵사, 관현사 등서 불상 조성
관현사에선 證師 역할도 겸임해
조선전기 불상 양식 계승 '특징'

1570년 전후에 태어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친 후, 수화승으로 1600년대 광주 수도사 목조관음보살좌상하고, 1610년에 여주 신륵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을 제작할 때 대화원(大畫員)으로 명성을 갖춘 조각승이었으며, 1630년대 중반 충북 괴산 사찰이나 암자에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조성하여 대략 70세까지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각승 인일은 다른 조각승들과 달리 여러 후배나 제자들과 공동 작업하지 않고 보조화승 1명 정도만을 데리고 불상을 제작하였다.

인일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아직 단정할 수 없고, 인일(1610~1637·이하 활동시기)→ 수천(1610~)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일 스님이 제작한 수도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높이가 72㎝의 결가부좌한 자세를 하고 있다. 보살상은 오른손을 어깨까지 올려 엄지와 중지를 안쪽으로 구부리고, 왼손을 오른발 위에 자연스럽게 들어올려 뚜껑이 있는 정병(淨甁)을 살포시 쥐고 있다. 보살상은 머리와 상체를 곧게 세워 조선 전기에 제작된 목조불상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조선후기 제작된 불상이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여 자세가 구부정한 것과 차이가 난다. 머리에는 송곳 같은 작은 정으로 뒷면을 두드려 연당초문(蓮唐草文)을 빽빽이 새긴 금속판으로 만든 보관(寶冠)을 쓰고, 정수리 부분에 각이진 보계(寶髻)를 따로 만들어 끼웠다. 계란형의 얼굴에 눈꼬리는 많이 올라갔고, 코는 삼각형에 입은 살짝 미소짓고 있다. 특히, 인중이 완만한 곡선으로 끝이 뾰족한 형태는 조선 전기에 제작된 불상에서 볼 수 있는 요소이다. 보살상은 얼굴에 비하여 신체가 약간 작은 편이다.

보살상은 대의 안쪽에 부견의를 입고 있다. 오른쪽 어깨의 대의자락은 끝단이 겨드랑이까지 짧게 늘어지고, 나머지 대의자락이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간다. 왼쪽 어깨와 팔뚝을 따라 넓게 펼쳐진 대의자락이 늘어져 있는데, 이와 같은 대의자락 표현 역시 15-16세기에 제작된 목조불상에서 볼 수 있지만, 1640년 이후에 제작된 불상에서는 없어진 요소이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은 복부에서 수직으로 한 가닥이 넓게 펼쳐지고, 그 옆으로 자연스러운 옷주름이 늘어져 있다. 특히, 하반신의 대의 처리는 1610년에 조각승 인일 스님이 만든 여주 신륵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도 볼 수 있다. 보살상 왼쪽 어깨에 접힌 폭이 넓은 옷주름이 팔뚝까지 늘어져 있는 표현은 1637년 서울 관현사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도 볼 수 있어 인일 스님이 다른 조각승과 다른 조형 감각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보살상 뒷면은 목둘레에 대의 끝단을 두르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옷자락이 엉덩이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가슴을 덮은 승각기(僧脚崎)는 자연스러운 주름이 상단에 접히게 끈으로 묶었다.

광주 수도사는 〈봉은본말사지(奉恩本末寺誌)〉 내 '수도사지(修道寺誌)'에 "수도사는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방도리 633 정수산(靜水山) 남쪽 기슭에 있다. 1859년 김좌근(金左根)이 절 12칸을 창건하였다. 1943년 6월 화주 진허(震虛) 대사가 법당 3칸을 짓고 큰방을 중수하다"라고 적혀 있다. 또한 관음상은 "법보 1. 관음상 목질금상(木質金相). 높이 2척 10분…"이라고 적혀 있어 관음상을 사찰 창건 시 다른 사찰에서 이운한 것으로 보인다.

조각승 인일 스님은 조선 전기에 제작된 불상의 양식적인 특징을 계승하고, 17세기 초반에 경기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중요한 작가이다. 인일 스님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은 서울 성북 보문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10년대 전후), 충북 청주 보살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20년 전후, 협시보살 도난) 등이 있다.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 csi34@hanmail.net〉



사찰 편백나무 맞춤가구 전문점
스님 건강, '편백가구'로 지킨다

편백(히노끼)나무 효능

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 욕조를 비롯하여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침대 등 가구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데 이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편백나무는 일반나무보다 5.5배 가량 피톤치드가 많아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된다.

편백 온열 그래핀보료
신체 기(氣, Energy)를 충전하고 균형을 바로 잡는 초장파 에너지
건강하고 오래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수면과 함께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 피로 회복
• 근육 결림 해결
• 혈액 순환 개선
• 신경통, 근육통 완화
• 만성 피로 해소



편백침대





숙면이 보약
편백 숯침대



FINE 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 4 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24호 | 15 | 전면광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드는 이가 있으면
설사 커다란 불 속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불이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경기도
- 부지 : 700평
- 건평 : 150평 외
- 산 밑 차량진입, 주차가능
- 매가 : 25억

- 위치 : 부산포교원건물
- 3층/5층, ev유
- 매가 : 13억
- 면적 : 120평실평
- 공원옆 건물, 주차가능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채권상담 등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 (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제주 (땅) 안내

- 전답 : 약 3천평 평당 50만원
- 팬션, 주택, 농장, 노후투자 확실 (도로접근최고) 일주도로 70m거리
- 현재 : 밀감 및 조경수 식재 300m 안에 (바닷가, 목욕탕, 마트, 면사무소, 우체국, 병원, 한의원, 소방서, 초 · 중학교)
- 주인직접전화

010-2104-2040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 67평 동불 삼존불
- 보증금 : 5000/월세 : 180만원 시설물 : 2500만원 상당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300m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남녀화장실

010-3102-5102

사 찰 안 내

★전통사찰, 요사채불사 진행중★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전통사찰 선법사)
- 평 수 : 1,700평(법당, 산신각, 요사채, 화장실, 주차장 등)
- 가 액 : 상담 후 결정

보물 981호 마애약사불좌상

010-3340-265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1길33-12
- 대지 310평 / 법당 20평 산신각 / 요사, 별채 50평
- 가액 : 2억2천
- 수도 가스난방

010-2369-3382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 가액 : 7억
- 대지 780평, 실사용 1000여 평
- 사찰 정리후 주지스님은 원하는 만큼 거주 할수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함

사 두실분이나 좋은절 갖고져 하시는 불자님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010-9477-0375

사 찰 안 내

- 위 치 : 전남 해남군 계곡면 흑석산 중턱
- 대 지 : 350평
-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 물 : 약85평 (법당 요사채)
- 가 액 : 답사 후 결정

010-7710-8334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사찰 요양원 (급) 안내

- 위 치 : 경남 밀양시 부북면 퇴로로 171-8
- 사찰 요양원 일체 매매(명당터) / 주차장 포함 대지 900평 / 사찰 2층 총 54평, 황토방 포함 요사채 42평 / 요양원 2층 180평 (25명 정원 및 신도 많고, 요양원 베드 만석) / 인수시 원장, 부원장 바로 월급 받음
- 건강상 이유로 내놓습니다
- 앞 저수지 뒤 황학산 배산임수
- 가 액 : 13억원(절충 가능)

010-9234-0811

포교원 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8000만원
- 전세가능 : 보 4000 / 월세 40
- 청정 기도도량 입니다

010-2807-05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갓바위 뒷길 근처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4억5천(절충가능)

010-5804-510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아산시 휴대세교길 234번길 24 대원사
- 법당 30평, 공양간 20평, 요사채 방2 거실1
- 가액 : 3억 2000만원(절충가능)

041-548-7181
010-3423-7181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 1000만원 (절충가능)

010-5436-58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납골당 · 봉안당 허가 가능
- 가액 : 8억 절충

010-4599-0103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대형병원 월곶,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110평) 사용.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개,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 2개, 각방마다
- 보증금: 1000, 월세 15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일체 집기시설) 55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통화 안될때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10-8599-9468

포교당 안내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 주 변 : 상가거리, 위치 좋음 (아파트, 주택 밀집지역 유동인구 많음)
- 규 모 : 30평(3층) – 삼존불, 원불, 영단, 신중단
- 보증금 : 5백만원(월세 60만원)
- 시설비 : 1200만원

010-6416-0663

사찰(토지) 급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 주택 40평(법당 이용)
- 대나무숲 250평
- 주차 100대 가능
- 토지 1505평

010-3565-1151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선암다리 5분, 김해공항 15분 동김해ic서 5분 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6898-91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3천(대출 2억 1300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 대지 : 약 320평
- 건물 : 1, 2층 – 1층 26평, 2층 법당 20평, 요사채 15평(거실2칸, 해우소 3칸)
- 가격 : 상담 후 결정

010-8914-1762

토굴암자 안내

- 주소 : 경북영천시 화남면 온천길 114 -3 무영사
- 대지 : 85, 법당 : 16, 요사 : 12
- 금액 : 4300만원

이곳은 소쿠리터라고합니다. 가장중심의자리에있어서 안정적 기운이맑고 편안한터입니다. 이도량은 비구니스님이거주하시면 잘어울릴것입니다.

010-8987-457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3억 5000만원

010-5316-5669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무보시 법문 공고
(깨달음 법문)

법회시에 무상 법문해 드립니다.(보시금 없음)
법회시에 스님의 법문이 필요하시면
법보시해 드리겠습니다.

법문의 주제는 주지스님(또는 주관인)과 상담 결정가능

1. 철학박사(원광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2. 일반법회, 대학강의, 교도소 등 법문 다수다회
3. 노인장애인사회복지기관운영 등
4. 종단 : 무관 / 세수 : 73
5. 법문 일정과 주제는 상담 후 결정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10-3394-0108
(문자 부탁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한국불교어산종 종도모집 안내

한국불교어산종은 영남범패 종단으로써 남성적이고 웅건함을 지니고 용맹 정진하는 수행자들의 기질과도 닮은 영남범패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 시켜갈 수 있도록 함께할 종도 스님을 모십니다.

범패 교육원 수강생 모집

의식 및 사물
(쉽게 배울 수 있는 악보로 수업)

총무원장 010-2665-9108
어산원장 010-3156-2211

사)한국불교어산종 총무원장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24호 | 16 | 전면광고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한
공덕보다 금강경 사구게 만이라도
남을 위해 설해준 공덕이 더 수승하다.



부처님 말씀 읽기 -《금강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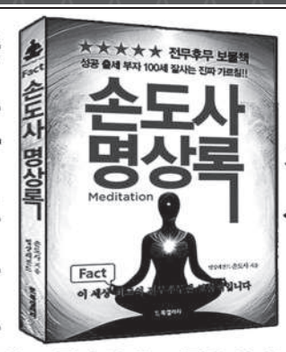
010-5412-8040 법광

사찰행사(불교의식)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무, 전통살풀이
정성껏 해드립니다

연암당 스님
010-6219-4757

손도사 유튜브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요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재,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5270-8260 / 010-6785-113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태아령 유산낙태, 남 · 여 구별법(예방법), 산소 무덤 물찬곳, 송사 재판, 암, 자궁암, 유방암
- 이혼수, 부도 • 배우자가 일찍 죽는 상 • 귀신 붙은 상
- 자살상, 중풍, 뇌졸중 상, 자식이 일찍 죽는 상 • 조상기도특수비법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구성학

- 스님, 법사, 무당, 일반인, 특별책임 개인지도

상담문의 010-4014-8822 작명, 아기이름, 개명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개인지도

스님을 구합니다

오래 계시면서 조용한 절 찾으시는 스님 모십니다.

대구 동구 백안삼거리 인근 사찰

010-9363-2292
010-3805-2778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법랑용품 일절

- 영가등 8cm 새것 2000원
- 한지팔각등 8cm 새것 2000원

반야불교사
010-3803-2626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사찰전문 건축공사

1. 사찰 지붕공사(칼라 강판 · 판넬)
2. 일반주택, 빌라, 상가 (기와/슬레트, 슬라브) 지붕공사
3. 요사채 창고 등 신축 및 수리
4. 전기판넬, 보일러 등 난방 공사
5. 전기배선, 조명 공사
6. 진입로, 옹벽, 기타 토목공사

*공사관련 모든 사항 상담 가능

대성 010-3817-8075
개발 010-3824-0846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사 찰 안 내

- 전통사찰 법당 30평 (웅장함) (단청 : 문화재위원 작품)
- 경남 창원시 변두리소재 명당
- 토지 7천평(추가구입 가능)
- 수목장 사용 최최고위치
- 4차선 국도에서 150m
- (대형버스 완전 진입가능)
- 가격 : 15억원(대출 11억원)
- 불기등등은 별도산정

-- 포교당 안내 --

- 대구시 중구 중앙통 접
- 대구시 중구 남일동
- 40년 포교활동 중
- 주역에 능통한 분
- 큰 인연이되면 금액불문
- 신도 잘 보살필 분
- 1억 미만 암자와 교환 가
- 2025년 4월 05일 한

053-745-9999, 010-2512-7777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 증 업 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검증 30년의 신뢰! 분실 파손 재실행 영구사용!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육임AI 순회 효능 설명회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⑥ 대각전 3 – 〈금강경〉 약이색견아

부처님을 빛깔로 보지말라

분석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우주의 지존으로 단 한 분만이 계시어야 하는 '부처님'께서 불화엄의 세계에서는 계속 중첩되는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는 이 기이한 상황에 대해 우리는 침묵을 지켜야 할까? 도대체 동국대 대각전에서 만 분의 부처님이 서로를 장엄하는 이 불광의 세계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부처님과 부처님'의 세계로서 너무 간단하게 〈화엄경〉을 들고 왔는지 모르겠다. 거북이처럼 느린 걸음의 산책 속에서 사색의 속도는 사슴처럼 빨랐는지 돌이켜보아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이미 대각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바, 다시 대각전에서 이 해답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수잔 손택이 작품의 A, B, C를 A, B, C가 아니라 X, Y, Z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듯이 대각전을 대각전으로 결정화하기 위해 대각전에 더 걸음을 머물러보자.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난다. 보조지눌 스님의 말처럼 대각전에서 넘어진 우리는 대각전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

대각전, 그 이름으로 돌아온다면 대각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었다. 외도의 깨달음, 성문의 깨달음, 독각의 깨달음이 있지만, 그 위가 없는 부처님의 깨달음만이 대각이다. 그런데 이 대각이라는 단어를 불교사 속에서 가장 소리높여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용성진종 선사시다. 용성 스님께서는 불교를 아예 대각교라고 이름하시며 대각의 이름을 부르짖으셨다. 이 용성 스님의 대각에서 다시 출발해 보자.

용성 스님께서는 총 네 번의 깨달음을 얻으셨다. 대비주를 외시어 첫 번째 오도를 이루셨고, 무자화두를 드시어 두 번째 깨달음을 얻으셨으며, 〈전등록〉을 보시다가 일면불월면불의 공안이 타파되어 삼차 오도를 이루시고, 낙동강의 지는 노을을 보시며 마지막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처럼 깨달음을 계속 고민하시고 자신의 증득을 철저하게 다시 점검하신 분이 불교사 속에서 용성 스님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바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깨달음 자체에 스님의 행지가 있고, 스님께서 대각교를 제창하시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으리라.

다시 돌아와 용성 스님은 자신이 깨달으신 바를 독불장군처럼 밀어 붙이신게 아니라 계속해서 재검하셨다. 이를 선(禪)의 용어로 오후보림(悟後保任)이라고 하는데, 스님께서는 특히 경전과 논서를 읽으시며 자신의 깨달음과 합치가 되는지를 점검하셨다. 이 과정에서 스님은 자신의 깨달음이 전도된 알음알이가 아님을 확신하셨고, 앞으로 자신의 삶이 부처님과 부처님, 조사님과 조사님으로부터의 혜명을 짊어지셔야 하는 운명임을 체감하셨다.



대각사 용성 스님 진영. **사진출처=불교학술원 아카이브**

깨달음 철저히 고민 · 점검한 용성 스님
외도 세 확장에 불경 현대어 번역 나서
대각 널리 알리려 '금강경'만 3번 번역

불불조조의 혜명을 짊어진 운명은 계속 용성 스님의 삶 속에서 시련으로 나타나게 된다. 기독교라는 지금까지는 조선 땅에서 불교가 대적한 적이 없는 새로운 종교가 나타났음에도 불교는 이미 유교라는 외도에 의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이를 대적할 분은 스님 한 분밖에 없었으니, 그 외로움과 고민이 어떠했을지를 절감할 수밖에 없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스님의 말을 빌려보면 그들이 서울에서 보여주는 기세는 "각 종교의 교당이 광대하고 장엄하고 화려하며 우뚝 솟아 하늘을 찌르고 항상 일요일이 되면 청중들이 교당에 가득 찼다"고 하시며 스스로는 탄식하시길 "외도의 교당은 종소리가 땡땡 울리면 수풀처럼 모여드는데 우리 불교는 적막하여 사람이 없으니,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라고 자책하셨다.

그런데 이들의 교당에 종소리가 땡땡 울리면 청중이 수풀처럼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용성 스님은 대각에 대해서 누구보다 확신이 있는 분이셨다. 무려 네 번의 깨달음과 그 보림에 힘써온 그가 아닌가. 부처님 법만이 진리임은 스님께 자명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수풀과 같은 많은 사람은 무지해서 그런가? 일견 그렇다고 할 수도 있다. 하여 스님께서는 〈귀원정종〉,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 비교종교학 서적을 저술하시어 불교의 진리 앞에 외도의 진리는 화톳불 앞의 눈송이임을 보이셨다. 하지만 불교는 제자리에 있고 외도의 교당은 아직도 수풀처럼 많은 사람이 찾았다.

용성 스님은 외도들이 세를 갖게 된 이유가 진리의 정합에 있지 않음을, 그들이 시절인연을 알았기 때문임을 그제야 알게 되셨다. 다시 스님의 말씀을 빌려보면 외도들은 "오동나무 잎사귀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천하가 가을이 되었음을 아는" 자들이며 그 시절인연이란 "세계의 인류문화는 생존을 경쟁하고 경제의 파탄이 그 극에 도달하고 있는 시기"이고 한문공부는 이미 옛것에 불과했다. 그렇기에 외도들은 "모두 조선글로 번역된", "각각 자기들이 신앙하는 종교서적"으로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불교는 그렇지 않음에 통탄을 거듭하셨다.

하여 스님께서는 한국불교사 속에서 그 위광이 영원히 빛날 위대한 불사를 시작하시니 불경의 현대어 번역이었다. 사실 〈귀원정종〉만 하더라도 사실상 한문에 현토만 달렸지 우리말만 알아서는 읽을 수가 없는 책이다. 하지만 우리말 번역을 시작하고 출판된 용성 스님의 후기 저작들을 보면 한문투에서 벗어나 거의 순한글 표기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용성 스님이 대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어떤 경전을 번역하셨을까? 정말 많은 경전을 번역하셨지만 단적으로 〈금강경〉이라 할 수 있다. 이 〈금강경〉만 세 번을 번역하셨기 때문이다. 이 〈금강경〉이 스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대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경전이었으리라. 그런데 이 〈금강경〉 26분에 다음과 같은 사구게가 있다.

색으로 나를 보려 한다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니
결코 여래를 보지 못하리라

부처님을 색(빛깔)으로 보지말라는 이 〈금강경〉의 사구게. 이 말은 부처님이 부처님을 장엄하는 대각전, 일생동안 조선말로 대각을 부르짖으신 용성 스님, 그 속에서 삼처전심(三處傳心)처럼 세 번이나 번역된 〈금강경〉, 다시 부처님을 색으로 보지 말라는 〈금강경〉의 사구게.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장엄하되 그를 빛깔로 보려 하지 말라." 이것이 대각전이 미적으로 노출되는 순간이며 산책자의 심상에 진주알로 결정(結晶)되어 다시는 잃게 되지 않을 가르침이 된다.

추신. 3회나 거듭된 대각전 산책의 결말이 다소 급하게 끝나버렸다. 글쓴이가 주어진 회차에서 비례의 미를 지키지 못해서다. 하지만 비례의 파괴미도 있으니 독자께서 널리 혜량해 주시길 바란다.

〈동국대 박사〉

종남산서 화엄 배운 의상 스님
함께 교세 펼친 삼계교에 영향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⑫ 삼계교의 영향

삼계교 창종주 신행(540~594) 선사의 첫 사찰(진적사)부터가 도읍 중심이었고, 이는 교단 포교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계교는 환경의 영향으로 하루 한 끼 탁발을 위해 거리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는 삼계교 특유의 대중포교와도 이어졌습니다.

〈삼국유사〉 '자장정율'조의 "나의 꿈속에 천인이 내려와 수기를 주었다(我夢天人來授五戒)"는 〈속고승전〉 '자장전'의 59자를 생략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문장생략이 아니라, '삼계교'라는 교단 역사의 웅장한 시작을 59자로 정리한 것이 아닐까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산 속에 홀로 수행하고 있는 자장의 꿈에, 두 사람의 장부가 나타나 말하길, '이 깊은 산속에 홀로 숨어 수행한들, 그것이 무슨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는가' 라며 오계를 주며, 부탁하기를, '너에게 오계를 주었으니,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를 바란다. 나는 도리천에 오른다.'"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산중수행을 버린 것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목적을 바꾼 것입니다. 즉, 자리(自利)보다는 이타(利他)라는 중생구제를 대명제로 하는 대승불교의 이념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장이 삼계교와 이어진 이야기는, 실은 그보다 앞선 신행 선사와 그 도반인 승옹에게서 비롯됩니다.

북주무제의 파불사태(574~577)의 진행 중, 승옹은 백록산에 은거하여 일생을 마치려는데, 그때 신행의 권유합니다. "도를 닦아 행이 섰으면, 마땅히 중생제도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 홀로 그 몸만 착하게 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널리 세상 사람들을 이익 되게 하며, 밝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 같은 신행 선사의 말에 승옹은 선사와 민중포교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이 신라의 원광과 자장을 통하여 〈삼국유사〉에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불교에서는 아직 삼계교를 통해 민중포교의 사상이 연결되고 있는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속고승전〉과 〈삼국유사〉를 통해 전해지는 삼계교의 이야기는 자장 이후 의상 스님에게서도 확인됩니다.

의상 스님은 661년에 당(唐)의 지상사(至相寺)의 지엄(智儼, 602~668)에게 화엄을 배웠는데, 찬영의 〈송고승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상은 장안 종남산 지엄 삼장법사가 있는 곳을 경추(徑趨, 지름길)로 하여, 〈화엄경〉을 학습하니, 때에 강장(康藏)국사와 동학(同學)이라."

의상 스님은 현장과 원측, 신방(神昉)등의 고승대덕을 벗어나, 장안에서 50여리의 북방에 있는 종남산 지상사로 향했습니다. 왜 의상 스님은 먼 종남산을 향하지 않으면 안 됐는가?

종남산은 해발 2600m의 고산준령입니다. 북주무제의 파불사태 당시 200~300만명의 승려가 환속당했고, 그 난을 피해서 '화엄학도'들이 종남산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들은 종남산 편자곡(便子谷)에 지상사를 세우고 파불사태를 맞섰고, 이 중심에는 보안(普安)과 정연(靜淵)이 있었습니다. 정연의 제자가 지정(智正)이며, 지정의 제자가 '화엄학'의 지상존자로 불린 지엄(智儼)으로, 그는 지론종(地論宗) 남도파의 계통을 잇고 있습니다. 의상은 험준한 곳에서 지엄의 가풍이 어떠한 것인가를 눈에 시리도록 똑똑하게 관찰하고, 그의 수행가풍을 이어받고 있기 위해 종남산을 찾은 것입니다.

지엄의 저술 중 〈화엄오십요문답(華嚴五十要門答)〉에는 신행의 '팔종불법전문(八種佛法全文)'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신행의 삼계불법의 핵심을 논한 것으로 '일인일행(一人一行)·보경인악(普敬仁惡)'을 주장하며, 새로운 자각의 위에서 출가승의 기본을 규정한 내용들입니다. 이는 삼계교와 지론종계 화엄종은 그 문호는 다를지라도 근본은 하나였음을 보여줍니다.

삼계교 신행 선사의 탑비가 세워진 곳도 종남산 편자곡입니다. 의상이 지상사에 들어간 662년부터 671년 신라에 돌아올 때까지의 9년간 종남산의 편자곡 일대는 삼계교도들의 탑비가 집중 조성됐습니다. 이를 보고 의상은 출가정신에 입각한 엄격한 두타행을 행하는 삼계사(三階師)들의 수행상이 마음속 깊이 각인됐을 겁니다.

〈송림사 주지〉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대원산업
BULJE DAEWON CO.LTD

구 입 문 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장보배의 24번의 계절 ❻ 춘분 _ 경주 길을 걷다(1)



▶한줄 요약
빛이란 양(陽)의 기운이다. 무릇 새 생명을 깨우는 계절이다. 춘분은 24절기 중 본격적인 생명 활동의 신호탄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농경사회였던 우리 민족에게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춘분은 더욱 중요한 절기였다. 옛사람들은 춘분이 지닌 '균형과 조화'의 힘을 이 절기의 지침으로 삼았다.

춘분에 얼음 꺼낸 신라인…음양 조화 도모

옛사람들이 남긴 저 오랜 탑은 오늘 하루 제 속 가득히 빛을 가두고 삼킨다.

밤이 되면 딱 그만큼의 어둠도 저곳을 찾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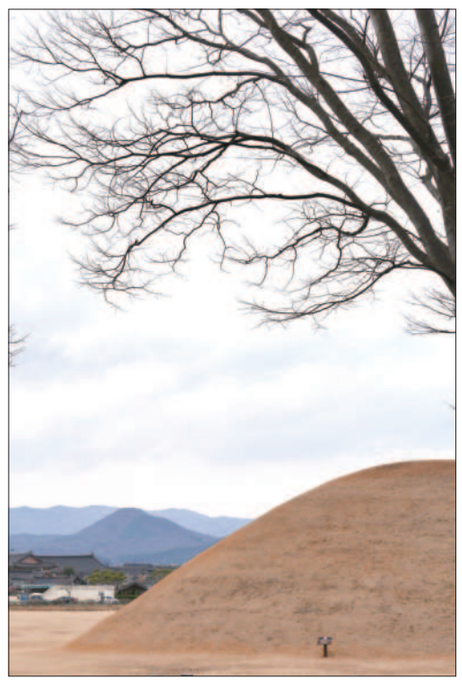
살다 보면 하루쯤 그런 날도 있는 것이다.

빛과 어두움이 서로를 마주 보며 하나가 되고, 그렇게 꽉 찬 내가 되는.

우주의 균형이 온 세상에 머무는 시간. '춘분'이다.



왕즉불(王卽不)의 시대 신라 선덕여왕 재위 시기 축조된 첨성대. 어떤 이들은 첨성대가 사바세계와 도리천을 잇는 관문이라 말한다.



월성지구 왕릉. 저 멀리 경주 남산이 보인다.



월성지구에 핀 산수유. 이른 봄 잎도 나기 전에 노랗고 향기로운 꽃을 피운다.

0으로부터

태양의 황경이 0°가 되는 순간, 지구별의 낮과 밤은 그 길이가 같아진다. 저 높은 하늘 위 황도와 적도가 교차하는 춘분점. 태양이 그 0°의 점에 도착하면 빛은 적도 바로 위로 쏟아져 내린다. 그리고 지구는 일순 어둠과 빛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이날을 기점으로 낮은 점점 더 길어지는 것이다. 0으로부터 시작되는 빛의 절기, 바로 춘분(春分)이다.

빛이란 양(陽)의 기운. 무릇 새 생명을 깨우는 계절이 아닌가. 춘분은 24절기 중 본격적인 생명 활동의 신호탄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먼저 양반들은 춘분이 되면 한 해의 농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머슴들에게도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대접하며 액을 막고 풍년을 기원했다. 또 곡식이 부족한 겨우내 하루 두 끼만 먹었던 것을 세끼로 늘리는 것 또한 춘분부터다.

농경사회였던 우리 민족에게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춘분은 더욱 중요한 절기였을 터. 그런 이유로 옛사람들은 춘분이 지닌 '균형과 조화'의 힘을 이 절기의 지침으로 삼았다.

날이 풀린다 하여 섣불리 논밭을 갈거나 나무를 베지 않는 것. 춘분에 다투면 한 해의 기운이 어긋난다고 하여 사소한 말다툼조차 조심한 것도 이 절기의 풍경이다.

'나이 떡'은 춘분을 대표하는 세시 음식이다. 나이 떡은 가족 구성원 각자의 나이 수만큼 숟가락으로 흰쌀을 떠서 떡을 만드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때 아이들은 떡을 크게 빚고, 어른들은 작게 빚어 먹었다는 것.

많은 것은 비워내고, 빈 곳은 채워주며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하나의 원이 되는 것. 그 간결하고도 다정한 지혜가 자그마한 떡 하나에 다 담겼다.

춘분의 석빙고

경상북도 경주시 월성지구.

이곳을 찾을 때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의 도시로 떠나는 것만 같다. 발 닿고, 눈 닿는 곳마다 이제는 사라진 천년고도의 혼이 일렁이는 도시.

그간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의 수가 많고 많지만, 지금도 구름에 가려진 별처럼 숱한 보물과 이야기가 이곳에 잠들어 있는 것이다.

경주 석빙고(보물 제66호)는 월성지구 북쪽 구역에 머물고 있다. 이 석빙고는 조선 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그 규모와 기술이 현존하는 국내 석빙고 중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지금도 야트막한 문 너머 보이는 빙실은 여전히 견고하고, 서늘한 기운이 가득하다. 그렇다면 먼 옛날 얼음을 보관했던 석빙고와 춘분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과거 얼음은 보물만큼 귀하디귀한 존재. 따라서 얼음의 보관과 배급은 나라에서 주관하고, 담당 부서를 두어 엄격히 관리할 만큼 중요한 국가 업무였다.

그리고 겨우내 힘겹게 저장하고, 지켜낸 귀한 얼음을 꺼내는 날이 바로 춘분이었던 것. 과거 고려나 조선에서는 춘분날 빙실에서 얼음을 꺼낼 때, 북방의 신인 현명씨에게 그해 자연의 평안을 기원하는 사한제(司寒祭)를 올렸다. 무엇보다 춘분에 얼음을 꺼내는 것은, 음기가 성한 한겨울의 얼음을 양기가 강해지는 절기에 꺼내어 음양의 조화를 도모하는 의미를 지녔다고.

지금도 아득한 하늘의 이치를 먼저 헤아린 옛사람들. 한점 빛도 귀히 여긴 그 마음 안에 저 적도의 태양도 제 이야기를 슬쩍 남겼는지 모를 일이다.

하늘과 사람 사이에

옛 왕들이 잠든 거대한 반구의 왕릉 사이에 선 단정한 석조물 하나. 바로 천년고도 신라가 남긴 위대한 유산, 첨성대(국보 제31호)다.

오래전 이곳은 경주부 남쪽 월남리, 고대부터 이 땅을 지켜온 숲 계림과 왕릉을 곁에 두었던 신라의 땅. 지금은 그 터만 남아 막연히 옛 고도의 모습을 그려보아야 하는데, 오직 첨성대만이 굳건히 서서 사라진 옛 왕조를 증명한다.

신라 선덕여왕 재위 시기에 축조된 이 석조물은 지금도 그 정확한 쓰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삼국유사에도 기록된 그 이름 속에 진실이 있을 것이다.

첨성대(瞻星臺), 별을 바라보는 시설.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경주 편에는 '경주에 대한 실망의 상징, 첨성대'라는 단락이 있다.

이는 첨성대에 대한 막연하고 무지한 기대가 거대하거나, 화려하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실제와 마주했을 때 곱절의 실망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일침이다. 첨성대의 참 면목은 그 우직한 돌덩이 하나하나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첨성대를 이루는 전체 돌의 개수는 총 360여 개. 28개의 석단. 문을 중심으로 위아래에 각 12단씩 쌓아 올려진 모습. 이 모든 숫자는 정확히 1년 365일, 12달과 별자리 28수와 일치한다. 특히 놀라운 건 일 년에 단 두 번, 오직 춘분과 추분만 태양 빛이 첨성대 바닥까지 가득 차오른다는 것. 반대로 하지와 동지에는 창 아랫부분에서 모두 빛이 사라져 정확히 4계절과 24절기를 알 수 있다.

지구상 가장 오래된 천문대. 하늘은 사람을 품고, 사람은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 애쓰는 그사이. 첨성대가 서 있다.

첨성대는 알고 있다

첨성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 선덕여왕. 선덕여왕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정당해야 했던 자신의 입지를 불교 안에서 찾으려 노력했다.

신라는 왕과 부처를 동일시 하는 왕즉불(王卽佛)의 시대. 선덕여왕은 신라인이 신성시하는 박혁거세의 후계자이며 동시에 스스로 석가족의 후손임을 공고히 하려 했다. 이런 이유로 지금껏 저 첨성대의 미스터리는 불교적 의미의 다양한 가설로 매번 새로이 구성되곤 하는 것이다.

하늘을 읽어 자연의 변화를 가늠하고, 달과 별을 통해 국운을 점치며, 왕의 권위와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 지금도 불분명한 첨성대의 역할은 어쩌면 그 모든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 영화도, 환영 같은 마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져 버렸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1억5000만km, 그 사이를 헤매는 수천수만의 이야기가 저 탑에 앉았다 사라진다.

어떤 이들은 첨성대가 사바세계와 도리천을 잇는 관문이라 말한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도리천에 묻어달라 유언한 선덕여왕. 자신의 왕국이 불국토가 되길 염원했던 한 여왕의 꿈은 과연 이루어졌을까. 그것은 영원히 첨성대만 아는 비밀이다.

〈작가〉





대행 스님

자기 근본을 곧바로 믿고 그냥 직선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 도리 주변에 알리고 싶은데

질문 제가 마음공부를 해 보니까 마음의 헐떡거림도 가라앉고 많이 편안해지고 좋아서 이 마음 도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주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알릴 수 있을까요?

답변 지금 지구가 돌아가든지 우주가 돌아가든지 그게 돌아가는데 에너지가 나오는 것도 한 구멍에서 나오지 두 구멍도 아니에요. 천차만별로 용도가 다르지만 나오기는 한군데서 나온단 얘깁니다. 우리 쓰는 사람들이 용도가 이래야 되겠다 하면 그 용도가 바뀌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믿어라 하는 것이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열심히 믿으려고 한다면 못 믿는 게 되니깐 그냥 믿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깐 앨 쓰지 말고 아주 어렵게 이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 주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지금 신도들 가정은 괜찮은데 이 신도들 일가 되는 집들, 아무것도 모르는 집들, 이런 집에서 고장이 나서 모두 오거든요. 그런데도 그것도 좀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지, 미리미리 좀 관하는 거라도 가르치고 그랬다면 좀 뜻이 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았을 거고. 머리가 참 둔해요.

내가 동생이 있으면 벌써 동생도 그럴 거다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 권해 봐서, 권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권해 봐서 싫다고 그러면 고만두거든요. 다니진 않더라도 "이거라도 해." 이러고 가르쳐 주든지 말이에요. 말로라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천연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스러울 때도 알지 못하고 받는 거보다 좀 알면은 그냥 무산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문제를 들고 왔을 때 여기 스님네들이 안다고 해서 "이건 이렇게 하쇼." 이렇게 할 순 없다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죠. 병원엘 가시려면 병원엘 가고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고 맘대로 하세요. 이게 마음대로 돼야지, 마음에서 그렇게 돼야지 어떻게 남이 시킨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남이 시켜선 안 되는 일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한 생각이 귀중합니다. 그렇게 내가 발 떼어 놓는 것이, 지금도 한 발 떼는데 그렇게 뭐, 한 발 떼고 두 발 떼는 게 먼 걸로 생각을 하지만 한 발을 떼고 두 발은 떼되 일은 한 발 뛰어서 천 리를 가서 할 수 있다. 그 요량을 지혜롭게 자꾸 알게 된다면 참 편리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학생이 이랬대요. 시험을 볼 텐데 시험이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번엔 마지막이다 하고선 시험을 보는데 자기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너, 생각을 벌써 거기 들어가서 하면 늦어. 그러니깐 너는 딴 애들같이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못하니깐 미리 그것을 모두 너의 머리에 이렇게 오게끔 다 이렇게 해 놔야 네가 붙지 않겠느냐. 그러니깐 너는 여기 있더라도 너 아닌 너 주인공을 미리 가게 해서 수습을 해 놓게 해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면 그 생각이 다 났겠소? 허허허.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러 줬대요. 자기 일은 다 잘되는데 그 아들 일은 그게 안 되니깐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아리송하지만 믿고 그렇게 하니까 그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꿈에 자는데 이렇게 길이 ㄷ 자로 이렇게, 엉망진창이던 길이 그냥 착 펴지더니 그냥 착 그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붙었다지 않습니까. 합격선에 충분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사람들이 생각이 좁고, 생각이 좁으니깐 굴리지 못해서 오는 문제들, 그러니깐 "잘하쇼, 잘하쇼" 이럴 수밖에는 나는 없잖아요.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저것들 어떻게 하나. 와짝 벗어나야 딴 사람들도 인제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된 사람이 인연이 돼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자연적으로 또 그 사람도 살게 되거든요. 벗게 되거든, 무명이 좀.

그러니까 모두 잘 살려면 둘 아니게 만나는 족족 그저, 싫다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돼요. 아쉬우면 그렇게 자기가 하고 간다고요. 그래서 잘되면은 "야, 네가 그때 얘기해 준 거 좋더라." 이렇게 그냥 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면 '그게 아니라 임마, 바로 너야.' 이러고선 인제 그때 알게 되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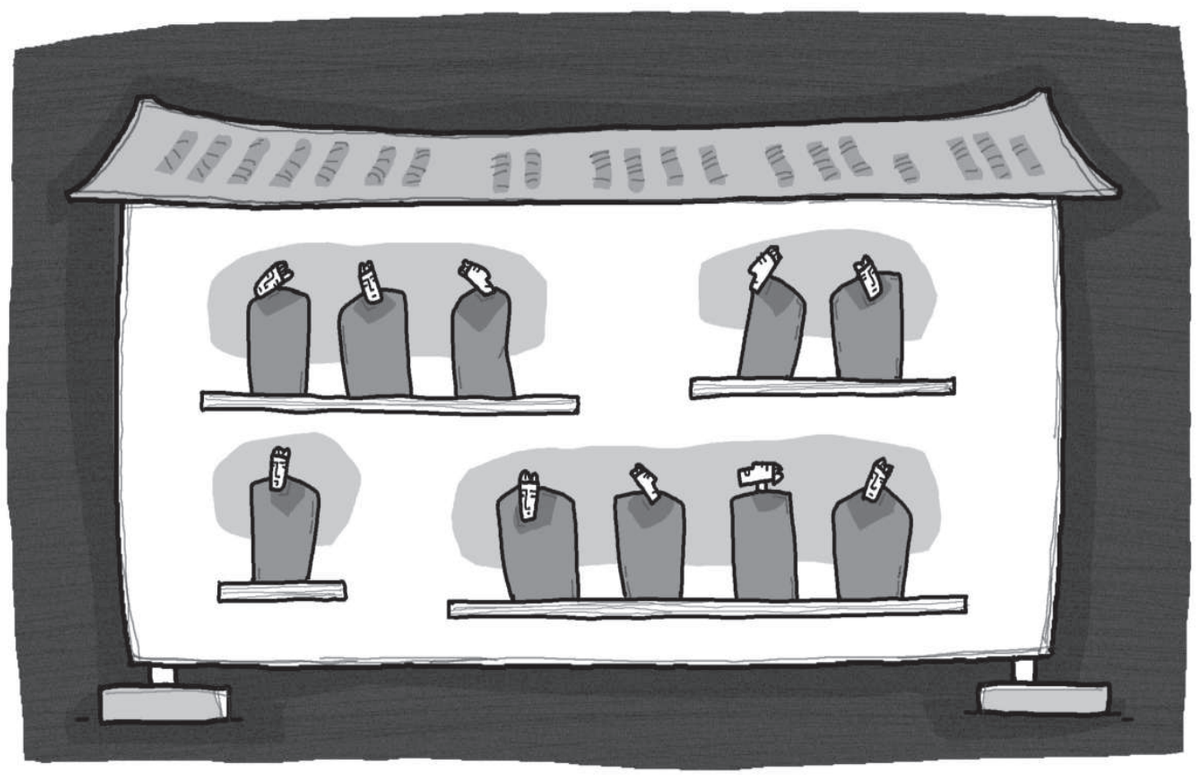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수련하는 거니까 진짜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고, 또 자기 자신만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두 지혜롭게, 이렇게 둥글게 집안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다들 건질 수 있는 거니까요.

딸하고의 관계가 힘들어요

질문 저는 딸이 하나 있는데 영 자기 고집만 부리고 저 잘되라고 몇 마디 하면 며칠씩 친구 집에 가 버리는 등 정말 자식의 마음을 맞춰 주는 게 힘에 부칩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왜 이리 힘이 들까요?

답변 여러분이 오시게 되면 어떠한 액난이나 어떠한 고난을 안고 옵니다. 그 안고 오는 고난 액난이 어디에서 있는가. 바로 내 한마음 속에서 악이 술술 풀려나오고, 액이 술술 풀려 나오고, 병고가 술술 풀려 나오고 모두 과거에 살던 인연에 따라서 업이 지어진 관계로 그렇게 풀려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을 거기다가 되맡겨 놔야만 되입력이 돼서 앞의 것이 무너지고 새로이 입력된 게 현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왜 "나는 생각해 본 예도 없고, 말한 예도 없고, 행한 예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치는 여러분이 여기에 오실 때 뭘 가져왔다면 마음으로 가져오시죠? 내게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마음이 한데 합쳐졌을 때 광력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합쳐서 작용을 할 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의 양면이 합쳐지면 전자와 전자가 없어지고 그 에너지광만 나오게 돼 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양면이 다 없어지고 불만 번쩍 일어나듯이 여러분이 가져온 재료에 성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했다고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중에 어떤 누가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걸 좁게 보면 네가 하고 내가 했다 하겠지만, 넓게 본다면 네가 했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이니 내 주인공에다 맡겨 놓아라

☞ 19면에서 계속

다 내가 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공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독불장군이 없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애를 낳아도, 아내 자식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 남편 자식이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넓게 보면 모든 문제들이 네 자식 내 자식이 따로 없고, 네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없고, 네 형제 내 형제가 따로 없다는 그런 이치로 돌아가죠. 그럼으로써 '하지 않았다'도 아니고 '했다'도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했다 안 했다 이것이 없습니다. 네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그게 없습니다. 네가 했다 내가 했다 그게 없습니다.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일해서 돌아갈 때, 바로 두 전자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진다 하는 거는 하나로 몰입하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력만, 즉 에너지광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니 하면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참 유전성으로 오는 사람, 영계성으로 오는 사람, 세균성으로 오는 사람, 업보성으로 오는 사람, 윤회성으로 오는 사람 등 갖가지로 많습니다. 이런 거를 병원에서 100%를 다 해결한다고는 못 봅니다. 과거로부터 온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신계의 발전을 아니 한다면 그걸 대처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65%든 60%든 대처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는 내 몸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며 내 가정도 이끌어 나가지 못합니다. 넓게 생각하세요. 좁게 개별적인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포괄적인 하나로 생각을 하세요. 한 가정이라면 한 방통안이라고 봅니다.

내가 항상 "전력은 다 똑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방편으로. 전구는 많지만 전력은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자식이 내 뒤를 따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싸우고 "왜 나는 나가는데 안 나가느냐?" 하고 온통 야단들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니까 내 주인공에다가 '한마음 주인공!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우리 식구를 다 이끌어 줄 수 있고, 내 몸을 이끌어 줄 수 있다. 성사가 되는 것도 거기요 성사가 안 되는 것도 거기니, 성사가 되게 하는 것이 거기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맡기고 놓았을 때 가정이 점점 마음이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전등은 다 각각이지만 전력이 같으니까. 그러니 그렇게 밝아질 것을 나가서 안 들어오느니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느니 하면서 잠도 못 자고 아등바등하면서 온통 애를 태우니 병은 병대로 나고, 가정은 가정대로 파괴가 되고, 화목지 못하고, 부드러운 말 나오지 못하고, 부드러운 행 나오지 못하고 이거는 모두가 악화가 되는 거죠. 너그럽게 생각을 하십시오, 너그럽게.

우리는 배낭을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과거는 없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벌써 현실로 수억 개나 되는 악업 선업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어딨습니까? 미래는 또 아직 오지 않았으니깐 없고요. 그럼 그 배낭 속에, 이 몸을 배낭이라고 해도 됩니다. 배낭 속에 그렇게 수억겁을 거치면서 진화되면서 쫓고 쫓기면서, 인과를 짓고 업을 지은 이 악업 선업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렵니까?

> **여러분이 있기에 상대가 있고**
> **상대가 있기에 부작용이 나고 모든 게 일어나는 것이니**
>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상대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모두 나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 맡겨 놓으신다면, 바로 앞서의 것은 무너져 없어지고 현실에 좋게 생각해서 새로 맡기는 것만이 풀려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숙명통이라고 하죠. 비교한다면 지금 컴퓨터와 같은 거죠. 과거를 짊어지고 나오는 것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나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나는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생활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인데. 모든 것이 여러분이 있으니까 상대가 있죠. 여러분이 없으면 상대가 있을 리가 있나요? 무효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고 모든 게 일어나는 거니까,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상대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거기서 액난이 다 나오는 거니까 액난을 다 없앨 수 있는 것도 그 자리밖에 없다.' 하고 놓는 것이지 '나를 잘되게 해 주시오.' 하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곧바로 믿고 그냥 직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 한마음 주인공! 나를 이렇게 해 주시오.' 이게 아닙니다. '해 주시오'가 어딨습니까, 둘이 아닌데. 유심과 무심이 어떻게 둘이 됩니까? 정신과 육체가 어떻게 둘이 됩니까?

그러니까 '해 주시오'가 아니라 '틀림없이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놓는 겁니다. 이심전심으로써 수없이 통하고 돌아가는데 내 마음이 저쪽 마음으로 가서 해결을 하는 것도,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을 바로 보살로 화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없이는 내 속에 있는 이 업보성을 전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부 보살로 만들 수 없습니다. 보살로 만들지 못하면 중용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무심의 중용, 보이는 데나 보이지 않는 데나 100%를 작용하면서 굴리는 것이 중용이에요.

칠층탑에 대해

질문 한마음선원은 다른 절과 달리 대웅전 지붕에 둥근 탑이 올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 본원에는 칠층으로 탑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 뜻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예. 칠탑이든 구탑이든 말입니다, 칠탑도 여러분들의 몸과 같은 겁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 칠성판을 깔죠? 허허허. 육속에 진짜 주장자가,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세우고, 그래서 칠성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 칠탑이라고 그러는 것도 여기다 대도 맞고 저기다 대도 맞습니다만, 칠탑도 없고 칠탑이 한 탑이요, 한 탑이 칠탑입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닌데 이것을 우리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에 이 모든 것을 맞게, 전부 살아나가는 그 모두를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이지, 이 마음의 도리로서는 칠탑도 없고 한 탑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탑이 많아서 '칠탑이 있다, 한 탑이 있다' 이러지 않습니다. '삼탑이 있다'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둥근 탑을 갖다가 이게 칠탑으로 올린 것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요만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성취하라고 방편으로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방편 아닌 방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시에 같이, 모두 응신으로서 거기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응신이 되고 보현신이 되고 법신이 되고 부처님이 되고….

가만히 있으면 그 탑도요, 칠탑도 따로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내면 칠탑이 있고, 또 둘 아닌 마음으로써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전부 그것이, 보현신도 거기 계실 거고, 부처님도 계실 거고, 또 법신도 거기 계실 거고 다 그냥 이 허공에 다 계신 분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거기 다 운집해서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공부 하는 분들은 그저 거기에, 때에 따라선 거기에 계시고, 때에 따라선 여기에 계시고, 때에 따라선 부처님한테 계시고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스승의 날이랬나? 그날 신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법당으로 몰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울 땐 형상이라고 배웁니다. 나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형상이라고 배우지만 나중엔 말 없는 그 무심으로써, 연기법으로, 그냥 공법으로 하시는 부처님이 돼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도 이 형상하고 똑같고요. 여러분들의 몸도 형상 아닙니까? 저 모습도 똑같고 마음도 똑같고, 생명도 똑같으니 너무 높이 보지도 말고 너무 얕이 보지도 말고 그냥 항상 둥글게 삼배를 극진히 올리고, 자기 주인공을 다 거기다 몰아넣고 삼배를 올린다면, 자기가 그냥 색경을 보고 자기한테 절할 수도 없는 거니까 여기다가 다 이렇게 한데 주인공과 더불어 같이, 부처님의 주인공과 같이 해 놓으시고 삼배를 올리시면 그 스승의 날 아주 멋지게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깐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말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뜻으로 알려고 하세요.

이 마음,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쓰는 마음은 지혜롭고 그거를 정신계와 물질계를 같이 쓰지 못하고, 즉 말하자면 물질계에서만 쓰게 되면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쓰는 사람들은 공덕이 있지만 그냥 육안으로 쓰는 사람은 공덕이 하나도 없다. 이 물질만 보고, 내 물질이 물질만 보고 기도를 하거나 그런다면 그건 상대를 보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한마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덕이 될 수가 없죠.

모두가 한마음으로서, 한 개체로서 이 몸뚱이 하나를 가지고도 이것이 공체입니다. 공체인데 항상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몸뚱이 하나다.' 이렇게요. '내 몸뚱이 하나고 나뿐이다. 외롭다.' 그러지요. 그런데 외롭지 않아요. 이 몸뚱이 하나 속에도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공체죠. 그리고 또 공체로서 움죽거린다면 공용이지 어떻게 자기가 개별적으로 하나가 움죽거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움죽거리기 때문에 공용이죠. 그리고 공식이고. 그래서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는 공심으로서 쓰는 것이 지혜고. 공심이 아닌 개별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대로 그냥 마구 말하는 걸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몸뚱이도 공체고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 같이 사는 거구나. 더불어 같이 움죽거리는 거구나. 더불어 같이 보는 거로구나. 더불어 같이 먹는 거로구나. 더불어 같이 생각하고 사는 거로구나. 그러니 나라고 세울 게 뭐 있겠나. 내가 혼자 했다고 할 게 뭐 있겠나. 내가 혼자 봤다고 할 게 뭐 있겠나. 혼자 들었다고 할 게 뭐 있나. 내가 산다고 할 것도 없다. 나를 세울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세상이 모두 공해서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붕에 칠탑을 해 놓은 것도 바로 여러분들의 몸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공체인 몸, 공심인 마음, 공생인 생명, 공식으로서 모두가 같이, 더불어 같이 하고 있는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같이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징하는 겁니다.



한국 관음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관음신앙 경전 연구

불자들이 가장 널리 신앙하고 있는 관음신앙이 고려와 조선시대에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전개되어 갔는지를 경전 성립의 역사적 맥락을 통해 입체적으로 고찰하였다.

김방울 저/신국판/양장/320쪽/값 23,000원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감동을 보살의 마음으로 승화시키다!

괜찮아 괜찮아

That's Okay. That's Okay

동훈과 지안을 둘러싼 후계동 사람들의 가슴 훈훈한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우는 또 하나의 삶, 바로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인 보살의 길이다.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지금의 현실이야말로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고 병을 앓는 '유마거사'와 같은 보살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장범용 저/국판변형/228쪽/값 14,800원



이것이 천태불교의 핵심이다!

천태불교의 이해와 실천

인도불교를 중국불교로 최초로 정착시키고 토착화시킨 천태불교의 교학체계와 수행체계 전반을 서구 철학자의 안목으로 알기 쉽게 조명한 역작이다!

브룩 지포린 지음/정천구 옮김/520쪽/값 3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강소연의
수행 다이어리

⑥ 삼매의 현상들(2)_여의주

몸 사라진 자리엔 거대한 여의주가…

사마타 수행 중에 만나게 되는 '강렬한 빛'. 그것은 집중의 강도에 따라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또 밀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깊어진다. 이때는 의식이 대상에 밀착해서 붙어있기에, (내 몸으로부터 의식이 분리되어) '내 몸이 없다'고 느낀다. 결국, 집중 대상만 남고 나는 없다.

'펄럭' 사라지는 몸

사마타 수행 중에 몸이 없어지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 집중점(선종에서는 율극봉 또는 금강권 등으로 일컫는다)으로 잡았던 가슴 차크라 자리가 뻥 뚫려 버린다. 몸통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 주먹을 쥐고 팔을 그 구멍으로 넣었다 뺐다 관통해본다. 또 삼매에서 떨어져 나올 때, 순간 몸이 없어서 깜짝 놀라 몸을 이리저리 더듬어 보기도 한다. 이때(집중 대상과 하나가 되었다가 의식이 몸으로 돌아오는 순간), 몸이 튕겨 나뒹구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집중하는 의식'은 대상을 강렬하게 거머쥐고 머물려 하지만, 실제로 몸이 있기에 자석처럼 의식이 제집(몸)으로 돌아와 들러붙는다. 장시간 동안 오롯이 추구했던 대상으로부터 (의식이) 갑작스레 분리되니, 순간 몸도 착각을 일으켜 분리되듯 튕겨 나와 뒤로 자빠지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 중, 필자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험은 마치 종잇장 접히듯 몸의 중심이 반으로 접히면서 '펄럭'하더니 몸이 사라져버린 경우였다. 그리고 그렇게 몸이 사라진 자리에 거대한 여의주가 나타났다! 지구보다도 크고 태양보다도 크게 느껴지는 어마어마한 여의주. 얇은 깃발처럼 한순간 펄럭이며 사라져버린 내 몸, 그것은 참으로 가볍고도 허망했다. 그리고 초대형 여의주만 남았다.

초대형 '여의주'의 출현

아! 모든 존재의 이면에는 여의주가 있구나! "우차여의주 정획무등등(遇此如意珠 定獲無等等: 이 여의주를 만난 이는 반드시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천수경〉



초대형 여의주, 몸이 펄럭하며 사라진 자리에 거대한 여의주가 나타난다. ©강소연

의 구절에서 왜 '여의주'가 등장하는지 이해가 간다. 그러고 보니, 대표적 대승경전(〈화엄경〉 〈법화경〉 〈정토3부경〉 등)에는 여의주에 대한 언급이 수없이 많다. 영주(靈珠: 신령한 구슬)·보주(寶珠: 보배 구슬)·마니·주(珠)·마니주·여의주·여의보주·마니보주·무가주·명월마니주·반야영주·염주(念珠)·금강주 등, 그것을 가리키는 이름이 너무 많아 모두 나열할 수가 없다. 무수한 보주 중에 으뜸이 이 있는데, 이를 마니보주라고 한다.

참으로 거대한 구슬이 있는 반면, 모래알만큼 작은 구슬도 있다. 갠지스강 모래알 같은 깨알 같은 구슬 입자들이 변화무쌍하게 파도친다. 내 몸 안팎의 허공에 가득한 구슬 입자들이 추는 군무(群舞)는 너무나 빨라서, 그것을 인식하려는 순간 도망가 버린다. 그 무상(無常)함을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다.

고려시대 나옹 스님(혜근, 1320-1376)이 지은 '완주가(翫珠歌)'는 일명 '영주가(靈珠歌)'로도 불리는데, 오묘한 구슬에 대한 총 60구의 찬송이다. "신령한 구슬은 지극히 영롱하여/ 본체는 항하사를 둘러싸 안팎이 비었도다/ 사람마다 푸대 속에 당당히 간직해/ 매만지며 가고 오니, 아무리 놀아도 끝이 없네/ 혹자는 '마니'라 하고 혹자는 '영주'라고 하니/ 이름과 모양은 비록 많으나, 본체는 하나이네/ 세계마다 티끌마다에 분명하여, 마치 밝은 달(명월)이 가을 강마다 가득한 듯하여라.(이하 생략)" '완주'는 '구슬이 희롱한다, 유리알이 유희한다'라는 뜻으로, 헤르만 헤세(독일 소설가)의 〈유리알 유희(1943년 간행, 노벨 문학상 수상작품)〉를 떠올리게 한다.

卍자의 소용돌이

강렬한 빛과 초대형 여의주, 그 외에도 사마타 수행을 할 때 만나게 되는 현상들 중에 만자(卍字)의 소용돌이가 있다. 아랫배의 단전에 집중을 하니, 캄캄한 심연을 바탕으로 찬란한 빛의 바람개비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은 회전하기 시작한다. 빛줄기가 처음에는 사방(四方)이다가 팔방(八方) 또는 시방(十方)으로 분화한다. 빛의 바람개비는 처음에는 2차원의 평면에서 좌우로 돌아간다. 그러다가 에너지가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 앞뒤 좌우로 돌아가 3차원의 공간을 채운다. 형성된 조건에 따라, 작게 돌기도 하고 우주의 블랙홀처럼 크게 돌기도 한다. 빠르게 돌기도 하고 천천히 돌기도 한다. 그 움직임과 형상이 변화무쌍하지만, '방사와 회전'이라는 공통의 특징을 갖는다. 이 빛의 바람개비를 문자화한 것이 '만자'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⑥ 후시딘과 마데카솔

"후시딘이 좋아요? 마데카솔이 좋아요?"

"딸랑"

약국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온다.

"후시딘이 좋아요? 마데카솔이 좋아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자주 들어 본 이 질문은 약국에서 하는 다빈도 질문 순위를 매기자면 반드시 메달권에 있을 거라 예상되는 것들이다. 아마도 금메달이 아닐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랜 기간 미디어 광고 노출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후시딘과 마데카솔에 관련된 것이다.

오래된 떡밥과도 같은 질문이고 약사가 된 이후로 15년이 넘도록 똑같은 대답을 해왔지만 나는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약국에서 맞이하고야 말았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은가? 후시딘이 좋은지, 마데카솔이 좋은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구도 시원하고 명쾌하게 답을 내려준 적이 없다. 답이 정해져 있었다면 응당 정답지가 있었을 텐데 한 번도 그에 대한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다. 왜 그럴까?

그럼 아미타불과 비로자나불 중에 어느 부처님이 더 멋진가요? 와 같은 질문이라고 하면 더 쉽게 와닿을 것이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에 따라 가르침이 달라지듯, 후시딘과 마데카솔도 상황과 상처의 종류에 따라 좋은 제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성분을 살펴보면 후시딘 연고는 [퓨시드산나트륨]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항생제 연고이며, 이 성분은 포도구균이나 연쇄구균 따위의 세균 감염을 막아준다.

마데카솔케어 연고는 '센텔라정량추출물'과 '네오마이신황산염'이라는 두 가지를 유효성분으로 한 복합 항생제 연고이며, '센텔라정량추출물'은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약효 물질로 피부 내 콜라겐의 정상적인 합성을 유도하여 흉터를 최소화하는 성분으로 약뿐만 아니라 화장품에도 두루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다. '네오마이신황산염'은 항생제 성분으로 상처의 2차 감염을 막아주고 피부 질환을 초기에 치료하는 성분이다.

어려운 이름들이 등장해서 글을 읽기가 지겹고 힘들어졌음을 필자도 이미 잘 알고 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각각의 항생제 성분이 어떤 균을 잘 잡아주고 하는 등의 이야기는 낯설고 관심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난해한 이야기는 차치하고 정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우리는 질문을 조금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후시딘과 마데카솔 중에 뭐가 더 좋은가요?" 가 아니라 "후시딘과 마데카솔은 각각 어떤 상황에 써야 하나요?" 가 맞다.

'후시딘'은 항생제 단일성분으로 고름이 생긴 피부, 고름으로 인한 딱지(농가진이라고도 한다.), 모낭염, 화상 등 출혈이 있을 정도로 깊고, 감염증이 우려되는 상처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후시딘은 감염 우려 상처에

마데카솔은 긁힌 상처 등에

'마데카솔케어연고'는 새살이 솔솔~이라는 광고 문구와 같이 센텔라정량추출물 성분이 흉터를 최소화하고, 상처 피부의 깨끗한 재생에 효과가 있으며, 네오마이신황산염이라는 항생제도 들어가 있다. 마데카솔은 작은 열상, 찰과상, 봉합된 상처 등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출혈이 있고 세균 감염이 우려되는 지저분한 상처에는 후시딘 연고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가벼운 상처, 긁힌 상처, 작은 상처 등에는 마데카솔케어 연고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갑자기 상처가 생겼을 때 둘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할 필요는 없다. 더 잘 맞는 적응증이 있다는 것뿐이지, 일반적인 상처에는 두 가지 연고 모두 다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급할 때는 후시딘 마데카솔을 구분하지 말고 먼저 보이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상처의 상황에 따라 알맞은 연고를 사용하고 싶다면? 정답은 바로 내 주변의 동네 약국을 활용해 보는 것이다.

상처의 관리에 사용되는 제품은 후시딘, 마데카솔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외용제가 있다.

항생제가 여러 종류 함유된 3중 복합 항생제 연고도 있고, 항생제와 스테로이드가 함께 들어간 연고도 있으며, 항생제가 없이 피부 염증과 재생에 도움이 되는 연고 종류도 있다. 그리고 흔히 '메디폼'이라는 상품명으로 알고 있는 습윤밴드가 있다. 이 습윤밴드는 상처가 난 부위와 정도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류가 약국에 준비되어 있다.

습윤밴드는 아주 얇은 것부터 1, 2, 3, 5 m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두께가 있는데 상처의 깊이나 넓이, 진물의 양에 따라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처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 제각각 다르므로, 상처 관리법을 잘 안내받고 적합한 제품을 추천받고 싶다면, 상처가 난 사람과 함께 약국을 찾거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상처 사진을 찍어서 약사님께 보여주고 상처가 발생한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이 좋다.

"딸랑"

또 약국 문이 열리고, 귀에 익숙한 질문이 들려온다.

"인사돌이 좋아요? 이가탄이 좋아요?"

이젠 우리도 답을 알고 있다. "당신의 잇몸 상황에 따라 좋은 약이 다릅니다."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전법 일기

美디트로이트 선센터 순례서 불교적 실천 모범을 만나다

지난해 여름방학 동안,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미국 내 한국 사찰들을 순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순례기간 동안 매일 새벽 6시에 기상해 아침 예불을 올리고 참선을 하며, 현지 불자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나눴다.

이번 순례는 주로 미국 동부 지역에 위치한 사찰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첫 순례지는 디트로이트 선센터였다.

디트로이트 선센터는 숭산 스님의 법맥을 이은 활선 스님이 창건한 곳으로, 현재 명주 스님이 주지를 맡고 있다. 미국인인 활선 스님은 80세가 넘은 지금까지도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전법에 힘쓰고 있다. 활선 스님은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의 중심을 'Who Am I'라는 화두를 통해 스스로 참구하는 데 두고 있다.

또한, 디트로이트 선센터는 단순히 참선을 수행하는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스님을 비롯한 센터의 모든 불자들은 완전한 채식주의를 실천하고 있으며, 유기농 농법을 활용한 농작물 재배와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있었다.

실제 선센터 건물 지붕에는 작은 텃밭을 조성하여 채소를 자급자족하며, 인근 농지를 빌려 100%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여 배달 및 우편 판매를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경제적 자립을 넘어서, 수행과 환경 보호, 공동체 정신이 어우러진 하나의 전법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이 불교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선센터에서 한국에서 온 학생들과 필자는 함께 울력에 참여하는 뜻깊은 경험을 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모자를 착용한 채,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시리얼 재료를 섞는 울력은 노동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둘러 앉은 학생들은 커다란 용기에 담긴 재료를 정성껏 섞으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수행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몸과 마음을 다해 불법을 체득하는 과정임을 실감케 했다.

활선 스님과 명주 스님, 그리고 센터의 불자들은 모두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사고방식 속에서도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며 수행을 실천하고 있었다.

채식을 실천하고, 절제된 삶을 유지하며, 공동체와 자연을 배려하는 그들의 모습은 '지계(持戒)'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다.

이런 경험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특정 국가나 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마음을 밝히는 보편적인 진리임을 깊이 깨닫게 됐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전법을 실천하는 스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디트로이트 선센터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순례가 아닌, 불법(佛法)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 몸소 체험하는 과정이었으며, 학생들에게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귀중한 수행의 시간이었다.



조정희
국제포교사, 명상 전문 트레이너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⑭ 음식과 인간 이해

오온 인식, 불교 바탕이자 명상법

인간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 견해를 기술로 접목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고대 인도대륙의 인간 이해는 음식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를 설명하는 식소성아(食所成我)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런 이해 방식의 장점은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로 시작하기에 관찰과 사유력을 발달시킨다. 하지만 추상의 오류로 빠지기 쉽다는 한계가 있다. 추상적 사고의 귀결로 브라만교 전통은 궁극적 실체를 아트만으로 제시한 것이다.

오장설(五藏說)에 대한 안티테제로 등장한 것이 오온설(五蘊說)이다. 태양족의 후예임을 자부하신 석존의 오온(五蘊, pañca-skandha)에 대한 설명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다.

색(色)은 모인 물방울 같고, 수(受)는 물 위의 거품 같으며
상(想)은 봄날 아지랑이 같고, 모든 행(行)은 파초와 같으며
모든 식(識)과 법(法)은 허깨비와 같다고 관찰하라.
(觀色如聚沫 受如水上泡 想如春時燄 諸行如芭蕉 諸識法如幻)

–〈잡아함경〉 T2, 69a18–20

경전의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색·수·상·행·식의 무더기들(蘊)로 이루어진 인간은 물방울, 거품, 아지랑이, 파초, 허깨비(沫泡燄芭幻)임을 알아차리라는 것이다. 이들은 한결 같이 실체가 없다. 그리하여 오온은 제법무아를 설명하는 토대가 된다. 인간 자신의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귀납적 결론으로 향하는 태도는 현대 과학의 입장과도 유사하다.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기본 요소인 오온을 세계와 우주로 확대 적용하여 일반화한 무아설은 실증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에도 몸과 마음, 신체와 영혼, 물질과 정신, 형이상과 형이하라는 이원론에 입각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불교적 입장도 인간을 몸과 마음의 복합체로 보고자 한다. 신체적 부분은 지수화풍의 네 가지 요소에 기반하고 있는 색법으로, 정신적 요소는 수상행식의 심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불교가 색법보다 심법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신작용인 심법이 번뇌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할 때 번뇌를 지칭하는 취(取)를 보충하여 오취온(五取蘊)으로 설명한다.

인간본질에 대한 차제적 설명방식인 오장설이 논증을 거치며 지나친 추상의 경로를 밟았기에 아트만이 탄생한 것이다. 음식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이해로부터 기소성아(氣所成我), 심소성아(心所成我), 지소성아(智所成我) 그리고 영소성아(靈所成我)의 설명이 완성된다. 이 이론은 브라만교는 물론 현대 힌두교의 인간 이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불교는 실증적 경험에 대한 증명으로 몸과 마음의 현상과 법칙을 오온설로 제시한 것이다.

오장설과 오온설 모두 거친 것(麁)으로부터 미세한 것(細)으로 진행하는 수추차제(隨麁次第)의 입장을 보여준다. 이는 순수성을 지향하여 오염(染)의 결과와 원인의 순서라는 수염차제(隨染次第)이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 즉시 자신의 몸과 직전에 섭취한 음식물의 관계를 살펴보라! 그리고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며 호흡과 우주의 기운과 느낌들을 관찰해보라. 이렇게 색·수·상·행·식을 하나씩 관찰하여 오온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불교의 바탕이며 명상법이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열암곡 부처님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천명하며 출발한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3월 15일 취임 900일을 맞아 경주 남산 열암곡에서 '국민화합 기원 108배 기도법회'를 봉행했다.

빗줄기 속에서도 사부대중 400여 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는 원력을 모아 국민 모두가 마음의 평안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도록 큰 원력을 모으는 시간이었다.

조계종이 천 년 동안 쓰러져 있는 경주 남산의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 불사를 시작한 지 어언 2년 하고도 반. 2022년 9월 출범한 37대 집행부의 첫 원력 사업으로 채택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불사에 투영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진우 스님은 취임법회에서도 넘어진 천 년을 일으켜 세운다면 앞으로 천 년 동안 국운이 창성하고 국민들은 평안할 것이라며 불자는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범국민 원력불사로 확대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일은 단순히 불상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원력 불사는 스님은 물론 신도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이끌어내고 있다.

전국에서 성지순례 발길이 이어지며 다라니 기도가 지속되고 있으며 동참금도 꾸준히 모연되고 있다. 마애부처님이 전 사부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불교 중흥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다듬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는 외형 불사를 넘어 새로운 서사를 써내려 가고 있는 중이다.

쓰러져 있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운다는 건, 갈등으로 점철된 난국 앞에서 쓰러진 우리가 굳건한 의지로 다시 일어선다는 것과도 같다.

전국 방방곡곡 수많은 불자들의 환희와 감동을 주는 이 시간들이 우리 사회가 정토로 나아가고 진정한 화합과 평화를 이루는 여정이 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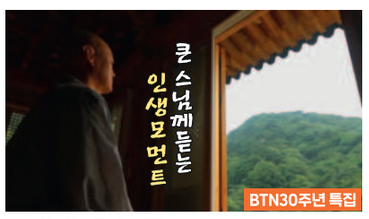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30 BTN
함께 이룬 30년
다시 뛰는 BTN
BTN불교TV를 향한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
본 목 12:00 재 목 22:30 / 일 15:00



문광스님의 한국학 에세이
본 화 07:30 재 화 19:30 / 토 12:00



진명스님의 지대방 시즌3
본 화 12:00 재 화 22:30 / 토 16:00



자현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 시즌2
본 금 08:30 재 금 19:30 / 토 15:00



법장스님의 투게더
본 금 07:30 재 금 16:00 / 일 23:15



다여스님의 땅설법
본 월 13:00 재 월 22:30 / 토 19:30



고인사이드 글로벌
본 수 07:30 재 수 20:30 / 토 08:30



꽃보다 출가
본 화 09:30 재 화 21:30 / 수 16:30



마음 여행을 위한 GPS 명상
본 수 13:00 재 수 23:15 / 일 14: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바른 앎이 바른 삶을 보장한다

현불논단



지승도 교수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SNS에 퍼지는 명언(?)이 있다. 세상에 진짜 없는 것 세 가지는? 첫째 '공짜', 둘째 '비밀', 셋째 '정답'이란다. 얼핏 고개가 끄떡여진다. 그러나 현자들의 앎은 상식과는 달라 보인다.

첫째, 공짜 없다? 누구나 수긍할 경험적 법칙이며, 윤리와 도덕의 근간이다. 하지만 양자역학자는 아니란다. 세상은 정말로 공짜란다. 정해진 바 없는 것이 실상 진리이기에, 상상하는 무엇이든 가능하단다. 일체유심조이기에 화엄 세계는 그림의 떡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짜라고 불교는 말한다. 공짜라면 선악이 무슨 소용인가? 아니다. 윤리와 도덕의 부정이 아니다. 역으로 철저한 윤리와 도덕, 선행의 실천을 거쳐야만 공짜의 진리에 들어선다. 진리와 하나가 된 자만이 공짜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다.

둘째, 비밀 없다? 이 또한 경험적 철칙이다. 드러날 것은 드러나고야 만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 진실이라 믿기에 숨겨진 비밀은 없다고 여긴다. 하지만 풀지 못한 엄청난 비밀이 있다. 몸과 마음 너머의 비밀, 우주와 의식 너머의 비밀, 윤회와 열반 너머의 비밀... 현대 과학이 불가사의라고 치부한 바, '중첩', '불확정성', '불완전성' 등 언어와 현상 이면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 불교적 용어를 빌자면, '무아'와 '공성'이라는 실상 진리를 통찰해야 한다. 생사를 해결해 줄 유일한 비밀이기 때문이다.

세상 어지럽고, 삶은 고달펴
부처님 법서 바른 앎 찾아야
알면 자유, 모르면 고통이다

셋째, 정답 없다? 정해진 바 없는 것이 진리이기에 정답 없다? 정답이 없으니까 몰라도 된다? 그냥 무심하게 무념으로 살면 된다? 아니다. 콩심은 데 콩 나는 것은 분명한 정답이다. 물론 콩의 속성이 무자성(無自性)이라는 것 또한 정답이다. 비록 정해진 바 없는 무자성이지만, 인과는 분명히 작용한다. 왜 정답이 있어 보이나? 인과법 때문이다. 윤회가 성립되는 이유다. 왜 정답이 없어 보이나? 무자성 때문이다. 열반이 성립되는 이유다. 그러니 대충 살아선 안된다. 중도의 비밀을 알아야만 정답이라는 장애마저 벗어난다.

세상은 욕망으로 치달린다. 기술은 눈부시지만, 정신은 끝없이 타락하고 있다. 해가 바뀌어도 세상은 어지럽고, 삶은 고달프다. 저마다 살 궁리에 여념 없지만, 백약이 무효다. 삶은 앎에서 비롯된다. 바른 앎만이 바른 삶을 보장한다. 공짜 없고, 비밀 없고, 정답 없음은 생활의 지혜일지는 몰라도, 궁극적 지혜는 아니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른 앎을 찾아야 한다. 반드시 깨달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 사유만으로도 삶의 고달픈 짐을 덜어낼 수 있다.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병들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본질적 고통이 한낱 무지에서 비롯된 그림자였음을 알기만 하여도 자유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알면 자유, 모르면 고통이다.

영화 〈레옹〉에서 소녀 마틸다는 묻는다. "사는 게 힘든가요? 아니면 어릴 때만 그런가요?"

레옹은 한숨짓는다. "언제나 힘들지!"

부처님이 곁에 계셨으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앎이 없는 삶은 미혹이요, 삶을 떠난 앎 또한 미혹이다."

트럼프 2기 상호주의 결과는 '공멸'

세간과 출세간



박수호 교수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취임하고 2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의 후폭풍이 매우 거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트럼프의 정책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이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동맹국과의 전통적인 협력 관계도 재고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한다. 이러한 입장은 주로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을 종결시키려는 트럼프의 개입은 상당히 노골적이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향하는 트럼프의 시선은 탐욕의 화신처럼 보인다. 정상회담에서 보기 드문 외교적 결례를 연출했던 미국이 군사 원조 및 정보 공유 중단 등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한 끝에 광물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은 보호세를 요구하는 조직폭력배나 악덕 고리대금업자를 연상시킨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초래하는 파급효과도 외교정책 못지않다. 미국에 대한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상호관세 정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행동에 맞서 상대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내게 된다. 유사한 사례를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이미 경험했고, 현재도 유사한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여파는 단순히 세계 무역 질서의 혼란으로 그치지 않는다.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일상적인 경제생활도 위협을 받게 된다. 최근 급격히 치솟은 미국의 달걀 가격 폭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외신들을 접하게 되면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총성 없는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우크라 향한 트럼프, 조폭 같아
일방적 희생 요구하는 상호주의
종국엔 미국 및 세계 모두 손해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세우는 상호관세 정책은 상호주의의 가면을 쓴 미국 우선주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상대국들의 저항은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일방적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양측 모두의 손해로 이어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의 법칙이 여기에도 관철된다는 점을 통찰하면, 이미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된 국제분업 체계 속에서 상대국들의 손해와 저발전이 미국에도 여파를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은 당연해 보인다.

상호주의는 연기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것의 실제적 내용이 어떤 방향성을 갖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 대등한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상호주의는 모두의 발전과 상생으로 이어지겠지만,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상호주의는 궁극적으로 양측 모두의 파멸로 귀결된다.

따라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상호주의의 길을 찾아야 한다. 자비심에 근거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상생의 상호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일 것이다. 그러나 이 배려가 강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강자를 향한 존중과 약자에 대한 배려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중도의 관점에서 성찰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시대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고민은 인간만의 이익이 아니라 뭇 생명의 이익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社 說

봉선사 명상체험센터 기공에 부쳐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는 3월 18일 경내 일원에서 '명상체험센터 기공식'을 봉행했다. 봉선사 명상체험센터는 교구본사가 추진하는 '1호 명상센터'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종단 차원에서 건립 예정인 선명상센터가 있지만, 본사가 직접 나서 명상센터를 건립하며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 남양주 진접읍 부평리 249번지에 들어설 봉선사 명상체험센터는 총면적 3만905㎡에 연면적 4215㎡로 지하 1층, 지상 2층, 최고높이 9.26m 규모로 지어진다. 불교명상관, 웰컴센터, 명상마당, 참선동, 명상 미디어영상관, 관리동 등으로 들어선다.

지난해 연말 시작된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한국사회는 혼란의 한가운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선명상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문화 진흥을 도모하는 '선명상 대중화' 운동은 대승불교의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과 맞닿는다.

포교·전법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워드다. 선명상은 현대사회에서 포교·전법을 이끌 중요한 방편이다.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종단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봉선사의 명상체험센터 기공은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봉선사의 명상체험센터 불사가 원만회향되길 기대한다.

출가자 감소, 범불교적 대응을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회원종단 29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사찰과 승려(정사) 수가 10년 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에 비해 사찰 수는 4590곳이 감소(-31.4%)했으며, 승려(정사)수는 1만 3734명 감소(-39.11%)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수행자의 감소다. 비율로만 보면 감소세가 40%에 육박한다. '출가 절벽'이라는 파고(波高)가 점차가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전체 출가자가 주니 종단별 사찰의 수가 주는 것은 필연적 결과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종단협 소속 종단 사찰 수는 2014년 1만 4742개에서 2024년 1만 152개로 4590곳 감소했고, 등기사찰은 2014년 3496곳에서 2024년 3451곳으로 45곳 감소했다. 승려(정사)수는 2014년 3만 5117명에서 2024년 2만 1383명으로 1만 3734명이 줄었다.

출가자 감소 문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기론됐던 현안이다.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경우 2012년 212명에 달했던 한해 출가자 수가 2023년 84명으로 줄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사회의 고질적 사회문제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것이다. 애초 자녀를 낳지 않으니 출가자원이 주는 것이다. 또한 가족 전승을 비롯해 어린이-청소년-대학생·청년으로 이어졌던 계층포교가 붕괴되며 벌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불교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으며, 전법·포교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출가하거나, 미래 세대 출가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이는 모든 종단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죽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염불시스템 시설 상담하세요!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 5백여 사찰 염불시설을 한 베테랑업체!


소리 공학박사 박 공 희 대표 직접 방문 설명

본사는 최신 디지털시설로 기존 법당시설과 소리비교시 장난감 차이를 시설전 반드시 확인!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귀 사찰 법당시설의 1/2 가격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50평 가능 / 방생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사찰 재 전문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장엄한 음성으로 화답!



국제 선명상 축제

일 시 4월 2일(수) - 4월 6일(일)
장 소 봉은사

국제 선명상 지역 축제

일 시 5월 ~ 9월
장 소 인천, 경기, 강원, 충청,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전북, 전남 등 지역사찰

국제컨퍼런스 본행사

일 시 10월
장 소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2025 국제선명상대회 개막식 OPENING CEREMONY

선명상을 통한 마음의 평안, 세계평화

일 시 4월 1일 (화) 18:00-20:00
장 소 서울 봉은사 미륵광장

앱 다운로드 GET IT ON Google Play / Download on the App Store

홈페이지 seonmeditation summit.kr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